

**THE IMPORTANCE AND STRATEGY OF CONSTRUCTION MISSION AS A
TENT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FORMED WORLDVIEW**

EVANGELIA UNIVERSITY

Sony Nam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지도: 김성수 박사

이 논문을 에반겔리아 대학교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Evangelia University

남 명 호

**The Importance and Strategy of Construction Mission as a Tent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formed Worldview-**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Evangelia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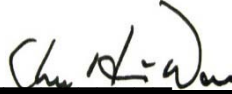
SonyNam

February 2020

남 명 호의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 김 성 수 

심사위원 : 원 차 희 

심사위원 : 강 순 혜 

Evangelia University

2020 년 02 월

Copyright © 2020 by Sony Nam,

All rights reserved

개 요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필자는 1988 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1999 년 처음 멕시코로 건축선교를 다녀온 후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처음 하는 건축선교가 어떻게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팽배했지만 미래에는 건축선교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는 꿈을 품고 매년 겨울에 지인들과 꾸준히 건축선교를 하여왔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건축선교사역은 본 연구 수행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의 방법과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을 고찰하고, 이어서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을 고찰하였다. 특별히 개혁주의 세계관의 한 핵심 개념인 살롬의 관점에서 건축선교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살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고 즐거움이 풍성한 곳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여기’ 에서 맛 보여주는 선교사역은 건축선교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축선교는 또한 전문인 선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전문인 선교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건축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그 효과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의 ‘밀거름 선교회’ 와 미국의 ‘Frontier Ecclesia Mission’ 선교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건축선교의 구체적인 활동을 예시하면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탐색하였다. 요컨대, 건축선교는 성경 전체

의 관점에서는 물론, 현대의 선교 상황에서도 시급히 요청되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교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합당하고 선교지향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밈거름 선교회’와 ‘Frontier Ecclesia Mission’의 사역 사례는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예시해 보여주고 있다.

Mentor: 김성수 박사

ABSTRACT

The Importance and Strategy of Construction Mission as a Tent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formed Worldview

I began my life journey of Christian faith when I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back in 1988. In 1999, I developed a vision for construction missions after returning from a mission project to Mexico. Initially, I had lots of doubts about how construction projects can serve a purpose as a missional tool. Still, I continued to participate in mission projects every winter because I believed that construction projects would become essential, strategical tools in the future for missional work. My passion for and personal experience of short-term missions based on construction projects became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this study.

This study explores the importance and strategy of construction missions as a tentmaking 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formed worldview through the method of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first considered the importance and nature of mission, and then the nature of mission through the framework of creation-fall-redemption.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onstruction projects for foreign missions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halom, one of the core concepts of the reformed worldview. The kingdom of God overflowing with shalom is a place full of enjoyment, without being block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man and man, and man and nature. The missional ministry that demonstrates the Kingdom of God “here” and “now” clearly show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on missions. Construction mission projects are also important when the mission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a tentmaking missi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tentmaking mission and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approach to a tentmaking mission have made the importance of construction mission more apparen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on mission as a tentmaking mission and its effective strategies. And the case studies of construction missions through the examples of the missionary organizations of ‘MitgeoleumMission’

in Korea and 'Frontier Ecclesia Miss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illustrated to explore the importance and strategy of the mission through construction projects.

In short,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can be an effective and essential mission strategy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hole Bible, but also in the modern mission situation. To improve the ongoing missional work and also the construction mission, the Christian must gain a more biblical perspective of the meaning and nature of missions. Also, missional structure and programs must be supported accordingly within the Church. The case studies from the illustration of 'MitgeoleumMission' and 'Frontier Ecclesia Mission'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the mission using the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of the missions.

Mentor: Dr. Sung Soo Kim

감사의 말

먼저 논문을 쓸수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총장님의 논문 지도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성수 총장님의 관심, 사랑,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을 박사 논문답게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 강순혜, 원차희 교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저도 다른 사람에게 작게나마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 대학교서 공부하고 여러 교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후배를 사랑하고 선교학 강의에 인생을 바친 천국에 계신 남정임 교수님, 언제나 정열적으로 가르치신 한기원 교수님, 필자가 논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여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James, 딸 Sarah 그리고 안경자 권사님 과 박성호 목사님, 이 논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돌봐주신 박석현, 윤대진 목사님 과 최미영 권사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일에 함께할 우리 ‘Frontier Ecclesia Mission’ 선교회 정광록 집사님, 김승년 장로님, 송경주 전도사님, 김용배 집사님 과 최정옥, 조재규 집사님 그리고 한국서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하고 있는 양장규, 김향균 목사님 부부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 년 동안 친형님 처럼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고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선교사의 길을 열어 주신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안영호, 전남진, 김은재 장로님, 과 박석현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필자의 논문이 이론과 실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건축 선교를 통하여 건축 선교가 세계 복음화 전략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 개척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가 없는곳에 교회를 개척 하는 일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개 요.....	6
ABSTRACT.....	8
감사의 말.....	10
목 차.....	11
제 1 장 서론.....	16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진술.....	17
연구의 방법.....	18
연구의 한계.....	18
용어의 정의.....	18
선행 연구 개관.....	19
제 2 장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	20
선교의 중요성.....	21
선교의 의미와 본질.....	29
선교 개념의 변천.....	32
초대교회의 선교 개념.....	32

로마 제국 시대의 선교 개념.....	32
중세시대의 선교개념.....	34
종교개혁시대의 선교개념.....	35
근대의 선교개념.....	36
 제 3 장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	 39
개혁주의, 무엇인가?.....	39
개혁주의 전통과 칼빈주의.....	40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	42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42
창조-타락-구속의 우주적 이해.....	43
성별과 성화.....	44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살롬의 관점에서).....	45
살롬(평화)의 일반적 의미.....	46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의.....	48
평화(살롬)의 성경적 의미.....	50
살롬(평화)과 선교.....	56
 제 4 장 건축선교의 외연(Extension)으로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	 61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	61
전문인 선교의 개념.....	64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기초.....	66
성경에 나오는 전문인 선교 사례.....	66
전문인 선교의 역사적 기초.....	69
초기 기독교의 전문인 선교.....	69
종교 개혁 이후의 전문인 선교.....	71

만인 선교사론.....	83
구약의 만인 선교사론.....	83
신약에서의 만인 선교사론.....	83
만인 선교사론과 교회의 사도성.....	85
전문인 선교전략.....	87
전문인 선교사의 기본 자격.....	88
전문인 선교사 훈련.....	89
미전도 종족에의 접근을 위한 전문인 선교의 기본전략.....	90
전략적 구조.....	90
제5장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	92
건축선교 의 개념.....	92
건축선교의 중요성.....	92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인식의 변화.....	94
선교에 대한 정의의 잘못된 인식.....	95
선교사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96
교회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	97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97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98
선교지 목사선교사가 전문인 선교의 전도사가 되라.....	98
교단차원에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전환.....	99
교회차원 목회자들의 인식전환.....	99
교인들에게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육과 홍보.....	99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최상의 전교 전략임을 강조.....	100
전문인 선교로서의 사역의 안정성을 홍보.....	101
건축선교의 동원을 위한 지원 체계의 수립.....	101
교단차원의 지원 체계 수립.....	101
교회차원의 지원 체계 수립.....	102
전문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103
전문인 선교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104

미전도 종족 입양을 위한 기획과 실행.....	104
교회 내 전문인 선교사 후보의 발굴과 지원.....	105
전문인 사역 현장 홍보물을 통한 동기부여.....	106
단기 선교의 활성화.....	106
지역봉사활동의 전개.....	107
교회 내 선교부 활동을 통한 동원.....	107
전문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의 활용.....	108
 제 6 장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사례연구.....	109
밀거름 선교회.....	109
밀거름 선교회 창립 취지.....	109
밀거름 선교회 운영 방침.....	110
창립 당시 초기의 활동.....	111
밀거름 선교회의 지속적인 건축선교 활동.....	112
인도(김정구 선교사).....	112
네팔 카투만두.....	112
인도 뭄바이.....	113
안뜨라왈라 교회건축.....	113
온데교회건축(원주민교회).....	113
인도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	114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 태풍 재난 복구 사역.....	116
필리핀 빈민촌 사역.....	119
필리핀 할랑 빈민가 주택 개량 사역.....	122
필리핀 안티폴로시.....	124
필리핀 안티폴로.....	124
필리핀 민도르.....	125
캄보디아 사역.....	126
 Frontier Ecclesia Mission (FEM선교회).....	127
창립 목적.....	129
해외 선교.....	129
미국 국내 선교.....	130
FEM 사역 계획.....	130
사역내용, 계획.....	131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34
참고 문헌 (Refernce CITED).....	137
첨부분서 I. 밀거름 선교회 창립총회 순서.....	143
첨부분서 II. 밀거름선교회 정관.....	144
첨부분서 III. Frontirer Ecclesia Mission (FEM 선교회) 정관	148
첨부분서 IV. FEM 선교회 영문 정관	155
첨부분서 V. 김승년 제작, 멕시코 까말루 믿음교회 지붕 공사 설계 도면.....	161
첨부분서 VI. 21세기 선교관 수리요청 사진	162
첨부분서 VII. 복음대학교 공사 사진	163
첨부분서 VIII. 아마존 (콜롬비아 니아 데미티 마을) 성전 설계 도(양성식 선교사).....	164

제 1 장

서론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¹ 선교의 대상과 방법론은 매우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선교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밀한 접근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교를 위해서 목표 집단(Target Group) 선정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방법은 효과적인 결과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선교를 위한 영적이며 물질적인 수고들을 허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선교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건축선교를 통한 선교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건축선교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와 이슬람교가 강세인 중동지역 국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프리카와 제 3 세계 여러 나라에도 파송되어 선교사역을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 할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상류계층²에게도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한 선교전략이다.

¹ Charles E.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40.

² 여기에서 ‘상류층’이라 함은 선교지 현지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빈민대중들과 대조되는 부류로서의 사회계층을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진술

선교의 대상과 선교전략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선교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밀하고 효과적인 선교방법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선교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선교를 위한 목표 집단(Target Group) 선정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면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선교를 위한 영적이며 물질적인 수고들을 허비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Great Commission)³으로서 교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이다. 그러나 세속화, 다원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현대사회 문화 속에서 왜곡되지 않고 혼합적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역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 2) 선교개념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3) 선교의 중요성을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4) 전문인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5)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건축선교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6)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사례는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효과적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가?

³ 개혁개정 성경, 마 28:18-20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9), 52.

연구의 방법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선교, 개혁주의 세계관, 전문인 선교, 건축선교와 같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과 저서들을 분석하여 고찰하며 논의하는 문헌분석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동시에 사례연구와 간단한 인터뷰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사례연구와 인터뷰는 건축선교 분야에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밀거름 선교회”(대표회장 배동석 장로) 및 “Frontier Ecclesia Mission”(대표 남명호 선교사)의 사역과 내용, 그리고 사역 방법과 결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선교현장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면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첫째, 건축선교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건축선교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고 고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둘째, 건축선교 사역도 주로 개체교회 중심으로 단기 선교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고, 그 결과도 개체교회의 선교봉사 보고 차원에서만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건축선교의 사례연구를 “밀거름 선교회”의 사역에 제한하여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셋째, “밀거름 선교회”의 건축선교방법을 참조하여 선교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사례를 고찰하여 선교전략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들은 신학적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작적 의미로 사용한다:

- 1) 선교: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
- 2) 전문인 선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전담(Full-Time) 혹은 파트타임(Part-Time)으로 수행하는 선교사역

- 3) 건축선교(Construction Mission): 건물 짓는데 필요한 설계, 토목, 배관, 전기 등 건축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한다.

선행 연구 개관

건축선교는 선교의 유용한 도구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선교는 주로 단기 선교시에 선교지 성도들의 주택개량 프로젝트나 소규모 교회당 건축 정도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행되어 왔다. 따라서 건축선교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이며, 건축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과 대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대학 도서관과 신학교와 선교단체 웹사이트를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았지만 건축선교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제 2 장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

인류 첫 선교사는 하나님입니다! 현대어성경 창세기3:8 에는 “그 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범죄한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좌시 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 당신의 구원을 절대 필요로 하는 공포에 질린 인간들을 방치해 둘 수도 없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인간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픈 현실을 지켜보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신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장소에의 물음이 아니다. 아담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묻는 상태에의 물음이다. 곧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무 사이에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아담을 부르신 것이다.⁴ 실로 인간은 하늘이나 음부나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낫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시 139: 7-9).⁵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선교사로 이땅에 오셨고 그후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현재 필자에 이르기까지 선교는 쉬거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⁶

⁴그랜드종합주석, *창세기* (제자원: 성서아카데미, 1999), 233.

⁵그랜드종합주석, 233.

⁶랄프 윈터 외, *퍼스펙티브스* (경기도: 예수전도단, 2010), 33.

선교의 중요성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말이 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다. 한국교회는 물론 일부 서구교회에서도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물론 교회의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러한 성장을 전제로 하여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그러한 외적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선교하려고 한다면 선교를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매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성장을 위해 선교를 수단화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선교의 중요성은 선교는 교회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며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가지고 있는 참 교회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또한 교회되기 위해 선교한다.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공동체성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신앙, 교회의 신학, 마침내 교회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단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죽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다.⁷

존 파이퍼(John Piper)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러나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며, 선교의 원동력(Fuel)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⁸ “예배를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 이러한 그의 진술은 요하네스 버카일(Johannes Verkuyl)이 언급한 선교의 순수한 동기 중, ‘하나님의 영광의 동기’ (The Motive of Doxology)에 해당되는 것이데, 버카일이 이 동기를 여러 순수한 동기 중 하나로 본 데 비하여, 파이퍼는 이 동기를 선교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동기로 보았다는 점에 두 견해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⁷방동섭, *선교없이 교회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0-31.

⁸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1.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배가 드러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교는 필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⁹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며(Sein Wesen), 이 예배는 선교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된다’ (Werden Wesen).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는 교회의 기본적인 존재법칙을 강조한다. 먼저 그는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양식을 모방하는 존재” 라고 비유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를 향하셨고,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셨다’ 는 사실을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교회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위한 외향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러한 외향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첫째, 교회는 선교적이다.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선교(Mission) 그 자체이다. 교회를 불러 세우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¹⁰ 교회는 그리스도 증거를 위한 공동체요 하나됨의 실현체이다. 하나됨(Unity)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한 면인 것이다.¹¹
- 둘째, 교회는 봉사적, 직무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봉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Ministry, Diakonia) 그 자체이기도 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막10:45).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봉사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셋째, 크래머는 “평신도가 교회다.” 라고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laos)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laos 에서

⁹Johannes Verkuyle.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 by Dale Cooper (Grand Rapids, MI: Wm R. Eerdmans, 1978), 165-166.

¹⁰개혁신개정 성경, 마28:19-20, 행1:8

¹¹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평신도신학. 유동식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1- 23.

평신도를 의미하는 ‘laity’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므로 평신도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역자와 평신도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laity’인 것이다. 다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그 기능을 달리하듯이, 각기 그 교회적 기능을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증거와 봉사를 위해 소생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이는 교역자라기 보다도 평신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는데 비해서 평신도는 교회의 한 지체인 동시에 사회인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전략적인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계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봉사 속에 그리스도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로 평신도는 이 세계 속에 흠어져 있는 교회인 것이다. 여기에서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교회는 자주 이러한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했거나 등한시 했다. 평신도를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객체로 보았던 것이다. 평신도는 결코 교회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체자이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혁신의 초점은 이 평신도의 올바른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 (God's Frozen Property)이었던 평신도에게 그 사역적 사도성을 회복시켜 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교회의 사도성은 결국 사도들의 사명과 역할을 지향하는데 그 초점은 선교에 있다.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 크래머의 교회론도 결국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진 핍박과 장애물 속에서도 선교 실천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선교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다. 주후 1세기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선교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¹²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였고, 그 거룩한 목적의

¹²개혁신명 성경, 마태복음 28:18

성취를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며 전진하였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에 태어난 이후 선교 없이 존재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초대교회의 선교적인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초대교회의 본질과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충분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이다.¹³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복음”¹⁴ 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디아코니아’ (Diakoniva)¹⁵ 적 선교사역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주후 1세기 초대교회의 선교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자기중심적 ‘지역주의’ (Provincialism)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성장했던 이유가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몇 사람의 영웅적 선교사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일생을 바쳐 수고한 선교사역의 중요성과 선교적 공헌을 부정할 수 없다.

¹³ John Mark Terry, *The History of Missions in the Early Church in Missiology: An Introduction to the Foundations, History, and Strategies of World Mission*, ed. by Ebbie Smith and Justice Anders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Pb.1998), 166.

¹⁴복음(euangelion) 구약과 헬라 사회 초대 그리스도교 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동사형으로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지녔다(삼상 31:9; 사 40:9; 41:27; 52:7; 60:6; 61:1), 그것은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3세기까지의 헬라 사회에서는 합성형의 형태로서 주로 승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군사적,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뉴스를 뜻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 자체(롬 1:15) 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빌 4:15)를 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믿도록 부르시는 도구였다(롬 1:1-4), 이러한 복음은 예수가 친히 설교한 기쁜 소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막 1:14-15).

박수암, *성서주석: 마가복음*, (서울:대한기독교 서회, 1993), 117-118.

¹⁵성경에서 디아코니아(diakoniva)라는 용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으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막 10:45)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사명이다. 성도는 교회의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 (고전 12:7, 11 벰전 4:10)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롬 5:8-10 갈 6:10 약 1:27 벰전 2:9)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 전진하던 시기는 영웅 몇 사람이 나서서 선교하던 시대가 아니었다. 소수의 무리가 모이던 초대교회가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선교의 위대한 과업을 실천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던 모든 구성원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선교사의 삶을 철저히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대에는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사였으며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실천하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윌 듀란(Will Durant)은 “거의 모든 개종자가 선교의 직무를 가졌다”고 하였다.¹⁶ 선교 역사학자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도 없어도 진리는 있었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은 함께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다와 육지를 건너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 모든 지역으로 들어갔고, 가는 곳마다 친구와 이웃과 나그네를 만나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믿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노예, 상인, 군인으로서 그들의 세속적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멀리 떨어진 해안이나 외딴 지역에 망명을 떠나면서도 믿음을 전파하였다.”¹⁷

초대교회의 생생한 선교 역사를 기록했던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주후 1세기에 등장했던 이름 없고 얼굴 없는 무명 선교사의 거룩한 행렬은 당시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거룩한 무명 선교사의 행렬은 교회 역사를 통해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260-340)는 2세기 초엽의 이름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비전을 갖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¹⁶ Will Durant, *Caesar and Chris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602.

¹⁷ Herbert Kane, 20.

¹⁸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처음으로 취했던 행동은 그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그 후 그들은 집을 떠나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비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복음서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책임은 그들 가운데 목자를 세워 위임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다른 지방과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¹⁹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깊은 자기반성과 선교적인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만일 특정한 몇 사람을 해외 선교지에 파송하고 그들에게 선교 사역의 전부를 맡겨버리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특정한 선교사를 몇 사람 해외에 파송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몇 사람을 후원하면서 후보에 그 명단을 올리는 교회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종종 구호로 외치는 ‘선교 한국’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해외에 수만 명 혹은 수십 만 명 보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교 한국’은 한국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 마인드를 회복하고, 자신이 서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지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전체가 선교사로 나서는 총체적이고 총력적인 선교가 아니면, 현재처럼 소수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선교 사역으로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과제인 선교의 완성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초대 기독교의 선교 지향적 공동체의 성향은 3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3세기 말에 이르러 로마 제국 내부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²⁰ 그러나 주님의 선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도

¹⁹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s: London, 1964), 35.

²⁰ *ibid.*,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서히 선교마인드를 상실하고, 결국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선교적인 특성을 상실해 버린 때도 있었음을 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후 4세기 초엽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시대 지상 위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는 선교 관심을 현저하게 상실하게 된다. 물론 그 시기에도 ‘고트족의 사도’ (Apostle the Goths)라고 불렸던 울필라스(Ulfilas) 같은 영웅적인 선교사가 있었고, 그 당시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 변방의 게르만족을 위한 그의 선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선교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교회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고, 교회의 선교는 소수 몇 사람에게 불과한 전문 선교사의 사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 내에 합법적인 종교 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한 지상 위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정치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제도화된 교회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로마 제국 내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후원하고는 지상의 교회에 물려들면서 교회 공동체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선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²¹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야만족들을 위해 선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몇몇 특정한 사람을 선교사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선교를 위임하여 파송하였다. 따라서 그 나머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선교의 사명과는 관계없이 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다. 오늘날에도 소수의 선교사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마땅히 해야 될 선교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선교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제도화되어 기동성(Mobility)을 상실하고 선교 정신이 메마르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간다. 따라서 외향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적인 사업은 진행되지만 그곳에 선교 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²²

²¹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489.

²² M. R. Spindler, “The Missionary Movement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in *Missiology: An Ecumenical Introduction*, ed. F.J. Verstraelen, A. Camps, L. A. Hoedemaker, M. R. Spindler, (Grand Rapids: Eerdmans, 1995), 458.

그러나 교회나 선교 단체의 비대한 조직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나그네됨을 막아버린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어두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던 시대를 청산하고 지상에 올라와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생존권을 갖지 못했고 가혹한 핍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에 대한 공인으로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대는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 후 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 황제들의 직접적인 후원으로 제국 내에 자리를 잡으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때 500만 명의 인파가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제국 내에서 서서히 기독교의 종교가 되었다.²³

이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종교 조직은 기독교 공동체에 틀림없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그 때부터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 내에서 무수히 많은 명목상의 교인을 얻고 있는 동안 교회는 선교 마인드를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더 이상 선교할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관심은 더 이상 선교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엄청난 교인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본래의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의 모습에서 벗어나 ‘관리적 교회’ (Maintaining Church)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는 앞으로 나타날 중세 천년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였다. 중세 천년이 흘러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의 선교 정신은 죽어가고 있었다.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한 가르침은 옛날 낡은 시대의 이야기로 들렸고, 마태복음 28장의 '선교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출신의 몇몇 수도사들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선교할 의무도 책임도 느끼지

²³ Stephen Neill, 39.

못했다.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의 거대한 무덤 속에 선교는 숨죽이고 묻혀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기존 구성원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관리적 기능에만 머물러 세상을 향해 과감히 나가는 선교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 선교 마인드를 상실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으로 전락해 버리며, 그 자체가 교회의 무덤으로 변한다. 교회는 선교 지향적 특징을 매우 적극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나그네 됨’을 상실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선교 움직임’(Missionary Mobility)이 계속 유지될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

선교의 의미와 본질

성경에 선교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선교는 라틴어 동사 ‘Mitteer’(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영어로 선교를 의미하는 ‘Mission’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뜻한다. 영어의 ‘Missionary’(선교사)는 역시 라틴어 ‘Mitto’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선교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21)고 말씀하신 데서 전형적으로 표현되었듯이 ‘보냄을 받는다’는 성경적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사이의 유사점에서 선교의 방법과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²⁴

성경적 의미로 ‘복음’이란 말은 사도들의 설교인 기쁜 소식을 말한다. 초대교회의 전도 (Kerygma, 케리그마)²⁵에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및 승천, 성령 강림, 예수의 재림, 회개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스테반, 베드로, 바울 등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와 그 변경

²⁴ Sinclair B. Ferguson, David F. Wright, *아가페 신학사전* (서울:아가페, 1998), 480.

²⁵ 헬라어 성경(2782) 케뤼그마-복음전파, 전도. a. 전령이나 선구자가 외치는 선포 b.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메시지/어원(2784) 케뤼그마-발행하다. 전하다. 공포하다, 에서 유래 관련 성경: 전도(마12:41, 고전1:21, 딤후1:3), 전파함(롬16:25, 고전15:14). 신약 성경서 9회 사용.

여러 곳에 전해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오늘도 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선교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 (Mission)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지리적인 팽창과 해외 선교활동, 곧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언제나 서구로부터 세계의 다른 곳, 특별히 제3세계로 나아가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선교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대리인이며, 선교지는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구 사회 바깥의 모든 지역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선교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견해가 시대에 뒤쳐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3세계 교회 교인들의 숫자, 그리고 생명력과 선교적 비전에서 나타난 극적인 성장, 그리고 이에 상응한 서구 교회의 급격한 쇠락이었다. ‘선교’에 대한 낡은 견해는 더 이상 21세기 세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교회의 본질을 묘사하기 위해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일반적인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적’이란 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문화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습으로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의 이미지가 21세기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의 적절한 표상이 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 첫째, ‘선교’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이유는 서구 교회가 역사적으로 종종 내부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삶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내향적 조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는 교회가 세상 지향적이 되어서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난 수세기 동안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지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적’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 둘째, ‘선교’라는 용어는 서구 교회가 서구 문화의 이상들과 깊이 타협해 왔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대중적이 되었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와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서구 문화를 비롯한 세상의 이상숭배적인 문화와 구속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는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비판적 참여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한 참여는 유대관계와 도전을 모두 포함한다. 자신의 목적이 보냄 받은 곳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교의 대리인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는 선교사는 두 가지 모두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주류 문화의 영적인 흐름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선교사로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주류 문화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교회는 너무 자주 자신이 속해 있는 지배적인 문화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발견해 왔다. ‘선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 있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선교적’이라는 용어는 교회가 세상을 지향해야 하고, 하나님 선교의 대리인이자 하나님 이야기의 참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교회가 주변 문화의 일부이지만 그 이상숭배적인 문화에

반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구현하는 경우에만, 교회의 삶과 말이 예수님 안에 새 세상이 도래했고 곧 다가온다는 복음에 대한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증가가 될 것이다. ‘선교’라는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사와 교회가 속한 문화의 이야기에 좌악된 순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 개념의 변천

지금까지 선교의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교의 의미와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전승되어온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선교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왜곡이 있었다. 선교에 대한 한 시대의 개념은 그 시대의 선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선교, 특별히 전문인 선교로서의 건축선교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개념이 변천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의 선교 개념

초대교회의 선교는 곧 ‘증거’였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경험은 중추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십자가를 옛 세상의 끝으로 그리고 부활을 새 세상의 시작으로 해석했다.²⁶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세대였다. 그들에게는 이 두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한 실재였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로마 제국 시대의 선교 개념

로마 제국의 선교는 소위 ‘선교 전쟁’이라는 개념을 불러 왔다. 그들은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무력의 사용을 합리화하였다. 그리스도교

²⁶데이빗 J.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2000), 78.

철학의 창시자요, 신학자로서 어거스틴(Augustinus)²⁷도 간접적으로 선교 전쟁을 지지했으며,²⁸ 후에 샤를마뉴(Charlemagne)²⁹는 기독교 포교를 명분으로 삼고 사람들을 자기 권력의 수하에 넣기 위해 직접적으로 선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³⁰ 결국 로마 제국의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대신, 무력을 동원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위협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³¹

²⁷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라틴어: Sanctus 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 354년 11월 13일~430년 8월 28일)는 4세기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주교로, 개신교, 로마 가톨릭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라고도 불린다. 그의 이름은 ‘좋은 징조의’ 또는 ‘덕망있는’이란 뜻의 라틴어 아우구스툼(Augustum)에서 유래하였다. 그에 대한 호칭의 영어식 발음은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 불어식 발음은 '쎄토퀴스땡'(St. Augustin)이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아우구스티누스주의(Augustinism)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의 신학이 그리스도교 발전에 끼친 영향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사도 성 바오로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신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과 일반 학문을 함께 연구하는 중세의 스콜라 학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중요한 신학적 공헌은 은총론이다. 펠라기우스의 선행구원론을 반대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강조한 구원을 남겨주었다. Accessed February 0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²⁸데이빗J. 보쉬, 350.

²⁹카롤루스 마그누스 (라틴어: Carolus Magnus, 독일어: Karl der Große 카를데어그로세, 영어: Charlemagne 샬리메인, 프랑스어: Charlemagne 샤를마뉴, 스페인어: Carlomagno 카를로마뇨, 740년 혹은 742년 4월 2일 또는 747년 ~ 814년 1월 28일)는 카롤링거 왕조 프랑크 왕국의 2대 국왕이다. "마그누스"는 "위대하다"는 뜻이다. 그 생전 이름은 Karulus이고, 칭호는 Korolus magunus이다. 카롤루스 대신 샤를마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카롤루스는 서부, 중부유럽 대부분을 차지해 프랑크 왕국을 크게 확장했다. 재임하는 동안 이탈리아를 정복하여 800년 12월 교황 레오 3세에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와 반대되는 서로마 제국 황제직을 수여 받았으며, 황제가 되어서 교회 통해 예술, 종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국내외적인 카롤루스의 업적은 서유럽과 중세시대를 정의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신성 로마 제국 등 재임연표에서 샤를 1세 또는 카를 1세로 알려져 있다.

Accessed February 0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³⁰샤를마뉴는 그의 군대를 강력히 활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삭손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샤를마뉴는 삭손 사람들을 자기의 영유지 안으로 끌어 들이기로 결심하고, 772년에 표면상으로나마 그들의 영역 대부분을 자기에게 굴복시켰다. 그는 자기의 통치 아래 저들을 융합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저들에게 영세 받을 것을 강요했다. 그는 삭손의 영토에 늘 있을 수 없었기에 그가 없는 동안 거듭거듭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돌아와 칼날과 불로 보복했다.

맨슈랙. *세계교회사*. 심창섭, 최은수역(서울:충신대출판부, 1999), 197.

³¹ Chong Pae Kim, "A study on the Asian Cross-cultural Training Institute in Singapore" (D. Min.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73.

로마 제국시대에는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나뉘면서 두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서방교회는 무력을 동원하여 선교를 하면서 침략을 일삼았고 주변국을 지배하였다. 다른 한편 동방교회는 구약의 선교 패러다임, 곧 구심적 선교원리를 계속 유지하여 ‘예배 의식’³²을 통해 이교도들을 이끌어 들이고자 하였다. 로마 제국 시대의 선교는 서방교회의 무력을 동원한 ‘포교’와 동방교회의 ‘예배 의전’³³이라는 두개의 서로 다른 극단적인 개념으로 표출되었다.

중세시대의 선교개념

중세 시대의 선교는 로마 교황청의 무력을 동원한 ‘개종’을 의미하였다. 서구 기독교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기 우월감의 절정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선교할 일이 없다고

³² 동방 교회에서는 예배 형식과 여러 의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예배와 의식은 이교도들을 끌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동방 교회는 지배하기보다는 은사를 나누어 갖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또한 동방 교회 는정치적 물결이 바뀌어도, 교회에 대항하는 정치적 세력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고 또한 아주 가까이 이교주의가 계속적으로 태평하게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다.

데이빗 J. 보쉬, 305.

³³ 동방교회 성찬예배는 일반적으로 비잔티움 전통 계열 기독교의 성찬 전례를 일컫는 용어이다. 동방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성찬 전례를 성찬예배라고 칭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교의 두 축을 이루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 역시 성찬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오리엔트 정교회에서는 성찬예배라는 용어 대신 ‘거룩한 봉헌예배(시리아어: qurbano qadisho, 아르메니아어: surb patara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따금씩 라틴 양식 성찬 전례를 지칭하는 미사 내지는 그리스어인 리투르기아로 언급되기도 한다. 동방 교회, 특히 동방 정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찬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가르친다. 성찬예배를 통해 모든 신자는 현세를 떠난 성인들과 천상의 천사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에 대한 경신례를 바침으로써 하나가 된다고 믿는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성찬예배는 본래 유대교의 경신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맞게 변경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성찬예배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성경 봉독과 강론을 포함한 ‘말씀 전례’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성찬예배의 두 번째 부분인 ‘성찬 전례’는 최후의 만찬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행한 최초의 성찬식에 의거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찬예배에 참여하는 동방 그리스도교도들은 전통적으로 성찬전례가 예배의 중심임을 믿는데, 성찬전례는 빵과 포도주가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한다는 믿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일부가 된다고 믿고 있다. 교파별로, 또 전례시기에 따라 각 성찬예배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각자 전통과 목적, 문화 및 신학적 방향에 입각하여 전례에 적용시켰을 뿐이다.

Accessed February 0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여졌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구절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강조하였다. 그들에게 선교란 오직 대양을 건너가는 것이었고, 이교도들만이 그들의 선교 대상이었다.

이 시기에는 철저하게 로마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였다. 선교는 그 근원도 교회요 그 목표도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제도화된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시대의 선교는 제도화된 교회가 무력을 동원하여 대양 너머의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세상에서 도피하여 자신의 은신을 위해 수도원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수도원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이 계속되면서 점차적으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점차적으로 선교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요컨대, 중세시대의 선교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 주도된 ‘개종’ 과 수도원 운동으로 전개된 ‘구제와 영적 수도’ 의 두 가지 운동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졌다.³⁴

종교개혁시대의 선교개념

종교개혁 시대에는 ‘영혼구원’, ‘교회개혁’ 등의 새로운 선교 개념들이 속출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신앙고백에 쏠려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선교는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찾기보다는 선교운동을 일으킨 무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재세례파(Anabaptist)³⁵ 교회는 순례적이며, 선교적인 동시에 순교자의 교회였다.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란 철저하게 비폭력적이며, 국가와 교회는

³⁴ Chong Pae Kim, 75.

³⁵ 메노파(Mennonites) 혹은 메노나이트는 기독교에서, 종교 개혁 시기에 등장한 개신교 교단 으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재세례파의 일파다. 메노파란 메노 시몬스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메노파 신앙의 역사는 16세기 종교개혁당시에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보다 근원적(Radical)개혁을 요청했던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세례의 참 의미가 당시의 유아세례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이미 유아세례를 받은 성인 크리스천으로서 진지한 신앙고백과 함께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를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나뱃티스트(재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메노파"라는 이름은 박해로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재세례파의 신도는 모두 다 각기 선교사가 되었고, 특정한 선교 영역을 할당받았다. 종교개혁시대의 선교는 중세시대의 로마교황청에서 주도한 개종의 의미를 벗어나 버리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영혼 구원과 교회 개혁에 주력하였다.³⁶

근대의 선교개념

18세기 근대에 이르러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계몽운동이 일어났다. 인간 자율성과 이성의 강조는 이 시대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모두 이 시대에 일어났다. 독일의 **경건주의**³⁷운동은 종교개혁 시대의 관심이 지나치게 신앙고백으로 치우친데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고백적인 차가운 머리로 습득하는 교리보다는 가슴을 뜨겁게 하며 생활의 순결과 경건의 삶을 더 중요하게

인해 재세례파 운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재세례파 리더로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가톨릭 사제였던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Accessed February 0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³⁶ Chong Pae Kim, 76.

³⁷ 경건주의 발생 시대적 배경-16세기에 서방교회는 종교 개혁으로 찬성과인 개신교회와 반대파인 천주교회로 나뉘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되었다. 유럽의 중심사상과 사회 기본이었던 서방교회의 분리는 유럽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도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대립으로 완전히 나뉘었다. 16세기가 지나고 17세기를 거치며 서방교회의 개혁 반대파 천주교회와 개혁 찬성과 개신교회는 완전히 교파로 분리되어 각자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형국으로 변화하였다. 서방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서방교회의 양분 이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했다. 서방교회 개혁 찬성과인 개신교회는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으로 서방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개혁 반대파인 천주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치며 서방교회는 분리되고 두 교파가 서방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호 대립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유럽 사회에서 교리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회생활과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개신교도의 상인협회와 천주교도의 상인협회가 따로 설립되었고, 교파 차이로 인한 동일 지역내에서도 사회적 교류 단절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방교회는 종교개혁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점차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였고, 그 교리가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 연합하는 기준이 되었다. 개신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의 정통성, 즉 정통주의 신학의 교리적 강조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개신교회의 설교와 선교도 기독교인의 태도와 실천보다는 교리의 인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점차 개신교회는 정통을 강조하는 교리 중심이 되어갔다. 개신교의 제도 중심화, 교리 중심화가 신앙의 실천, 변화의 경험을 막는 것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고, 이 반성은 독일 개신교회인 루터교회의 내부에서 경건주의로 발생하여 점차 전 유럽 전역과 영국과 미주의 개신교회들로 퍼져갔다.

Accessed February 21,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여기는 경건주의 운동이다. 스펜너(Philip Jacop Spener)에 뒤이어 헤르만 프랑케(Hermann Francke)를 중심으로 할레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과, 진젠돌프(Nikolaus Ludwig Reichsgraf Von Zinzendorf)에 의해 시작된 **모라비안 운동**³⁸은 선교의 초점을 이방인의 회심, 곧 영혼 구원에 맞추었다. 그러나 경건주의 운동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사회 문화적인 영역을 선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웨슬레(John Wesley)와 윗필드(George Whitefield)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선교 사역에도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복음주의³⁹ 운동은 여러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선교회를 조직한 것이다. 런던 선교회(The London Missionary Society)가 1795년에 조직되었고 초교파 선교운동 또한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 시작 되었다.

³⁸모라비안(Moravian)은 18 세기 보헤미아(현 체코)의 개신교 신도들을 말한다. 1725 년에 로마 가톨릭의 탄압을 피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이주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인 모라비안은 활발한 해외선교를 벌였고, 성공회 사제인 존 웨슬리 신부의 감리교 창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가공품 제조 등의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를 실천하였다.

³⁹복음주의(福音主義, 독일어: evangelikalismus, 영어: evangelicalism)는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16 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에서 16 세기 서방교회의 종교개혁의 찬성과인 전통적인 종교개혁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시작되어, 16 세기 종교개혁 운동가들과 참여 교회들은 이 용어를 수용하였다.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자는 초기 종교개혁 시절부터 현재까지 개신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18 세기 들어서면서, 개신교 내부에서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 근대 신학이 등장하면서 보수 신학 계열과 진보 신학 계열의 구분을 위해 18 세기 이전과 다른 용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 세기부터 '광의적(廣義的) 복음주의'(전통적 복음주의)와 '협의적(狹義的) 복음주의'(신복음주의)가 구분되었다. 16 세기 등장한 '전통적 복음주의'는 광의적 복음주의 의미로 모든 개신교 전체의 신학사상을 지칭한다. 19 세기 이후 영미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신복음주의'는 협의적 복음주의로 보수적 신학사상을 지칭한다. 보수적 신학 계열에서 자신을 '복음주의'로 칭하고, 진보 및 온건 신학 계열을 '자유주의'로 칭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신학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를 흔히 '신복음주의라'고 부른다. 21 세기 현재, '복음주의' 단어는 광의적 의미인지 협의적 의미인지 구분해야 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신학 흐름은 20 세기 들어서면서 전통적이고 광의적 복음주의를 따르는 에큐메니칼 지지자들과 개신교 보수주의인 협의적 복음주의(신복음주의)를 따르는 로잔 언약 지지자들로 구분되는 결과가 되었다.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이후 청교도의 개척시기가 지나고 대각성(1740-1743)⁴⁰ 운동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대각성 운동의 출발과 미국의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청교도 시기,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한 대각성 시기,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사회복음의 시기 등의 크게 세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청교도들에게 선교란 신대륙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심 같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신대륙에 보내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대륙 ‘개발’ 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확신하였다.

대각성 운동시기에는 각 사람의 ‘회심’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국내 선교부들의 역할은 이미 기독교화 된 미국을 유지해 나가는 한 방편이 되었다. 이 시기의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의미했으며 마태복음 28:19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하였다.

⁴⁰ 18세기초에 일어난 앵글로색슨계 미국인의 종교 역사에서 빠르고 극적으로 나타난 신앙 부흥 운동이다. 이 운동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서유럽을 휩쓴 종교운동의 일부로 유럽의 경건주의와 정적주의와 관련이 있고,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이끈 복음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주요인물로는 사제인 조지 헛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존시 목사등이 있다. (제1차1735-1755, 제2차1790-1840, 제3차1850-1900, 제4차1960-1981).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제 3 장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 곧 선교의 중요성, 선교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선교개념의 변천사를 통해서도 전문인 선교와 전문인 선교로서의 건축선교의 중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겠지만,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의 문제를 먼저 고찰한 후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세계관과 전체 맥락과 특별히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샬롬(Shalom)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의미가 더욱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개혁주의란 무엇이며,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과 구조,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의 문제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무엇인가?

개혁주의라는⁴¹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이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⁴²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이 용어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거나 심지어는 아주

⁴¹ 개혁주의란?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모토로 집약된다.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다 들어 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여겼다. 그의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에서 머문다.

문병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요체*(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2013), 61.

Accessed February 28, 2020. http://www.kirs.kr/data/calvin/calvin_007.pdf.

⁴²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서방교회 종교개혁 사상인 '개선주의'와 '재건주의'적 전통으로 구분하면 서방교회 개선주의인 공교회주의 전통을 지닌 루터교회와 구별되는 서방교회 재건주의인 개혁주의, 즉 칼뱅주의를 뜻한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Reformed Church)에서 따르는 신학노선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로 불리는 고유의 신조(Creed)를 갖고 있다.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 혹자는 단순히 수구적 보수주의에 대한 반대적 의미로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구적 보수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진보적 또는 급진적 혁명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노선을 표방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덧붙여 개혁주의는 형용사적이며 추상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Reformed Church), 개혁주의 전통(Reformed Tradition), 개혁주의 신앙(Reformed Faith),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세계관(Reformed World View), 개혁주의 철학(Reformed Philosophy) 등은 구체성을 갖고 있지만 ‘개혁주의’ 그 자체는 추상적이다.

개혁주의 전통과 칼빈주의

개혁주의 전통은 크게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의 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의적인 의미의 개혁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司祭主義)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사제란 금욕 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⁴³에 의해 점화되어진 반 사제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⁴³마르틴 루터(독일어: Martin Luther, 1483년 11월 10일 ~ 1546년 2월 18일)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이다.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이다. 본래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예레미야 예언자의 가르침을 인용함)이라고 비판했으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der Rechtfertigung durch den Glauben) 이신칭의를 주장했다. 칭의를 통한 개인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 주었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는 1517년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회 수사이자 설교자 요한 테첼에 맞섰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하였다.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함으로써 결국 교황에게 파문당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당시 종교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

루터는 종래까지는 단지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졌었던 소명(Berufen)의 개념을 전교인들에게로 확대하여 모두가 사제라는 소위 만인제사장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사제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재해석하여 종래에는 특수한 계층의 신앙인들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이제는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금욕 생활과 관련된 이른바 세상에 대한 관점, 성경과 관련된 계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중보 기도와 관련된 교회관에 있어서 사제주의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학은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항상 관점을 같이 한 것이 아니었다. 에라스무스(Erasmus)의 영향을 받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와 소시니우스(Faustus Socinius)로 대표되는 합리주의적 전통, 토마스 뮌처(Thomas Muntzer)로 대표되는 영감주의적 전통, 루터교적 전통, 재세례파 전통(Anabaptist), 그리고 칼빈주의 전통(Calvinism)은 세상관, 성경관, 교회관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이면서도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중에서도 칼빈(John Calvin)⁴⁴의 가르침에 많이 의존하는 신학이다. 칼빈주의⁴⁵ 신학은 세상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분리된 금욕적

⁴⁴장 칼뱅(John Calvin)은 마르틴 루터와 함께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끈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다. 칼뱅은 30년도 안 되는 목회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의 대표 작품인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성경 주석, 설교집, 신학 논문, 논쟁서, 신앙고백서, 교리교육서 등을 포함한다. 칼뱅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래로 기독교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칼뱅의 사상은 전 유럽에 전파된 후 신세계로 뿔어 나갔으며, 훗날 전 세계에 알려졌다. 칼뱅의 통찰과 영향력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성경에 기초를 둔 신학 사상의 모형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양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

⁴⁵칼뱅주의(영어: Calvinism) 또는 개혁주의(改革主義, Reformed tradition, Reformed Christianity, Reformed Protestantism, Reformed faith)는 종교 개혁가 장 칼뱅이 주창한 기독교의 사상 및 성경을 따르는 신학사상으로서 종교 개혁을 통해 체계화되어 개신교의 주요 신학으로 자리잡은 사상적 흐름을 가리킨다. ‘칼뱅주의’란 말은 칼뱅 개인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나 이는 매우 드물다. 다만 그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발전하게 된 데에 칼뱅이 미친 지대한 영향에서 ‘칼뱅주의’란 이름이 연유한다. 칼뱅주의가 종교 개혁 당시 개신교 주류의 신학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유럽 각지에 개혁교회(영어: Reformed Church)가 발생하였다. 이들 개혁교회를 통해 칼뱅주의는 꽃을 피우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 전통을 계승하는 교파의 하나로서 칼뱅주의를 말할 때에는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칼뱅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 교파들로는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개혁 침례교회 또는 칼빈주의적 침례교회가 대표적이다. 칼뱅주의는 문화,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복지를 포함한 근대 사회를 형성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

삶을 주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자’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로 살아가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금욕은 모든 교인들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진실 되고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관에 있어서도 칼빈주의 신학은 철학적 이성이나 미학적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문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강조한다. 칼빈주의 신학은 교회관에 있어서도 루터교적 전통과 유사한 관점을 보이면서도 이와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견지한다.⁴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협의적 의미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곧 칼빈주의⁴⁷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개혁주의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도교회의 영역에 제한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가르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롬 11:36).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재(Present Reality)를 고백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미래적이며, 구속받은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는 교회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잘못 분리하는 이원론적 오류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받는다. 츠빙글리는 말씀을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례를 강조하고 제 세례파는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강조하지만 칼뱅주의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cum verbo*) 강조한다. 장 칼뱅의 신학은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계승하고 말씀의 철저한 신학으로 발전하였다. Accessed February 22, 2020. <https://ko.wikipedia.org/>

⁴⁶김성수. *개혁논총:개혁주의 기독교육의 원리와 과제* (서울:개혁신학회, 2013), 75.

⁴⁷대표적으로 칼빈주의 5대교리가 있으며 각 교리의 영문 앞 자를 따서 “TULIP교리”라고도 불리는데 (1)전적 타락(Total Depravity) (2)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3)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4)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5)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교리를 가리킨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재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때에 완전한 형태로 도래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셨으며,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편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풀타임(full-time)의 왕국 봉사를 하도록 요청하신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서 제외되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 (This is mine)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일 평방 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⁴⁸

창조-타락-구속의 우주적 이해

개혁주의 전통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포괄적이며 보편적, 우주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실제로 창조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타락의 의미 역시 단순히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 세계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타락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엘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표현대로 창조의 지평은 동시에 죄의 지평이며, 또한 구원의 지평이다.⁴⁹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혹성들을 그 궤도에 두시고 계절들이 제 시간에 오가게 하시며, 씨가 자라고 동물들이 번식하게 하신다. 그러나 도구를 만들고 정의를 실행하며 예술품을 만들고 학문을 추구하는 일은 인류에게

⁴⁸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488.

⁴⁹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86.

말기신다. 하나님의 법 지배는 비인간적인 영역에서는 직접적이고,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매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체와 동식물 영역이 자연의 법과 문화와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법 곧 규범(Norm)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이와 같은 특색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들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속된 것, 허무한 것, 육적인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란 그리스도 밖에서 죄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지 예술, 정치, 학문, 언론, 사업, 교육 등과 같은 창조 질서의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과 성화

성화(Sanctification) 즉 ‘거룩케 함’은 “죄로부터 해방시킴, 윤리적 부패로부터 깨끗케 함, 정하게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Consecration)은 일반적으로 단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기 위해 구별함, 헌납함, 헌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은 외적인 갱신을 의미하고 성화는 내적인 갱신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내적인 의미의 재생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한다. 윌터스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승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창조를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정화시키는 행위, 거룩케 함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적으로 갱신하고 재생하는 과정이지 제도적인 교회와 교회의 예배 의식에 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의 피조물적인 삶에 침투하셔서 가정, 사업, 예술, 정부 등의 내적인 작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거룩한 생활의 의미를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아니한다. 가톨릭의 어떤 집단에서는 차나 헛간 혹은 새로운 사업까지도 교회의 대표인 사제가 성수(聖水)를 뿌림으로써 성별할 수 있다고 본다.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것이 하나의 성례라고 선포함으로써, 혹은 교회 안에서 예식을 올림으로써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업과 결혼의 내적 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야의 왜곡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그것들의 독특한 본성을 따라 내부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사업에서는 경제적인 거룩이, 결혼에서는 결혼의 거룩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갱신시키는 힘은 ‘자연 세계’의 구조에 침투하여 그것을 내부로부터 성화시킨다.

신약의 거룩은 예배 의식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전 영역의 특징을 이룬다.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문화적인 삶이든, 모든 삶이 원칙적으로 성화될 수 있으며 내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shalom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은 정작 하나님의 관심인 샬롬(Shalom)의 문제에는 소홀하였다. 문화 변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인간이 겪고 있는 억압(Oppression)과 박탈(Deprivation)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월터스토포의 지적과 같이 개혁주의 전통은 인간 존재의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애통(lament)의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⁵⁰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성경 이야기와 선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번성에 대한 비전은 성경 저자들이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문화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기쁨이다. 샬롬은 본질상 관계적이며, 또한 다차원적 관계이다.

월터스토포(Nicholas P. Wolterstorff)는 샬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샬롬에 있어서 정의(Justice)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동체에 부정의(Injustice)가 있는 한 그 공동체에는 샬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보여주는 샬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선교활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⁵⁰ Nicholas P.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1983), 73-98.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제자 삼는 사역을 지향한다면 선교 사역은 결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살롬(평화)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감정적 차원의 느낌 정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만족스런 느낌 또는 행복하고 안락한 감정 등을 평화의 상태로 생각한다. 이러한 평화는 갈등과 투쟁이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감정 상태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평화 개념은 주로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규정되어 왔다.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전쟁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일관되어 있고,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주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측면으로 한정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일차원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에 의하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보전 상태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비판적 평화 연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따르면, 평화란 ‘인간에 의한’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적인’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폭력’이란 직접적이고 명백한, 타자에 의한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으로부터 살해에 이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전쟁은 이 ‘인간에 의한 폭력’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이다. ‘구조적인 폭력’이란 지배, 예속, 착취의 여러 형태들에 의하여 인간의 생의 보전과 그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보류하는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⁵¹

그러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문화적 측면과 사회정치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를 심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 개념’과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평화 개념’이란 “조직화된 집단적 폭력형태의 부재” 혹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평화 개념은 권력의 안정화와 현 상태의 견고화를 위한 평화가 될 위험이 있으며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지배자를 조작하기 위한

⁵¹윤웅진,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209.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갈통은 보았다. 그러나 갈통은 이와 같은 소극적 평화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개념의 불충분성을 비판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 정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창하려고 하였다.

갈통은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적극적이며 조화를 이룬 협동적 관계들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종전의 견해를 수정하고 적극적 평화 개념을 사회정의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다른 개념 규정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러한 개념의 수정은 쉬미드(Herman Schmid)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갈통은 ‘통합과 협동’으로 이해된 적극적 평화 개념은 갈등 집단을 지나치게 통합적이고 좌우 대칭적으로 이해한 것으로서 동-서 갈등 혹은 그것과 결합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쉬미드의 비판에 동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²

1955년 반등에서 채택한 “세계평화와 협력의 추진에 관한 선언”의 10가지 원칙 역시 평화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 a) 기본적 이권 및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 b)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보존의 존중
- c) 모든 인종의 평등 및 대소 모든 국민의 평등 승인
- d)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 중지
- e)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국을 방위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 존중
- f) 첫째 어떠한 대국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 방위기구를 이용하지 말 것, 둘째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압력을 가하지 말 것
- g) 어떠한 나라의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침략적 행위와 침략적 위협 또는 힘의 사용을 피할 것

⁵² Ibid., 92-93.

- h) 교섭,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관계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
- i) 우리들의 공동이익과 협력 증진
- j) 정의와 국제적 의무 존중

지금까지 살펴 본 평화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주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평화 개념의 적극적인 의미 역시 권리 존중과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무엇이 평화의 구체적인 의미인지 명료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이나 비판적인 접근 모두 궁극적으로는 월터스토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지적과 같이 ‘지배에 의한 자유’ (Freedom by Mastery)와 ‘자기 결정의 자유’ (Freedom of Self-Determination)의 동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⁵³ 진정한 평화의 이상을 추구할 수가 없다.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의

평화의 본질적 의미는 '정의'(Justice)의 의미와 관계없이 규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 없이 참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를 주지 못하는 정의란 유사 정의나 강요된 정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⁵⁴ 평화는 ‘정의의 열매’ 이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해야만 한다 (이사야 32:17; 참고, 시편 85:10).

월터스토프 역시 평화(shalom)의 문제를 논하면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는 정의가 샬롬을 성취하는 한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표현에 의하면 “평화는 정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은 평화로운 가운데 정의를 누리며 자신의 권리를 누린다. 정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는 정의 이상의 것이다”.⁵⁵

⁵³ Nicholas P.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69.

⁵⁴ 정웅섭. “교회의 평화교육”, 김성재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154.

⁵⁵ Nicholas P. Wolterstorff, 69.

월터스토프는 부정의(Injustice)의 비극을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비극들 중 하나로 보았다.⁵⁶ 방대한 선택의 범위를 구가하면서 자국의 시민들은 거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수 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영속적인 가난의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정치테러와 고문이 그들의 항존적 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거나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부정의한 현실이 바로 현대사회의 한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이다.⁵⁷

그렇다면 월터스토프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의 개념을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냉담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비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것은 재판 과정, 법적 절차, 감옥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정의는 본질상 권리와 관계가 있다. 월터스토프에게 있어서 정의와 권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물론, 권리라는 단어 역시 정의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소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권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천부적 인권, 유엔 회원국의 권리, 권리 목록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이며 고양된 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월터스토프는 권리의 의미를 정의와 관련하여 아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권리, 그것을 실제로 향유함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누림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장받을 것에 대한 주장이다.⁵⁹

- 첫째, 권리는 다른 이에 대해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이다. 권리는 다른 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둔다. 모든 책임이 권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권리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⁵⁶ Ibid., 42.

⁵⁷ Ibid., 42.

⁵⁸ Ibid., 160.

⁵⁹ Ibid., 82-84.

- 둘째, 권리는 제기된 그것을 실제로 누림에 대한 주장이다.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제로 향유하지 못하면 그 법은 공허한 것이다.

- 셋째, 권리는 그 어떤 것을 누릴 때에 일반적이거나 심각한, 그러나 고쳐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권리를 위협에 대해서 보장하라는 주장이라고 보는 것은 권리가 사회에서 약자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권리를 월터스토프는 자기 방어권, 자유권, 발언과 참여권, 그리고 생계의 권리라는 4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월터스토프는 권리의 문제를 추상적이며 고답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인간 존재의 아주 섬세한 조직과 같이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

평화(shalom)의 성경적 의미

정의의 개념이 평화라는 개념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개념인가? 신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화 (Eirene) 개념은 평화의 일반적인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는 또한 심리적으로 안락한 느낌, 즉 마음의 평안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⁶⁰ 여기서 마음의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정도의 감정적 문제가 아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창조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적대감이 없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이다.

인간의 제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나라에서 비민주적 생산으로 인해서 수탈적 지배계급과 피수탈적 피지배계급이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 경우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전자는 후자를 폭력장치 또는 교육제도와 매스미디어 같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⁶⁰롬 15:13

통해서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사회질서는 거의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설령 일시적인 평화적 질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비교적 영속적인 평화가 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한 일시적이며 표피적인 평화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긴장과 갈등은 한 나라의 계급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를 출현케 하였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소민족의 영토를 침탈하여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의 강대국의 식민주의는 피지배 민족의 해방적 투쟁을 자극하게 되고, 지배국은 무력으로 애국적 봉기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억압된 민족의 문화를 불구화 또는 말살하는 교육문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양자간에 갈등은 격화되었고, 결국 평화적 사회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피압박 민족은 민족적 독립의 쟁취만이 국제적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었다.⁶¹

평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갈등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이 긴장과 갈등이 단순히 개인과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깃들이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자신과의 관계와 창조세계와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관계, 막힘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평화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⁶²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개념은 단순히 적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상태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즐거움(Enjoyment)의 차원에서 보다 더 풍요하고 깊이 있게 이해된다.⁶³ 적극적인 즐거움이 없는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⁶¹이규환, “신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김 성재 편.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50.

⁶²이사야 11:6-8.

⁶³Wolterstorff, 79.

“한 국가는 주변 다른 국가와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가난으로 비참할 수 있다. 평화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기며 물리적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그 동료와
함께 거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자신과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⁶⁴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개념은 이와 같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인
비판적 평화 개념을 훨씬 능가하며 훨씬 더 심오하다. 윌터스토프는 평화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창조세계(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관계에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즐기는
삶을 의미평화의 진정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 평화의 개념은 책임적인 세계이다. 평화가 있는 곳에 우리는
서로 서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연에 대해 책임을 규정한다.
한편 평화는 그것 이상을 의미한다. 관계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만 평화는 완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물론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기쁨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남을 수 있다.”⁶⁵

성경적 평화 개념의 기본적 의미는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함, 곧 모든 관계
차원에서의 안녕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평화 개념은 결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던 것이 아니었고 철저히 정상적인 일상적 삶을 표현하였다.

- 첫째,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또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 분을 기쁨으로서 기쁨을 얻을 때 구체화된다. 평화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성취된다.⁶⁶

⁶⁴ Ibid., 69-70.

⁶⁵ Ibid., 176.

⁶⁶ G.I. Williamson, *The Shorter Catechism*, “Question 39 and Answer”, (Vol. II: Questions 39-107,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1.

- 둘째, 평화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구체화된다. 평화는 사회가 온통 자기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때” 바로 그 때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이 진실이 된다.⁶⁷
- 셋째, 평화는 창조세계와 더불어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성취와 기쁨을 얻을 때에 구체화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그 날에 대해서 말했다.⁶⁸
- 넷째, 평화는 또한 자신과 더불어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이와 같은 성경적 평화 개념을 한 준상은 ‘에이레네’ (Eirene)의 개념과 ‘샬롬’ (Shalom)의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고 변형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 말하자면 자유와 해방에 기초한 사회구원 정신으로 표현한다.

“평화 속에 내재된 해방은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과 활동이며, 더 나아가서 ‘--을 위한 벗어남’의 과정이나 활동을 일컫는, 그래서 온전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이나 벗어나는 활동으로서의 해방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내적 차원이 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외, 억압, 지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을 위해’ 전개되는 해방의 과정이나 활동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외적 차원으로서 그것의 핵심은 평화추구에 있게 된다.”⁶⁹

그러나 성경적인 평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샬롬'의 개념은 그 속에 이미 ‘에이레네’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정의라는 조건을 샬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는 윌터스토프의 관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만약 자신에게 정당한 일이 당연히 허가되지

⁶⁷이사야 32:16-17.

⁶⁸이사야 32:18.

⁶⁹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김 성재 편, 113.

않는다면, 만약 상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 살롬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과 상대 사이에 적대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살롬은 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운명에 만족하도록 느끼게 한다고 해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들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남아공화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들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느낀다 해도 거기에 평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는 정의가 없을 때 상처를 입는 윤리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⁷⁰

그러나 살롬은 또한 윤리적 공동체를 넘어서 책임의 세계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살롬은 단순히 동료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즐기는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연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살롬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살롬은 윤리적 관계를 넘어서 책임의 세계로 나아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살롬은 또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무리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을 때 살롬은 여전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질병을 치유할 방도가 없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살롬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과도 관계가 있다. 요컨대 살롬은 동료 인간과의 윤리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창조세계를 향한 책임의 세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쁨을 향유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도식을 갖고 있다.⁷¹

이와 같은 평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누리게 될 살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⁷⁰ Wolterstorff, 71.

⁷¹ 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톨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2004), 61-65.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⁷²

이새의 줄기란 천사가 그의 탄생을 축하하여 노래한 바로 그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으며, 신약의 저자들은 그를 평화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⁷³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평화를 실현시킬 메시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망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⁷⁴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1-2을 인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명을 유대인들의 메시야 대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스스로를 평화의 메시야로서 드러내었다.

예수는 치유한 환자를 떠나보내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한다.⁷⁵ 그의 치유행위는 ‘평화’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새의 줄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평화의 나라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그 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⁷⁶

이 평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평화의 메시지는 기존의

⁷²이사야 11:1-2.

⁷³눅 1:79, 2:29; 행 10:36; 엡 2:17.

⁷⁴눅 2:14.

⁷⁵막 5:34.

⁷⁶사 11:6-8.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고 하였다.⁷⁷ 폭력에 토대를 둔 부정의한 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정의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터스토포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평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선물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따금씩 찾아드는 평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의 차원이 라고 해도 우리가 사역하고,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이 평화이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주위에 둘러서서 살롬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일하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⁷⁸

살롬(평화)과 선교

비록 진정한 살롬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살롬의 도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살롬의 구현을 위한 교육이나 전략을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15세기 코메니우스의 저작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로티우스(Grotius), 홉스(Hobbes), 설리(Sully), 그리고 칸트(Kant) 역시 국가의 본질 및 상호관계에 관한 평화교육적 관심을 보였다. 루소(Rousseau)의 저작은 평화교육의 발달사에서 시금석이 되었다.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그의 이상이 ‘사회계약론’, ‘에밀’ 등의 저작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루소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찌(Pestalozzi)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인간 도덕성의 회복과 그것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프뢰벨(Froebel)은 루소와 페스탈로찌의 사상을 아동교육에 적용시켜 평화교육의 가능성과 역량을 강화시켰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현대식의 평화교육 관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영향 즉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고전적 교육자의 영향과 둘째, 19세기

⁷⁷ Wolterstorff, 72.

⁷⁸ Ibid., 72.

중엽에 대두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평화교육 사상에 영향을 준 사회주의의 조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카렌코(Makarenko)에 의해 주도된 고전적 맑스주의 계통, 둘째, 민주적 사회주의 계통, 셋째, 반군국주의 운동으로 나타난 톨스토이(Tolstoy)류의 무정부주의 계통이 그것이다.⁷⁹

유네스코(UNESCO)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⁸⁰

- a) 인류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UN 헌장의 정신구현의 교육
- b) 모든 국가와 국제적 조직 안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정신 육성의 교육
- c) 모든 국가가 세계의 문화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개성적 문화의 교육
- d) 각 민족의 삶의 방식과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교육
- e) 인류의 공동적인 유산 존중의 교육
- f) 국제적 분쟁의 국제적 해결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국제적 문제해결방식 원리와 교육
- g) 세계정부와 세계평화를 기하는 책임감 육성의 교육
- h)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국제이해의 교육

서독에서의 평화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의식적 차원보다 사회체제의 문제, 국내-국제간의 전쟁, 갈등, 폭력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서독에서의 평화교육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a) 실천적 과제: 평화, 폭력, 갈등 등의 문제가 특히 이 원자시대의 중요문제로 대두되었기에 모든 나라가 교육을 통하여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 b) 실천적 기초: 인류와 자원이 역사상 최초로 멸절의 위기에 있음을 인식시킨다.
- c) 주제의 4차원적 편성: 개인-사회-자연-우주의 4차원으로 주제를 편성한다.
- d) 기초주제의 부각: 평화개념을 구성하는 기본요인을 공격성, 폭력, 비폭력, 갈등, 갈등해소, 편견, 협조 등으로 부각시킨다.

⁷⁹한준상, 115-116.

⁸⁰김성재, “한국 평화교육의 이념과 원칙”, 김성재 편, 15-16.

- e) 규범적 기초: 평화라는 덕목은 개인도덕, 사회도덕, 종교도덕 등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다.
- f) 방법적 기초: 평화교육은 그 논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따라서 인문, 사회, 자연 등 모든 과학의 방법을 원용해야 한다.
- g) 연구분야; 연구주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단체와 학교, 청소년의 근로현장, 해외계약 노동자의 작업현장,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 모든 국면에서 찾아야 한다.
- h) 귀속성: 평화교육은 특정단원, 특정교과로 구성함은 물론이요, 모든 교과에서 다루며, 모든 교육이론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 i) 종합과학성: 평화교육학은 그 주제의 성격상 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조직적 연계에서만 가능하다.
- j) 시각의 축소지양: 평화교육은 한 차원 혹은 한 주제로 축소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⁸¹

서독의 평화교육은 개인, 사회, 자연, 우주의 4차원에서 인간성의 문제와 함께 폭력, 갈등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네스코의 평화교육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상적이며 제1세계의 관점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월터스토프는 정의와 살롬의 목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 차원에서 추상적인 방식으로 논의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논의하고 있다.⁸²

- 첫째, 우리는 정의와 살롬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둘째, 우리는 살롬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정의와 살롬의 구현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정의와 살롬을 완전히

⁸¹ Ibid., 16-17.

⁸² Nicholas, P. Wolterstorff,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2), 278-279.

실현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차원을 요구한다.

- 셋째, 우리는 정의와 살롬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를 축하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우리는 살롬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살롬의 없음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월터스토프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는) 애통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고 애통을 위해 가르쳐야 한다. 울부짖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울부짖음을 억누르지 말고 허용해 주어야 하며 심지어는 격려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서지고 왜곡된 관계의 치유를 위한 투쟁은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애통이 나타날 때만 진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지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문화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랑해 본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상 고통과 슬픔의 가능성과 확실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개는 죽고, 사랑하는 친구는 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의해 감추어지고, 사랑하는 그림은 찢어질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진다.”⁸³

월터스토프가 정의와 살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그가 정의와 살롬의 의미를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 실존의 섬세한 조직에 스며들어 있는 정의와 부정의의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터스토프는 만약 우리가 단지 고상한 천부적 인권과 그 침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이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부정의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살롬은 인류 모두가 회구하고 추구하는 목표며 이상이다. 성경은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려는 여호와 하나님과 부정의와 평화 파괴를 초래하는 인간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으며, 결국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⁸³ Ibid., 263.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며 평화의 실현은 곧 구원의 완성이다.

성경은 평화의 의미를 단순히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의미하는 정도의 심리적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평화 개념의 성경적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종교적 수준에서의 위안과 평안, 그리고 단순한 민족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성경적 관점의 평화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총체적 전망이다. 평화는 본질상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창조세계(자연)의 조화와 즐거움을 의미한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창조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적대감이 없는 상태가 평화(shalom)의 상태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의 평화는 단순히 적의가 없는 상태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Enjoyment)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화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세의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가꾸고 다스리는 문화적 명령과 함께 해방의 명령, 즉
‘풀어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의 줄을 꺾는 것...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사야 58:6-7)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샬롬은 선교사역의 구체적 과정이며 열매와도 같다. 선교지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을 샬롬이 도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샬롬은 선교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제 4 장

건축선교의 외연(EXTENSION)으로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

지금까지 살롬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살롬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제 살롬의 관점에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

전문인 선교(Tentmaker Mission)는 현대선교에 있어서 대부분 미전도종족으로 남아있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등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복음의 돌파(Breakthrough)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전략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의 선교전략이다.

전문인 선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현대의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⁸⁴

- 첫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선교사의 파송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전문적 직업을 지닌 자들을 선교사로 동원하지 않고는 남은 과업(TTR & FTT)을⁸⁵ 완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 둘째,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하는 폐쇄지역(접근제한지역: RAN)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창의적 접근지역: CAN)할 수밖에 없다.⁸⁶ 근래에 들어 미전도종족

⁸⁴이현정, *평신도 전문인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2010), 58.

⁸⁵ TTR: The Task Remained. FTT: Finishing The Task.

⁸⁶선교접근 제한지역(RAN: Restricted Access Nations)의 95%이상은 창의적

입양, 전방개척선교 등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과 활동이 더욱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선교제한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전문인 사역자의 대량 동원”이 전략적인 과제가 되었고 잘 알려진 세계 모든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은 이미 전문인 선교사의 동원과 훈련, 배치를 통하여 복음에 적대적인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많은 활동과 결실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배치 면에서는 현재 선교사의 분포는 전체 선교사의 90%가 이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10% 정도가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편이다.⁸⁷

- 셋째, 종족과 문화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인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자기 직업의 경력위에 선교훈련과 사역경험으로 매우 용의주도하게 선교제한 지역에서 전문직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복음사역을 개척한다. 선교제한 지역에서는 목사 자신도 유학생, 회사주재원, 교수, 사업가, 사회복지사 등 또 다른 직업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마을이나 국가단위 혹은 부족단위의 집단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서구 기독교의 개인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사망선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⁸

- 넷째, 국내의 경제적 문제도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많은 교단선교부·독립선교회·지역교회의 선교책임자 및 목회자들과 선교학자들은 국내 환율상승으로 인한 선교후원금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가 어느 정도 현지에서 자비량 할 수 있으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접근지역(CAN: Creative Access Nations)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선교접근 제한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문인 선교다.

⁸⁷ 정확하게는 각각 90.4%와 9.6%이다. 랄프 윈터와 브루스 코흐는 더 적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각각을 97.6%와 2.4%로 보고 있다.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19.

⁸⁸ 100만원을 US\$로 바꿀 경우 환율이 1,000일 때 \$1,000을 바꿀 수 있으나 환율이 1,500이면 \$667밖에 바꿀 수 없다. 그만큼 한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선교비용이 증가한다.

- 다섯째,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세계의 주요 타종교, 공산주의의 도전과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해 목회자가 진입할 수도 없고,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도 없다. 폴뿌리 현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직업적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 선교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직업이나 기술, 비즈니스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보다 쉽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사귀고 친구가 되어복음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 여섯째, 기독교에 배타적인 타종교와 신민족주의 강화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교인력의 파송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경우 서구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와 기독교사역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며 적대적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산고 있으므로 자국에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러한 국가에 목회자 선교사의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목회자 선교사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 일곱째, 공산권 몰락, 개방정책과 민족주체성 확립추구 등 국제정치의 변동으로 신민족주의적 상황에서 선교사의 신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접근제한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장기비자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데 직업적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의 경우 비자의 획득이 보다 용이하다(Passport Skill). 사도 바울도 비록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의 로마 시민권을 선교에 십분 활용하였다. 선교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적 전문성을 자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 여덟째,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 가능성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빈민, 지역사회개발, 장애인사역, 아동사역, 노인사역, 도시 내 종족사역, 지역의료교육(CHE)등⁸⁹도시 내에서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전문인 사역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인을 요청하고 있다. 목회자 선교사 보다 전문인 선교사가 해야할 일이 훨씬 많고 현지인들도 더 환영한다.

⁸⁹ 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약자. Community Health Education을 말하기도 한다.

- 아홉째, 기아, 빈곤과 질병으로 사망인구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사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이 목회자보다 더욱 필요하고, 현지인들과 접촉이 용이하다. 이런 곳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교사, 농업기술자, 건축기술자 등 그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이 동시에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면 보다 그들에게 용이하게 복음을 제시 할 수 있다.

한국전문인 선교협의회(KAT)에서는 ‘전문인 선교’를 “전도종족을 포함한 창의적 접근지역(CAN)이나 여타 선교지역에 개인 신분 고유의 기능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업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의 직업이나 기능에 속한 문화 분야를 기독교적으로 혁신시키는 일련의 사역행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특정 선교지에 대한 비거주 혹은 중장기 거주형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원칙적으로 본국에서의 파송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신도뿐만 아니라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전문인 사역 형태를 띠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⁹⁰

KAT의 정의는 전문인 선교사를 반드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미 선교사 허입이 허용되거나 현지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의 개념

전문인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소유하고 타문화권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전문직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일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바울은 전문인 선교사의 개념이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그 개념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문인 선교’의

⁹⁰ 신경규. *현대전문인 선교*(부산: 현대출판사, 2015), 75.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근거로 전문인 선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⁹¹

- 1) 전문인 선교사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목회자선교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평신도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세속적인 직업 혹은 신분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이다.⁹²
- 2)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선교제한지역 혹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선교제한지역에서만 전문인 선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3)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때 반드시 특수 전문인에 국한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문인 선교에서 “전문인”이란 세속 직업 혹은 신분을 지닌 선교사라는 뜻이지, 특수직업종사자(의사, 치과 의사, 기술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4)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고도의 전문성 혹은 기술을 소유한 것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전문성”이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사는 양자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⁹³
- 5) 전문인 선교사는 전임(Full-Time) 사역자이지 파트타임 (Part Time)사역자가 아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현장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선교 전략적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직업은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을 본업으로, 선교는 Part Time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인 선교에 관한 이러한 진술은 그 개념에 대한 매우 진척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에 대한 최바울의 이러한 진술 역시 전문인의 직업적 전문성을 단지

⁹¹최바울, “텐트메이커선교사의 선교사역적 의미.” *텐트메이커 선교* (서울: 도서출판 펴내기, 1994), 15-16.

⁹²물론 여기서 전문인이란 특수직업종사자(의사, 치과 의사, 기술자)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⁹³최바울, 15-16.

‘비자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Passport Skill)으로만 제한하여⁹⁴ 보다 포괄적인 전문인 선교를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정의 역시 여전히 전문인 선교에 있어서 ‘직업적 전문성’의 성격을 제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제한적인 선교지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문 직종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성경에 나오는 전문인 선교 사례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사례는 신구약 성경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한 사역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크리스티 윌슨(Christy Wilson)은 성경의 모든 인물이 자비량 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주변 인물들이 아니요, 중심 줄기(Main Stream)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이다. 전문인 사역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로서는 아브라함, 요셉, 요나, 다니엘, 바울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명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⁹⁵

아브라함

땅의 모든 종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창 12:1~3)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삶의 거처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이 본문이 “평신도 타문화권 선교에 부른다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⁹⁶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는데 가나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파송)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서

⁹⁴이현모, “만인선교사직론과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신학적 조명.” *복음과 실천* 18 (1995). Accessed June 09, 2020. <https://www.kbtus.ac.kr/profile/prof18.html>

⁹⁵Ibid., 106-116.

⁹⁶Johannes Blauw. “Roots For Cross-Cultural Calling of the laity.”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다니엘

하나님께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 유대인들이 흠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이 성전 중심인 구약적 의식을 탈피하여,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충성심을 잃지 않고 삶(현존: Presence)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은 최고공직자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어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타문화권 전문인 선교사였다.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사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초대교회 전문인 선교(Tentmaking)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텐트메이커의 성경적 기초는 사도행전 18:1-5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 선교 사역에 협력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⁷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⁹⁸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장막 만드는 기술자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했다.⁹⁹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¹⁰⁰ 그렇게 한 데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신자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몇몇 교회에서 재정적이 후원을 받기도 했다. 바울이 받은 후원금 중에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식으로 명목이

church (NY: McGraw-Hill, 1963), 34.

⁹⁷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56.

⁹⁸행 18:1-3.

⁹⁹행 20:33-35.

지정된 후원금도 있었다.¹⁰¹ 바울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는 체류비를 충당해 주는 후원금도 있었다.¹⁰²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상황과 형편에 적절하게 적응했던 것 같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이 되고 로마인을 위해서는 로마인이 되었다. 또한 비즈니스맨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맨이 되었다.¹⁰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사업 장소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과감히 옮겼다.¹⁰⁴ 또한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¹⁰⁵

하인즈 슈터(Heinz Surer)와 마르코 구무르(Marco Gmür)는 말하기를, “아굴라는 탁월한 장인이었다. 그는 가족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 안장, 허리끈, 장막 등을 제조했고, 기마병이었던 로마 군인들 덕분에 일거리가 부족할 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착지는 로마와 연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인과 기사들이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¹⁰⁶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의 특성상 로마로부터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옮겨 다닐 수 있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진리를 가르쳐 아볼로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¹⁰⁷ 그리고 성실한 직업인이었던 그들 집에 가정 교회가 세워졌다.¹⁰⁸

¹⁰⁰살전 2:9, 3:8.

¹⁰¹롬 15:26.

¹⁰²고후 11:8, 빌 4:14-19.

¹⁰³ Ken Eldred, 135.

¹⁰⁴행 18:18-19.

¹⁰⁵ Tetsunao Yamamori, *킹덤 비즈니스*(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182.

¹⁰⁶ Heinz Surer and Marco Gmür, *Business Power for God's Purpose* (Grenz, Switzerland: Verlag für kulturbezogenen Gemeindebau, 1997), 12.

¹⁰⁷행 18:24-28.

¹⁰⁸고전 16:19.

루디아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온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¹⁰⁹라는 말씀에서 루디아의 직업이 옷감과 관련된 비즈니스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루디아의 집에서 다른 신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러 마케도니아로 옮겨 간 듯하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곱 교회 중 하나가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있었다. 아마도 루디아가 원료를 사러 여행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지도 모른다.¹¹⁰

전문인 선교의 역사적 기초

초기 기독교의 전문인 선교

상인들의 선교(Merchant Missions)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들은 기독교 상인들이었다. 소아시아 출신의 상인들은 옷감이나 향료를 마르세유, 리용,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등에 가져가 팔았다. 특히 남프랑스의 상업 도시들은 광산, 유리, 도기류,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날렸다. 무역상과 이주민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다.¹¹¹ 노버트 브록스 (Norbert Brox)는 소아시아 출신의 기독교인 이주 상인들이 그 지역의 가정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었다고 했다.¹¹²

기독교는 상인들을 통해 세계의 다른 지역들까지 뻗어나갔다. 유럽의 상인들은 최초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두 세기 만에 아라비아 지역에 기독교 신자들이 생겼다. 로마 제국 변경에서 살았던 아라비아인 신자들은 무역상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¹⁰⁹행 16:14.

¹¹⁰ Ken Eldred, 136.

¹¹¹ Heinz Surer and Marco Gmür, 12.

¹¹² Norbert Brox, *Zur christlichen Mission in der Spätantike* (Basel, Switzerland: Editiones Herder, 1982), 224-225.

무역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던 통로였는데 이후에 복음이 인도에 전파되는 무역상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¹¹³

네스토리우스 교도들(Nestorians)

6세기와 7세기경에 기독교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상인 선교사들은 비단 무역을 유럽에 소개하기도 했다. 슈터(Heinz Surer)와 구무르(Marco Gmür)는 “중국에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이 페르시아 기독교와 연관 있는 기독교 상인들임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 고 말했다.¹¹⁴

리차드 폴츠(Richard C. Foltz)는 그의 책 *Religions of the Silk Roads*에서 전 근대 시기(pre-modern times)에 종교가 어떻게 아시아 무역로를 따라 상인들과 그들의 상품들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¹¹⁵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 데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밑에서 수학했고, 428년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양성론 주장하였는데, 431년 제3차 전 교회회의 때에 이단으로 정죄 받고, 안디옥 근처의 한 수도원에서 살다가 451년경에 사망했다.¹¹⁶ 그 후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페르시아 에데샤(Edessa)에 피난처를 찾아 수도원을 세우고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회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이다.¹¹⁷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네스토리우스의 교도들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무역을 벌였다. 메르브, 헤라트, 사마르칸트,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역로 주변에는 교회와 주교들이 탄생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다.

네스토리우스 전도자들 모두가 무역 상인은 아니었다. 목수, 대장장이, 직조공, 회계원들도 있었다. 아랍과 몽골의 통치자들은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을 내관이나 의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¹¹³ Ibid., 14.

¹¹⁴ Ibid., 19.

¹¹⁵ Richard C. Foltz, *Religions of the Silk Road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7.

¹¹⁶ 안승오, *세계선교 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 2010), 50-51.

¹¹⁷ Ibid., 51.

역사상 선교 사명이 가장 투철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었다.¹¹⁸ 안디옥교회와 함께 이들은 아시아에 사는 옹구트 족, 위그르 족을 비롯한 다섯 개의 종족을 복음화했다. 11세기 초에 약 20만 명의 크라이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투르키스탄 동부에 살던 위그르 사람들 사이에도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다. 네스토리안 상인 선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전통적 선교사들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 스스로 자급하며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데 열정을 가졌었다.¹¹⁹ 수세기 동안 네스토리우스 상인들은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드물 정도로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그 모두가 상업 활동을 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했던 전문인 선교였다.

종교 개혁 이후의 전문인 선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595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최초의 무역 상선을 아시아로 보냈다. 이전의 이름은 향료 군도(Spice Islands)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동부가 된 말루쿠에 동인도회사의 주요 본사가 있었다. 그곳에서 동인도 회사는 향료 무역을 시작하여 정향, 육두구 등의 향료를 유럽에 수출했다.¹²⁰

얼마 안 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무역로를 따라 동인도 회사가 세운 정착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인도회사와 선교사들 사이에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회사 경영자들은 순전히 사업의 이득을 위해 현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개중에는 현지에 교회를 세우려는 보다 경건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동인도회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 최초로 성경의 일부를 말레이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가 번역한 마태복음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었다.¹²¹

선교 역사상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남긴 기록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상업 활동을 확장하여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역주)시를 세웠고 1621년에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 동인도회사는 앰보이나에 더

¹¹⁸ J. Christy Wilson, *Today's Tentmakers* (Wheaton, IL: Tyndale, 1985), 26-27.

¹¹⁹ Howard Owens, "Nestorian Merchant Missionaries and Today's Unreached People Groups," eds., by Tom Steffen & Mike Barnett, *Business as Mission: From Impoverished to Empowered*, 135.

¹²⁰ Ken Eldred, 138.

많은 사역자들을 추가로 보냈고 그들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네덜란드의 도시 라이덴에는 목사와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동인도회사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거 채용했다. 윌리엄 캐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복음 전파의 유력한동역자로 여겼다. 영국이 향료 군도를 점령했던 19세기 초반에는 그 지역에서 총 230명의 네덜란드 개신교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¹²²

모라비안의 전문인 선교

교회 선교역사 속에 나타난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바로 비즈니스 선교(BAM)¹²³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다.¹²⁴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 3차 로잔선교대회에서국제로잔위원회 총재 더글라스 버살(Douglas Birdsall)은 17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난 300년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18세기 독일의 선교지도자 진젠돌프(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가 이끌었던 모라비안 교회와 한국교회라고 지칭하였다. 두 교회의 특징은 교회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선교중심적인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¹²⁵

모라비안 교도들이 18세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¹²⁶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였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그들의 주요 선교 전략으로 삼았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 임무의 크기에 비해 지원되는 현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직업선교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²⁷

모라비안의 뿌리는 보헤미안 주교 얀 후스(Jan Hus)가 시작한 보헤미안 동포단과 전통 교회의 부와 권력에 강력하게 맞서 개혁을 주장했던 기독교의 왈도파 사람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제단은 보헤미아에서 시작하여 그곳과 이웃한

¹²¹ Ibid.,

¹²² Ibid., 139.

¹²³ BAM은 Business As Mission의 약자로 사업이 곧 선교, 선교로서의 사업을 통한 총체적 선교의 한 부분을 뜻한다

¹²⁴ 김성욱, *BAM 선교의 이론과 실제*. Accessed Jun 01, 2020. <https://vmba.tistory.com/50>

¹²⁵ Ibid.,

¹²⁶ Ken Eldred, 139.

¹²⁷ 홍철희, “로잔 언약에 기초한 21세기 직장 선교의 방향.” (서울: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2.

모라비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종교 개혁과 반종교개혁 세력은 연합형제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남아있는 형제단 사람들은 색소니 지방으로 피신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사유지였던 헤른후트를 피난민들에게 내주어 1722년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경건한 신도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는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연속 기도를 100년 이상 실행했고 헤른후트는 당시 최대 규모의 선교 운동이 태동하는 발상지가 되었다.¹²⁸

진젠도르프 백작은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중에 서인도의 노예였던 안소니와 그린 랜드에서 온 두 명의 에스키모인을 만났다. 그들은 백작에게 자신들의 조국에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헤른후트를 방문한 안소니는 서인도에 사는 노예들의 참혹한 실상과 영적 상태에 이야기했다. 헤른후트 공동체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1732년에 레오나르트 도와 데이비드 니치만 선교사가 서인도 제도로 파송되어 무역을 통해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직공의 도구를 어깨에 메고 세계의 선교지로 어린 양을 따라가자” 라는 표어 아래 영적 운동을 일으켰다.¹²⁹ 그 외에도 다른 선교사들이 세인트 크로이 섬, 수리남, 남아프리카, 북미, 자마이카, 앤티카 섬으로 파송되었다. 1732년에서 1760년 사이에 무려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10여 개의 타국으로 파송되었다. 단 20년 만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개신교와 영국국교에서 200년간 해온 선교 운동을 앞질렀다.

모라비안 선교는 순전히 전문인 선교 방식을 따랐다. 각자 직업에 종사하면서 타국에 들어가서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직업윤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¹³⁰ 윌리엄 댕커(William J. Danker)에 따르면 “1759년, 베들레헬과 펜실바니아에 있던 모라비안 마을에서 남자 노동자의 36퍼센트는 모두 선교사들이었다.”¹³¹ 유럽을 다니며 전도하던 순회전도자들도 사도 바울의 본을 따랐다. 그들은 장인, 교사 등의 직업을 갖고 가는 곳마다 스스로 재정을 해결했다. 모라비안들이 했던 정직한 상업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모범이 되었다.¹³²

¹²⁸ Ken Eldred, 140.

¹²⁹ Tetsunao Yamamori, *직업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60.

¹³⁰ Ken Eldred, 140.

¹³¹ William J. Danker, *Profit for the Lord: Economic Activities in Moravian Missions and the Basel Mission Trading Company* (Grand Rapids, MI: Eerdmans, 1971), 23, 27-29.

¹³² Heinz Surer and Marco Gmür, 24.

1740년에 세 번째로 파송된 모라비안 선교사 일행이 수리남의 파라마리보에 도착했다. 그 중에는 목수와 제화공도 있었다. 다른 선교사들도 그들의 뒤를 이어 파라마리보에 들어왔다. 1768년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케어스텐 회사를 설립하여 재단(Kersten)¹³³과 직물사업을 했다. 1777년에는 유럽 방식대로 제조한 제과산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무역을 전문으로 했던 케어스텐 회사는 비즈니스와 선교를 병행하며 비즈니스 전문인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¹³⁴ 수리남의 노예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었고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며 복음을 전파했다. 1926년에 파라마리보에 세계 최대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겨나 일곱 개의 교회에 신도들이 1만 3천명이나 되었다.¹³⁵ 오늘날 수리남 사람들의 45퍼센트가 기독교인이며 그 중의 4분의 3은 모라비안 교도다.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은 현재까지도 경제가 잘 발전된 국가 중 하나다. 케어스텐(Kersten) 회사는 설립된 지 약 250년 후 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무역과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수리남의 현지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회사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재단에 속해 있으며 계속해서 전문인 선교의 꿈을 가꾸어 가고 있다. 이 회사가 지향하는 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¹³⁶

- 회사의 기본 운영과 활동을 유지하고 확장한다.
- 품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정책을 세운다.
- 투자가들에게 적절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한다.
-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준다.
- 수리남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 모라비안 교회의 세계선교를 지원한다.

¹³³ 그리스토프 케어스텐 (Kersten)은 재단사로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그 재단과 직물 사업을 통해 4년 만에 (1768년) 24만 2천 탈러(독일의 옛 화폐)를 벌어들였다. 회사는 선교와 사업을 병행했는데 수리남의 노예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직업 훈련을 실시, 복음을 전파했다.

¹³⁴ Ken Eldred, 140.

¹³⁵ Heinz Surer and Marco Gmür, 25-27.

¹³⁶ “Mission Statement of C. Kersten and Co., N.V.” Accessed June, 2020. <http://www.kersten.sr>.

모라비안 선교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¹³⁷

- 첫째, 선교와 경제 활동 사이의 연결을 통한 비전이 있었다.
- 둘째, 이들은 공동체를 통한 선교를 한다.
- 셋째, 현지화 직업 훈련을 실시했다.
- 넷째, 국제적인 선교 조직을 시도하였다.
- 다섯째, 그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였고, 재투자하여 선교에 사용하였다.
- 여섯째, 모라비안의 법인 구조는 지속적인 변화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의 전문인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배를 타고 인도에 들어간 제화공이었다. 그는 “내 직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¹³⁸ 영국을 떠나기 전에 “이교도를 개심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책임에 대한 일 연구”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라는 책을 썼다.¹³⁹

이 책을 쓴 이유는 머나먼 나라에 가서 미개하고 위험한 종족들에게까지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당시의 편견을 바로잡자는 의도였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는 교통수단이었다. 윌리엄 캐리는 무역회사들에게 선교 활동을 위해 길을 터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지중해나 작은 해협을 건너듯 태평양도 거뜬히 항해하고 있다. 야만인들이 거주하는 수많은 지역에 무역회사들이 들어가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했다.¹⁴⁰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2-3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Expect great things from God ;

¹³⁷ 노태식, “효율적 선교를 위한 선교기업의 정체성 및 비즈니스 선교 적용 전략” (서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6-17.

¹³⁸ Ibid., 20.

¹³⁹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공역,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9), 324.

¹⁴⁰ William Carey,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Leicester, England: Ann Ireland, 1792), 67.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라고 하였는데, 이에 감동받은 목사들이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였다.¹⁴¹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상업과 무역이 머나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비즈니스가 복음 전파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¹⁴²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사60:9).

윌리엄 캐리는 인디고(마디풀과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배웠다. 그는 연봉 250파운드를 받으며 공장의 감독 등으로 직업을 영위하면서 개척 선교를 감당하였다.¹⁴³ 그는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을 위해 돈을 저축할 수도 있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상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상업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직접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에 재정적 도움을 주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었다.¹⁴⁴

개척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리빙스턴은 스코트랜드의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빈곤과 경건 속에서 성장하였다. 1824년에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10년 동안은 평범한 선교사의 생활을 보냈다. 그는 한 사람의 여행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교사였다.¹⁴⁵ 리빙스턴의 여행 소문과 그의 호소로 인해 그를 통해 유럽 세계에 알려진 여러 지역에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¹⁴¹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A Biographical of Christian Mission),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143-144.

¹⁴² Ken Eldred, 141.

¹⁴³ Kellsye Finnie, *William Carey*, 김명희 역. *윌리엄 캐리*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5), 69.

¹⁴⁴ C. Neal Johnson, *Business As Mission: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31.

¹⁴⁵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390.

그는 1857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과 탐험 활동에 대해 강연할 때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시오. 당신에게 맡깁니다.” (Do you carry on the work which I have begun. I leave it with you)라는 말로 영국 국교 사업체인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대학 선교부’ (The Universities Mission to Central Africa)를 발족케 했다.¹⁴⁶ 그의 사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으며 그것 하나 위에 아프리카인들의 변화를 걸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킨 문제는 노예무역이었으며, “아프리카가 상업과 복음에 문을 열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¹⁴⁷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비즈니스를 선교에 접목하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영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켜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것이었다. 리빙스턴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강연보다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을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도 드물다.

바젤 선교회(Basel Mission)

바젤선교회는 조건 없이 베푸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졸업생의 의무였으며 바젤의 선교연구소를 이끌었던 블룸하르트(Christian Gottlieb Blumhardt)의 소명의식이었다.¹⁴⁸ 1816년 8월, 선교사 훈련학교는 일곱 명의 학생으로 문을 열었고 블룸하르트가 학교 책임자가 되었다.

초기부터 바젤선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신학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블룸하르트 교장은 다방면에서 인생의 모습을 갖춘 ‘직업인이자 신학자’ 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는 선교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야말로 주변의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말보다 더 영향력 있고 무게 있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겼다. 드와이트 P. 베이커(Dwight P. Baker)는 “바젤 선교사들은 하루하루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바로 선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직업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

¹⁴⁶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3, 윤두혁 역. *기독교사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68

¹⁴⁷ David Livingstone, lecture delivered at Cambridge University, December 1857. Ken Eldred, 142.

¹⁴⁸ William J. Danker, *Profit for the Lord*, 103.

성실, 검소, 정직, 믿음, 관용 등을 몸으로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다” 라고 말했다.¹⁴⁹

바젤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직업인들이었다. 1834년 최초의 인도 선교사들은 망갈로에 도착한 즉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1840년에는 망갈로 부근의 토지를 기부 받았지만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했던 사탕수수과 커피 농사는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 다른 농사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였다. 농사짓기를 단념하고 나서 바젤선교회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¹⁵⁰

망갈로를 방문한 바젤선교회의 조셉 요센한스는 인도인 개종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려면 경제가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센한스와 바젤에 사는 두 명의 유력한 사업가는 1852년에 인도 개종자들을 돕고 기독교 직업관을 심어준다는 목표 아래 산업위원회를 발족했다.

1853년, 바젤선교회는 전문인 선교사 고트롭 플라이더러(Gottlob Pflaideter)를 인도에 파송했다. 망갈로에서 플라이더러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하여 그 지역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위해 상품을 수출했다. 그 다음 해에는 독일인 전문인 선교사 루트비히 로트만(Rudwig Rottmann)을 가나에 파송했다. 루트비히 로트만은 크리스티안 보르에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가나에 사는 선교사들을 위해 식품, 종이, 가구, 기계와장비 등을 수출했다. 당시 가나의 선교사들은 아크로퐁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¹⁵¹

회사의 주주들은 경제계의 매우 유력한 인사들로서 바젤 선교회의 취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다. 1862년에는 또 다른 무역회사가 가나의 아도파에 문을 열었다. 그 회사는 ‘어둠 속의 빛’ 이라고 불렸다. 가나에서 일하던 바젤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제유용 씨앗, 목화, 커피, 코코아 등의 환금 작물들을 그 지역으로 가져왔다. 바젤선교회 도움으로 자유를 찾게 된 한 노예는 1879년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페르난도포와 산토메로부터 카카오 열매들을 가져왔다. 10년 후에 한 선교사가 카카오 열매를 카메룬에 수출함으로써 가나에서 본격적으로

¹⁴⁹ Dwight P. Baker, “William Carey and the Business Model for Mission,” *Overseas Ministries Studies Center report* (June 2002, 8.5)

¹⁵⁰ Ken Eldred, 146.

¹⁵¹ Heinz Surer and Marco Gmür, 32-34

카카오 산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가나에서 카카오 열매를 실은 상선이 유럽에 도착한 것은 1891년이였다. 그리고 20년 후에 가나는 세계 최대의 카카오 수출국이 되었다. 1911년이 되자 24명의 유럽 선교사들과 566명의 아프리카인 조력자들이 가나에 있는 선교회 공장들에서 일하게 되었다.¹⁵²

인도에 있는 바젤 선교사들은 1844년에 직조 산업을 시작하여 현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1851년, 유럽의 직조공 존 할러가 인도에 와서 21대의 유럽식 직조기와 염색실을 갖춘 공장을 지었다. 망갈로에 있는 바젤 선교회에서 시작한 직조 산업은 성공을 거두어 현지인들을 수백 명이나 고용하게 되었다.¹⁵³ 1874년에 세워진 기술학교는 인도인들에게 목공, 편자, 시계 제조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바젤 선교회 무역회사 역시 1865년 타일 공장을 시작하여 인도의 우기에 내리는 폭우를 막아 줄 지붕 재료들을 생산했다. 첫 공장이 성공을 거두자 제 2, 제 3의 공장들이 1877년, 1880년에 각각 문을 열었다. 1913년, 타일 공장들은 2천여 명의 직원이 있고 하루에 5만 개의 타일을 생산하는 굴지의 기업이 되었다. 바젤 선교회의 모든 무역회사에서 그해에 고용한 인도인은 총 3,636명이였다.

바젤선교회의 무역회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인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했던 회사였다. 공장과 무역회사에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육을 담당했다. 1859년 설립 이래 1913년까지 거의 천만 스위스 프랑의 수익금이 인도, 중국, 가나의 선교 사역에 투입되었다. 오늘날의 외환 시세로 따지면 약 800만 달러로 당시에는 상당한 액수였다.¹⁵⁴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무역회사와 선교회는 분리되었다.

모든 유럽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귀환되었고 1917년에 바젤선교회는 무역회사의 주식을 40퍼센트 팔았다. 전쟁이 끝나고 가나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가나로 돌아가 유니온 무역회사를 운영했다. 인도에서는 바젤선교회 무역회사가 독일인들의 기업으로 인식되었고 영국 정부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바젤선교회 공장에서 목공과 편자 기술을 배운 인도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¹⁵² Ibid., 38.

¹⁵³ Ken Eldred, 147.

¹⁵⁴ Heinz Surer and Marco Gmür, 39.

봄베이로 이주해 갔다. 봄베이에 정착한 기술자들은 그곳에서 바젤선교회 카나레세 교회를 세웠다.¹⁵⁵

결국 바젤선교회는 전문인 선교의 목적을 달성했다. 미개발 지역에 들어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현지 그리스도인을 비롯해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현지 그리스도인을 비롯해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도 기술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수익성 높은 사업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했으며 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선교 사역을 뒷받침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현지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되었다.

하와이(Hawaii) 선교

하와이(Hawaii)에 최초의 백인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한 세대쯤 전에 백인 상인들이 드나들고 있었다.¹⁵⁶ 하와이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국 선교회(American Board)였다. 1819년 10월 7쌍의 선교사 부부 일행이 타테우스 호를 타고 최초로 하와이에 발을 디뎠다.¹⁵⁷

그 중 선교사 몇 명과 그들의 자녀들은 곧바로 상업에 뛰어들었다. 선교사들은 하와이 지도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이라는, 현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을 가르쳐 주었다. 1840년 당시 하와이 법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다. 그러나 8년 후에 카메하메하 3세 왕이 법을 개정하여 토지 소유권을 세분화했다. 그리하여 전 국토의 24퍼센트는 왕이, 39퍼센트는 추장들이, 36퍼센트는 정부가, 나머지 1퍼센트는 일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에 안전하게 자본을 투자하여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려면 사유권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와이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기에 야심에 찬 사업가들은 농장에 물을 대기 위해 정교한 관개시설까지 갖추었다. 그들은 계곡 위로 복잡한 수로를 내고,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어 현지의 사탕수수

¹⁵⁵ Ken Eldred, 148.

¹⁵⁶ Kenneth Scott Latourette, 454.

¹⁵⁷ Ruth A. Tucker, 260.

농사를 혁신적으로 개량했다. 일본과 중국에서 몰려드는 이민 노동자로 인해 값싼 노동력도 풍부했다.¹⁵⁸

하와이 섬의 정치와 경제는 소수 외국인들이 쥐게 되었다. 빅 파이브(Big Five)라고 불리는 5개 회사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¹⁵⁹ 선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무엘 노스롭캐슬과 선교 회사들을 위해 판매책임과 회계를 담당했던 에이모스 스타 쿡이 1851년에 일반 상점으로 시작한 캐슬앤쿡이 그 중 하나였다. 그들은 초기에는 주로 농기구, 재봉틀, 약품들을 판매하다가 나중에는 사탕수수 농장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제당산업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오늘날 캐슬앤쿡은 부동산 개발을 비롯해 다른 몇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상급 리조트 두 개와 하와이에 있는 라나이 섬의 98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빅 파이브에 속하는 또 다른 회사, 알렉산더와 볼드윈사는 선교사 자녀였던 사무엘 알렉산더와 헨리 볼드윈이 1869년에 1에이커의 사탕수수 농장을 경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에 두 사람은 수백 에이커의 땅을 더 사들였다. 1876년이 되어 마우이 중앙에 소유했던 3천 에이커에 이르는 하이쿠 농장에 물이 부족하자 그들은 할레아칼라 화산의 산등성이로부터 30킬로미터에 이르는 관개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알렉산더와 볼드윈사는 하와이 최대의 제당회사로 성장했다. 오늘날 이 회사는 1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지닌 대기업으로 부동산 개발과 운영, 해양 운송, 설탕과 커피 생산 등에 관여한다.¹⁶⁰

그러나 그들은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보다 이기적인 이윤 확대가 주목적이었다. 수익금을 선교에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세력 있는 외국인들은 하와이 섬이 미국에 합병되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기를 바랐다. 1876년에 하와이는 미국과 호혜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로서 미국과 하와이 양국의 무역 장벽이 무너졌고 하와이 경제는 미국이라는 대국에 가려 그 자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 후 10년 동안 하와이 무역의 90퍼센트가 미국과 이루어지자 하와이는 정치적 차원에서보다는 무역차원에서 미국에 소속되었다. 하와이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성공’ 했지만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 했던 비전은 잃고 말았다.

¹⁵⁸ Ken Eldred, 144.

¹⁵⁹ Richard Borreca, “Sugar yields sweet deal for 'Big-Five' firms,” Honolulu Star-Bulletin, July 12, 1999.

¹⁶⁰ Ken Eldred, 145.

아프리카인 레이크 회사(African Lakes Company)

1859년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은 아프리카로 돌아가 남아프리카를 탐험했다.¹⁶¹ 식민지가 되기 전의 말라위는 아랍인과 포르투갈인 노예상인들, 남부에 사는 호전적인 부족들, 해안에서 상아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리빙스턴은 어떻게든 바람직한 상업 활동으로 아프리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다른 영국 선교사들도 리빙스턴의 주장을 따랐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단과 스코틀랜드 선교자유교회가 1875년부터 파송한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선교사들은 합법적이면서 적절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야 아프리카에 만연한 노예무역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Livingstonia Central Africa Company(리빙스턴니아 중앙 아프리카 회사)는 1877년, 글래스고 출신의 기독교 사업가 존과 프레드릭모이어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나중에 그 회사를 아프리카인 레이크(African Lakes Company)라고 개명했다.¹⁶² 제임스 스트리트 박사는 리빙스턴니아에서 아프리카인 레이크의 운영을 맡아 산업 기술과 상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아프리카인 레이크는 강과 호수를 따라 제품들을 증기선이나 배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인도양의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오늘날의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 등에 판매했다. 이 후에 그 회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무역 거래로 다각화되었다.¹⁶³

1908년 아프리카에 철도가 연결되어가자 이 회사의 중요성이 감소되었고, 1924년에 설립된 자동차 사업, 특히 만다라 자동차를 개발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아프리카인 레이크 사는 궁극적으로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에 흡수되었다.¹⁶⁴ 아프리카인 레이크 사는 바람직한 상업무역을 도모하고, 노예무역과 맞섰으며, 무역로를 확립하고, 현지인들에게 경제적, 영적 지식을 전해주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¹⁶¹현재의 말라위(Malawi)

¹⁶² 1894년 아프리카인 레이크(African Lakes Company)로 개명되었는데 Nyasa 호수 주변에 위치하여 호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ccessed July 1, 2020.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Lakes_Corporation

¹⁶³ Ken Eldred, 143.

¹⁶⁴ Accessed July 1, 2020.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Lakes_Corporation

아프리칸 레이크를 세운설립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였다. 또한 리빙스톤이 꿈꾸던 상업과 기독교를 동시에 전해 주어야 한다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예였다.

만인 선교사론

만인 선교사론이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직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주창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창은 기존의 안수 받은 특정인만을 선교사로 인정하고자 하는 추세에 반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기초교리가 된다. 이러한 주창은 또한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만인 선교사론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의 신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약의 만인 선교사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최초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맺으신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종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언약을 맺으신다.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 언약의 집단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민족단위 전체로서 그 가운데 이 언약의 사명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없었다. 흔히 구심적 선교라고 지칭하는 구약의 선교에서 선교의 주체자인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것이며 특정한 자들에게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와 같이 만민선교사직의 원리를 구약 언약의 집단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약에서의 만인 선교사론

만인 제사장론의 근거로서 흔히 인용되는 구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종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이다.¹⁶⁵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후반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즉 이구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면에서는 만인 제사장직론”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역의 면에서는 만인 선교사직론”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8:19-20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 한 제자에게 지상위임령을 주셨고 그 내용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명령이었다. 그러나 지상위임명령을 열 두 사도에게만 위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 명령은 열 두 사도에 근거한 전체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또한 교회는 구약의 언약에서와 같이 집단적인 개념에서 이 명령의 대상이 된다. 선교사직은 교회 전체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 선교학자인 허버트 케인 다음과 같이 이를 표현하고 있다. "초기시절에 교회는 바로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기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였는데 이는 (1) 교회의 주된 사명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과 (2) 이 사명을 수행하는 책임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사도행전의 선교를 살펴보면 초기 교회의 선교는 특별한 사도직분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 선교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주된 사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⁶⁶ 오히려 복음전파 그 자체는 흩어진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을 보게 된다. 초대교회의 시절에 선교사직은 어떤 특정한 지위나 신분의 사람에게 제한된 적이 없다. 이들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직의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다. 이들은 만인 선교사론을 실제로 실천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현모는 만인 선교사론은 성서적으로 타당하며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논하면서 또한 전문인 선교사직은 그 신학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이보다는 선교사 직임의 의미가 교회의 인정된 파송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만인 선교사직론 문제의 실제 핵심은 신학적으로 만인 선교사론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사도직 성격'을

¹⁶⁵ 벰전 2:9.

¹⁶⁶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s, 1976), 65.

계승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의지와 행동이 실제적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가 그 본래적 사역의 존재목적인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하여서 사도직을 계승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있다면 만인 선교사론과 관계된 많은 논쟁들이 쉽게 해소되리라는 것이다.¹⁶⁷ 더 나아가서 만인 선교사론을 인정하고 전문인 선교사를 목회자 선교사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아직 교회 내에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만인 선교사론과 교회의 사도성

니케아신경의 전통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이다. 교회의 성격을 논할 때 보통 교회의 속성으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요소를 든다. 일반적으로 목회사역과 선교의 근원을 교회의 속성중 “사도성(使徒性)”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 복음이 사도들의 메시지로 인해서 주어졌고, 이 메시지가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르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⁶⁸

첫째,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사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관계, 파송교회 혹은 파송 선교단체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기도후원, 물질의 지원을 받으며 사역 해야 한다. 선교사역은 반드시 교회공동체의 파송을 받고 가서 교회공동체 설립하는 일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평신도의 신분과 역할에 관점에서 볼 때, 실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소수의 교역자를 제외하고 99% 이상을 차지한다.¹⁶⁹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¹⁶⁷이현모, 111.

¹⁶⁸ Hans Küng, *Was ist Kirche? 교회란 무엇인가?*, 이흥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참고

¹⁶⁹ 평신도라는 말은 주후 2세기 초 시리아 안디옥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시작으로 에베소교회의 오네시모, 그리고 서머나교회의 폴리갑 감독 등이 교회의 머리는 곧 감독이라고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놓은 데서 사역의 교권화가 시작되었다.

John Knox. *The ministry in the primitive church: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ed. H. Richard Niebuhr and Daniel D. Williams, 10.

은준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38.

라이코스 (laikos)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라오스(laos)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이 용어가 신약에서 어떤 한 그룹의 특정인들을 가리켜 사용된 사례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항상 포괄적으로 어느 백성 전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라는 말에는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을 갈라놓는 의미는 전혀 없으며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혹은 제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全)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셋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구별 짓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성직이라는 자체마저 다른 신자들과 신분상 구별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상의 차이가 없는 의미는,

- a)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점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혜로 부름 받은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할 뿐이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 성령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도 둘은 구별이 없다. 따라서 전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는 엄연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성직자는 이 공동체에 포함된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c)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는 각자의 품위와 기능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사역의 평신도라는 말은 로마의 사회제도를 교회에 적용한 것으로 성직계급과 구별하여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되었다.¹⁷⁰

넷째, 한스 쾅에 의하면 평신도는 사도성을 계승한다.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¹⁷¹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증인으로서

¹⁷⁰ Paul R. Stevens, *Liberating the Laity*.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승오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30.

¹⁷¹ 요20:21, 엡2:20.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이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위에 세워졌다. 사도직은 독특한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직을 어느 개인이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로마가톨릭이 사도직을 교황개인이나 제도상의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오류이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은 사도의 교훈과 사역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스 쾅(Hans Küng)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사도들을 계승하는가? 근본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다!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도들을 계승한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 계승의 교회다. 그렇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에 의하여 모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다. 모든 교회는 사도의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계승은 단지 역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는 참된 내적 연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자가 사도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도적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이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그 사역적 사도성의 계승자로서 자격을 가진다.¹⁷²

요컨대 교회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도성을 통해서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는 초대교회의 사역, 목회와 선교를 계승할 책임을 갖고 있다.

전문인 선교전략

조나든 코르테즈(Jonathan Cortes)는 전문인 선교사역자의 유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기준은 직업의 타당성 수준이다. 즉, 전문인 선교사가 가진 직업의 전문성이 현지인들의 직업적 전문성과 경쟁적이나 아니면 특이하나 하는 것이다. 전문인 선교사의 직업적 전문성이 현지인과 경쟁적이지 않고 특이하거나 나은 경우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¹⁷² Hans Küng, 202.

두 번째 기준은 전문인 선교사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하는 기준이다. 즉, 바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분한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해 보면 기술이 진보된 것이거나 특이하고, 동시에 사역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한 사역자가 전문인 선교를 위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문인 선교는 전문인 선교사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인 사역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일과 사역을 어떻게 분담하는가 하는 점에 그 사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사의 기본 자격

전문인 선교사는 일반 목회자 선교사와 동일한 기본자질을 소유하되 구호기술이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는;

-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 문화적으로는 예민하고,
- 성경을 잘 알며,
-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탁월성을 가지고,
- 기도의 삶에 굳건히 선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는 기본적인 성품과 영성뿐 만 아니라 특별히 사역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억압적이고 고립되어 위험이 잔존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레이 가일즈(Ray Giles)¹⁷³는 전문인 선교사의 자격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자이어야 한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정서적, 감성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변덕스러운 감정, 우울증 등이 없어야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다.

야마모리(Yamamori, Tetsunao)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후원의 세 가지 주요 기둥인 주님의 임재, 성경, 다른 신자와의 연합 등의 요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훈련이 된 자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후원자나 교회의 격려가 없더라도 이들은 규칙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딴 곳이나, 중앙의 관리가 없어도 전문인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⁴

돈 해밀턴(Don Hamilton)은 349명의 성공한 전문인 선교사들(Tentmakers)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⁷⁵

- 첫째, 이들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전도와 성경공부를 인도해 본 경험이 있다.
- 둘째, 그들은 본국에서 열성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눈 경험이 있다.
- 셋째, 그들이 나가는 주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 넷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믿었다.
- 다섯째, 그들은 본국교회와 든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 훈련

효과적인 전문인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과목들을 가르쳐야 한다:

¹⁷³Accessed December 02, 2020 <http://africanhistory.about.com/od/glossary/g/def-LCAC.htm>

¹⁷⁴ Tetsunao Yamamori, "Tent-Making Mission,"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A. Scott Moreau, ed., (United Kingdom: Paternoster Pres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39.

- (1) 성서적 / 신학적 연구;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등의 과목.
- (2) 타문화훈련: 언어연구, 전통종교, 문화적은,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사회구조(권위형태), 타문화권 체험 등.
- (3) 선교학: 선교신학, 선교역사, 교회성장 사례연구, 공생적 사역의 이론과 실제 등.
- (4) 개발문제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구호-복구-개발-유지의 연속과정에 관련된 문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고려사항, 세계의 기아와 기아정책, 국지적 분쟁과 전쟁 등.
- (5) 영적성장: 영적 개발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영적 훈련 등.
- (6) 전문직업: 농업, 교육, 적정기술, 적절한 공업기술, 건강, 영양, 국제개발기구에서의 경영이나 실습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미전도 종족에의 접근을 위한 전문인 선교의 기본전략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문인 선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비전: 복음만이 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비전 확립
- 발견: 표적이 되는 미전도종족의 이름, 위치, 필요 등을 발견.
- 기도: 표적 미전도 종족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기도.
- 입양: 특정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
- 동원: 물질적 궁핍이 극심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문인 선교사를 동원.
- 훈련: 전문화된 훈련.
- 참여: 가시적이고도 토착적인 교회를 형성하도록 시작하는 구체적인 전술.
- 평가: 성취 결과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훈련.
- 동역관계: 토착교회와 외부 기독교 공동체 간의 관계 확립.

전략적 구조

전문인 선교는 언제나 구호-회복-개발-유지라는 네 단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¹⁷⁵ Don Hamilton, *Tentmakers Speak: Practical Advice from Over 400 Missionary Tentmakers*

- (1) 구호단계: 그 지역의 생존이 위협되고 있는 단계이다. 물질적 목표는 대개 식량, 물, 집(잠자리), 건강관리, 위생 등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 (2) 회복단계: 물질적 진척의 목표는 농경제와 건강자원을 개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신적, 사회적 목표는 지역민을 보건, 지도력, 문제해결 방법 등의 면에서 훈련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사회는 기본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을 시작하고 건전한 사회관계가 개발되기 시작할 것이다.
- (3) 개발단계: 물질적 진척 목표는 식량공급, 식수사용, 수입 증가, 보건 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서 진보를 보이는 것이다. 정신적, 사회적 목표는 가족들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결과 집단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직업훈련이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 할 것이다. 영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현지인 그리스도인에 의해 수행되는 지역 내 사회봉사와 전도활동이 있게 될 것이다. 독립된 교회가 설립될 수가 있다. 지역마다 각 개인이 깊이 관여해야 하는 필요때문에 개발단계는 회복단계이후 3-5년이 걸린다.
- (4) 유지단계: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이다. 어떤 지역에는 이 목표가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던 사역기관이 그들이 의존심이 생기기 전에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지단계를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 구호와 개발기구는 그 지역 내의 주민들과 동반자로서 일해야 하고 그들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인 동역자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 지역 자체의 개발제도가 강화되도록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호와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인 선교사는 개발촉진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는 또한 사역지 내에 만연되어 있는 두 가지 기근을 토착교회가 효율적으로 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5장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

지금까지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 그리고 건축선교의 외연(Extension)으로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제 이상에서 논한 내용들로부터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건축선교의 개념

전문인 선교로서의 건축선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선교신학에서도 전문인 선교는 주로 의료선교나 비즈니스 선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선교는 설계 및 디자인, 인테리어, 토목, 전기, 배관, 용접, 방수, 시공, 감리 등 건축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 기술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교의 부름을 받고, 전담(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으로 자신의 건축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의미한다.

건축선교의 중요성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미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 개혁주의 세계관,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건축선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1)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의 관점에서 건축선교의 중요성은 분명한다.
- 2)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는 대상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 수 있는 대화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건축선교는 선교적 대면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된다.

- 3) 선교개념의 변천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회심만을 강조하는 선교에서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축선교의 중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 4)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틀을 통해 볼 때 건축선교는 구속의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 5) 하나님 나라의 한 중요한 개념인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강조한다. 건축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 6) 샬롬의 전제조건은 공의(Justice)다. 공의의 성경적 의미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다. 이와 같이 공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건축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맛 볼 수 있게 해 주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7) 건축선교는 선교사들의 접근 제한 지역에서도 비자 발급의 용이성과 장기체류 가능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 8) 건축선교는 자비량 선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며 중요한 선교전략이다.
- 9) 지역교회마다 건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평신도들 발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건축선교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현대선교 전략과 부합하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 10) 건축선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성경적인 선교전략이다.
- 11) 건축선교는 원주민들의 주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 12) 건축선교를 통해 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는 지역교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성장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된다.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인식의 변화

전문인 선교 선교로서 건축선교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선교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는 단지 전문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전문인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그들에게 효과적인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축선교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와 구조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교인들의 인식의 틀 가운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건축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 건축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축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한 선교적 관심을 지속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부여와 인식의 변화는 또한 교회를 선교 지향적 구조로서의 구조변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선교전략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이 성도들 사이에 공유되고 인식되며 그 인식이 현실적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전략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인식이 단순히 전문인 선교를 알지 못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만으로서 전문인 선교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인들이 전문인 선교에 대하여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 선교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근원적인 인식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문인 선교에 대한 지식 자체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즉,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별과 구별 없는 선교로서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전문인 선교에 대하여 지식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이 자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인기는 만인 선교사론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꾸어야 할 생각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¹⁷⁶

- 1) 성경은 교역자(안수 받은 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다(의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이다).
- 2)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신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 3)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성직이다.
- 4) 성도들의 직업과 사업, 가사는 모두가 거룩한 주의 일이다.
- 5) ‘목회자 선교사만 선교사’ 라는 기존의 선교사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 6) 목회와 선교사역은 안수 받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 7) 성도들이 선교 훈련받고 해외로 나가면 본 교회에 타격이 온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것이다.
- 8)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재정이 넉넉하면 선교한다는 사고 역시 잘 못된 생각이며, 선교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로 하는 사역이며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선교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에 대한 정의의 잘못된 인식이며 둘째, 선교사의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셋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넷째, 전문인 선교사 신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선교에 대한 정의의 잘못된 인식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답할 것이다. 대부분 선교와 전도를 협의의 의미로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사역으로서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축소된 선교라는 개념 속에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사역이 아닌 ‘선교=복음전도’

¹⁷⁶박인기, “평신도와 전문인 선교”

Accessed July 1, 2020. <http://cafe.daum.net/MyLoveChina/3Avt/69>.

라는 등식으로 제한하여 전문인 선교의 위치가 축소 제한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전문인 선교의 동원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선교는 ‘복음전도의 중점적 사역 위에 교육, 의료, 구제, 비즈니스 등과 같은 사회봉사를 포함하는 총체적 사역’ 이라고 정의한 로잔대회(1974)의 정의를 교육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선교사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식변화 두 번째는 선교사의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선교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소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서의 선교란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란 복음전도이기에 소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선교의 가장 적합한 선교사라는 편견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해야 할 인식 중에 하나는 ‘선교란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 소명’ 이 아니라 ‘선교란 예수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 이라는 인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상명령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19).”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으로서 모든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너희는’이라는 말과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너희는’ 광의로 볼 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너희’라는 말 앞에 생략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된 너희’일 것이며, 이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체가 모든 성도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선교란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며 이러한 점이 교인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고, 선교란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진 직업 같은 소명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러운 삶이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교인들의 이러한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세 번째 변화되어야 할 인식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은 ‘너희는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며, 곧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곧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전문인 선교동원을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하는 것이며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를 논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한국교회의 커다란 잘못 중 하나가 전문인 선교사보다 목회자 선교사를 더욱 우월시하는 경향이다. 교인들의 인식 가운데 대개 평신도 전문인으로서의

파송보다는 목회자로서의 파송을 더욱 우월시하는 경향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를 더욱 우월시하는 일반적 경향과 함께 교회개혁이라는 선교의 우선목표를 위해서는 목회자선교사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훈련받은 전문인 사역자는 특히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전문인 사역자의 사역은 목회자의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 선교사만을 선교사로 인식하는 경향이나 목회자 선교사를 더 우대하는 것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이 편견이며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전문인 선교사, 특히 건축 선교사의 신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편견은 목회자로서 선교지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재정후원 등의 여러 이점 때문에 3년간 목회과정을 받은 후 목회자의 신분으로 선교지에 나아가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나 인식이 한국교회의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교회는 목회자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를 동등한 신분과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두 유형의 선교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동등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는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신분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전문인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서 전문인 선교, 특히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전략이 필요하다.

선교지 목사선교사가 전문인 선교의 전도사가 되라

가장 먼저 선교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선교사들이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인 선교를 적극 권장하고 동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선교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선교사들의 의견만큼 본국 선교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제한지역(RAN)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가 절실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의료, 보건, 교육, 건축, 비즈니스 등과 같은 공식적 신분확보가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목사선교사들은 전문인 선교사를 권장하고 동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 같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문인 선교사들의 자질문제나 신뢰에서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제들과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선교사 자신이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교단차원에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전환

선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교단차원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교단차원에서 선교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전환은 거시적으로 전문인 선교(건축선교)에 대한 교단선교정책(구조변화)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은 개체 교회에 영향을 미쳐 전문인 선교동원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교회차원 목회자들의 인식전환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개교회 차원의 담임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수립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전문인 선교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개체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인식이 바뀌면 교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은 매우 용이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식이 전환된 목회자가 지혜롭게 건축선교 전략을 구상하여 효과적으로 교인들을 교육하고 실행한다면 개체 교회의 전문인 선교(건축선교)동원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에게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육과 홍보

본 연구에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목회자가 이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교인들에게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전문인 선교, 특히 건축선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인 선교의 시대적 필요성 외에도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당위성을 강조하여 이 전략의 유효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성도들에게 깊이 주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최상의 선교 전략임을 강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전도종족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주로 10/40창에 인구의 90%이상이 분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며, 따라서 최악의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미전도 종족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 선교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건축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전문인 선교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은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를 통해 미전도 종족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점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미전도종족의 목회자 선교사 제한으로 인하여 전문인으로 파송될 경우 진입이 용이하며 그 직업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현지인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또한 선교현지에서 그들의 기술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살롬을 위한 사역이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그 자체가 선교이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사역 속에서 현지인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인 선교사가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현지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실현하는 것이며, 지역개발과 같은 복지, 사회개발 사역은 그 자체가 자연스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며, 공의와 살롬의 사역이다. 미전도종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면 전문인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적 아픔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전문인 선교로서의 사역의 안정성을 홍보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선교 방법보다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이 더욱 안정적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사역적 안정성이며, 또한 재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접근제한지역(RAN)에서의 사역은 안정적 신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비자를 받아 사역하는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목회자 선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경우 직업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안정성으로서 직업적 전문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RAN은 자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경제인, 비즈니스맨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더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건축선교의 동원을 위한 지원 체계의 수립

교단차원의 지원 체계 수립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 동원을 위해서는 우선 교단적 차원에서 건축전문 선교사의 동원과 동원된 후보들을 훈련, 지원할 적절한 체제(System)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 차원에서는 전문인 선교사의 동원, 훈련, 파송하는 것이 목회자 선교사의 파송 지원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며, 전문인 선교사의 파송이 교단선교의 중심목표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 동원, 발굴, 훈련, 파송의 전 과정을 관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위기관인 노회나 지역교회 별로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 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예로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건축전문선교사의 요건, 선발, 허입, 훈련, 파송에 대한 ‘탄력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교단 전체적으로 건축전문선교사에 대한 목표설정(Targeting or Goal Setting)이 필요하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회나 개체교회별로 총체적인 동원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할

목표설정과 각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각 노회와 지역 교회에서 건축 전문 선교사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교단적으로 건축전문 선교사를 지지하고 지원하며, 권장한다는 사실을 각 노회와 지역교회, 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총회에서는 노회와 교회차원에서도 건축전문 선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며, 교회차원에서도 건축전문선교를 발굴, 훈련, 지원할 수 있는 체제(System)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넷째, 교단파송 전문인 선교사가 될 때 가지게 되는 장점을 제시하여, 개교회출신들이 교단 소속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열망할 수 있는 유인가(Incentives)를 제공해야 한다. 체계적인 선교사관리, 각 선교사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선교사에 대한 목회적 돌봄(Missionary Care) 등 교단에서 제공되는 이점을 제시하여 교단파송 전문인 선교사로 허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이를 위해서는 교단 내에 “전문인 선교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회자 선교사 협의회와 중심적인 양 축을 만들어 상호연계를 이루어 보완사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 협의회는 교단 내 노회파송 전문인 선교사나 개 교회 파송 전문인 선교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교회차원의 지원 체계 수립

전문인 선교를 위한 개교회별 정책 수립

현재 한국교회의 전문인 선교동원의 가장 큰 난점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제와 함께 전문인 선교를 위한 정책목표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인식문제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전문인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선교예산 중 전문인 선교사후원을 위하여 목표비율(이를테면 전체 선교비의 40% etc.)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 선교를 위한 예산 확보와 조직구조 수립

전문인 선교동원의 난점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가 전문인 선교사들을 위한 예산을 배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우선 전문인 선교동원을 위한 교육목적으로라도 예산을 배정해 두어야 한다. 예산이 설정되면 실행이 용이해 진다. 일반적으로 예산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조직 구조를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사전에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후에, ¹⁷⁷ 예산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구조를 수립하는 것과 아울러 전문인 선교와 전문인 선교사 지원을 위한 조직 구조를 신설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전문인 선교를 지원할 조직을 설계, 구축하고 전문인 선교를 홍보하고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간사 등의 직책을 두어 세우도록 한다. 이 전문적인 간사는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알리고 교인들에게 홍보하며, 선교사후보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할 책임자여야 한다.

전문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지역 교회 차원에서는 선교 및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교인들로 하여금 전문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훈련받고 지원 혹은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적극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별로 전문인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예산구조와 조직 구조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인 선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 지원을 위한 예산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¹⁷⁷조직학습이란 개인학습이 조직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이루어져 해당 조직 구성원 전체가 특정한 사안이나 지식에 대하여 동일하게 숙지하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조직 전략 중 하나이다.

Senge M, Peter. *The Fifth Discipline* (New York: Doubleday, 1996), 40.

전문인 선교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전문인 선교를 위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일주일 단위의 전문인 선교 세미나 개최가 전문인 선교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문인 선교 세미나는 동기부여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 세미나나 선교대회에 참여한 참가인은 대회 기간 동안 전문인 선교에 대한 지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선교세미나나 선교대회의 목적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외적 동기에 대한 흡수율도 다른 어떤 방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은 적극적 홍보를 통한 개인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각 기관 내의 리더들을 설득하거나 그 기관 내의 전문인 선교에 대한 훈련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기관 전체가 이 대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동원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하계수련회, 청년, 대학부 수련회를 이 전문인 선교대회로 대체하게 하여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없던 회원들에게까지도 전문인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대회의 큰 장점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회 참가인들에게 전문인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나 집회, 홍보 비디오, 선교잡지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반면 그 후 훈련 프로그램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부여된 동기가 쉽게 식어버리는 단점이 있기에 도전 받은 대회 참가인은 또한 그 동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장기간의 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미전도 종족 입양을 위한 기획과 실행

미전도 종족선교는 현대의 대표적인 선교전략의 흐름인데, 미전도 종족선교를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은 미전도 종족 입양선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교회선교의 문제점은 먼저, 선교전략이나 목표 없이 선교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선교 전체에 대한 조망 없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개 교회가 세계선교의 그림을 한 눈에 보면서 자신들이 한 부분을 실재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전도 종족 입양전략은 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전략으로서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인의 일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것은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교인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이 선교전략은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가 선교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략이다. 따라서 시대적으로나 시행주체 면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 입양선교는 지역에 있는 개 교회가 주체가 되어 해야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선교전략이다.

미전도 종족 입양의 장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현재 복음에 소외된 지역과 상황파악 가능하므로 확실한 선교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 (2) 종족 입양운동은 총체적인 선교 사역이므로 효과적인 협력선교 가능하다.
- (3) 선교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에 개 교회의 다양한 은사 지닌 선교 헌신자의 활용이 가능하다.
- (4) 복음화 사역 전반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 (5) 종족 정탐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선교를 하게 한다.
- (6) 장기적 계획과 참여 요청되므로 지역교회가 선교의 최종적인 주체가 된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 특히 종족을 입양했을 경우,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사이다. 따라서 미전도 종족선교를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사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선교가 된다.

교회 내 전문인 선교사 후보의 발굴과 지원

개체 교회 내에 전문인 선교사는 대개 두 부류에서 발굴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청년층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청년층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고취된다면 전문인 선교사로 지원, 훈련, 파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을 전문인 선교에 동원하는 해당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 했을 경우 정탐과 정보수집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인들을 동원하여, 나아가 미전도 종족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장년층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녀양육을 마친 상태인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자신의 전문 직종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므로 이들은 실버 선교사가 되어 매우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세계의 여러 종족과 지역에서 목회자 선교사와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도 있고, 전술한 미전도 종족에 파송된 청년층 전문인 선교사와 팀을 이루어 교회가 입양한 종족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인적 자원들을 발굴, 훈련, 파송하여야 한다.

전문인 사역 현장 홍보물을 통한 동기부여

실제 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성도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전문인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문인 선교사를 통하여 그리고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선교 현장 가운데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담은 비디오나 홍보물 등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 중심의 선교라는 잘못된 편견에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며, 성도들 자신(평신도) 또한 선교에 동참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를 받게 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백번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때론 한 번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를 보는 것이 더 큰 도전일 수 있는 것이다.

단기 선교의 활성화

단기 선교는 전문인 선교 활성화에 대한 커다란 도구가 된다. 교회 내 단기 선교는 여러 면에 있어서 유익한데 첫째, 단기 선교를 가기 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선교 훈련이 가능하다. 둘째, 단기 선교 기간 내에 현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직접 하나님의 선교 사역 안에 동참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단기 선교 기간 내에

전문인 선교를 체험함을 통해서 전문인 선교를 통한 선교의 효과들을 직접 체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장기 선교사로서의 헌신에 큰 동기 부여가 된다.

단기 선교 후에도 단기 선교의 영적 역동성이 교회 내에서 계속 지속 될 것이며,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선교보고와 기도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도전을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지역봉사활동의 전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는 하겠지만 또한 지역주민을 전문인 선교로서 섬기는 것도 전문인으로서의 선교를 체험하고 동기를 부여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의료 봉사를 통하여 지역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이·미용 기술을 통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섬긴다면 전문인 선교 사역을 본국에서 먼저 시현하고 훈련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문 선교사역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정을 방문하여 가옥을 수리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말로써 하는 전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적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살롬의 사역인 동시에 고와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공의(Justice)의 사역이기도 하다.

교회 내 선교부 활동을 통한 동원

대부분의 지역교회 안에는 선교부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교부의 활동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교회 내 전문인 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를 위한 선교부를 활성화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먼저, 선교부에 대한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단지 교회내의 여러 기관 중 하나가 아닌 교회 내 자치성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교부내에 선교훈련을 받은 성도들을 리더나 간사로 세워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받은 성도가 없는 상황일 경우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교회 내 선교기구를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선교부의 목표는 평신도들도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인 전문인 선교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을 인식시키고 동원하는데 있다. 교회 내 전문인 선교를 위한 선교부를 통해서는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정기적인 전문인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학기별, 혹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의 전문인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전문인 선교축제를 열어 성도들에서 전문인 선교 비디오 상영, 선교잡지, 홍보물 등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며, 집회를 통해 평신도로서의 전문인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한다.
- ③ 교회 내 전문인 선교훈련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문인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선교동원의 측면이나, 본격적인 전문인 선교훈련의 사전단계로 매우 유용하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교회 내 선교관을 설립하며, 이 선교관에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선교관을 통해서 많은 선교정보들을 제공한다.
- ⑤ 선교회보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교회 안에 선교동기부여와 정보를 제공한다.
- ⑥ 선교바자회를 통한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수익금으로 현지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를 후원하며 그 선교사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성도들에게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전문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의 활용

단기 선교 등과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이는 지속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인 선교 훈련은 첫째, 교회 내 선교훈련 학교 설립을 통해서 둘째, 교단 전문인 선교훈련원을 통한 훈련, 셋째, 전문인 선교 단체를 통한 훈련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원을 지역별로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긴급히 요청된다.

제 6 장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사례연구

지금까지 건축선교의 외연으로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문인 건축선교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밀거름 선교회”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건축선교의 방향과 실재를 위한 지침을 얻고자 한다. 밀거름 선교회 사례는 이 선교회의 창립과정부터 참여하여 함께 선교를 해 온 지도교수 김성수총장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필자의 오랜 기간 건축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Frontier Ecclesia Mission” (FEM) 선교회는 현장 관찰과¹⁷⁸ 사례연구 참여 관찰을¹⁷⁹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다. 참여자 관찰 연구 방법은 필자가 건축사역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부분을 사용 하였고, 현장 관찰과 사례연구는 각 건축 현장을 살펴보면서 선교의 효과적 지향을 위해 관찰 하고 자료를 정리 하였다

밀거름 선교회

밀거름 선교회 창립 취지

2013년 1월 14일 밀거름 선교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 선교에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 하는 협동사역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각종 은사를 동원하여 선교사역에 동참해야 선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밀거름 선교회는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각종

¹⁷⁸현장 관찰이란? 사물이 현재 있는 곳,일이 생긴 그 자리,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곳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것을 말한다.

Accessed July 28, 2020. <https://ko.wikipedia.org//>

¹⁷⁹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이란? 관찰자가 피관찰자가 속하는 사회나 집단에 들어가 같은 사회생활을 체험하면서 내면에서 관찰하는 사회조사법의 하나이다. 린데만 (Lindeman. E. C)에 의해 명명되었다. Accessed July 28, 2020. <https://ko.wikipedia.org//>

영혼구원에 밀거름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활용하여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다.

밀거름 선교회를 창립할 당시의 창립취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밀거름 선교회는 파송된 선교사 지역에 영혼들을 위한 밀거름을 까는 일을 수행하여 현지 선교를 돕는다. 각종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건설 전문인은 집 고쳐주기, 집짓기, 우물파기, 각종 수리 및 설비들의 사역을 실시하고, 의료 전문인들은 선교현장에서 지역민의 의료사역을 통한 복음전파의 접촉점을 마련하며, 목사님들은 이들 전문인들을 통해 밀거름 깔아놓은 지역에 말씀집회로 많은 영혼을 영접하도록 하여 현지의 선교사들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취지로 창립되었다.

밀거름 선교회 창립당시 대표회장을 맡은 배동석 장로는 이 선교회를 개별적인 고립된 선교회로 운영하지 않고, 세계 선교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역하기로 하고 세계선교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는 밀거름 선교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자 바람직한 방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창립당시 대표회장인 배동석 장로가 세계선교위원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 내용을 보면 고신 총회 세계선교부의 승인 아래 선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선교(고신) 위원장님.

아래와 같이 “밀거름 선교회”를 평신도선교, 전문인 선교, 자비량선교의 원칙으로 조직하여 현지 선교사 지역의 밀거름을 뿌리는 일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총회 선교부의 지도를 따라 운영하고자 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거름 선교회” 대표회장: 배동석 장로 드림(동래제일교회 은퇴 장로) 2013년 1월 14일.

밀거름 선교회 운영 방침

밀거름 선교회는 건축의 재능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간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매해 2개월 정도를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이러한 건축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이다. 항공표와 숙박비 등은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경비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조달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한지역에 파송되면 2~3개월 밀거름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다음 지역을 확정하면 약 3개월 정도 준비하여 떠나는 형식으로 전문적인 건축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을 한다.

(2) 파송에 참여하는 분은 항공료, 모든 체류비용은 자비량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비용은 후원 교회, 단체, 개인의 후원으로 감당한다.

밀거름 선교회의 창립총회 순서와 총칙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창립 당시 초기의 활동

밀거름 선교회 창립 당시에는 “한 텀(Term)을 2~3개월로 보고 돌아와 다음 지역과 그 지역에서 할 일들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전문인 팀 구성 하는 기간을 약 2개월로 생각하고, 각 선교지역에 순회 선교를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첫 번째 파송지역은 태국 치앙마이 메솿 지역이었다. 메솿은 한국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동래제일교회에서 세운 메솿 은혜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미얀마 국경지역인데 미얀마 군정으로 국민의 약80% 난민들이 생겨난 열악한 난민지역이다. 미얀마, 라오스, 공산권 여러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기아대책 본부(부산지역 이사장 윤현주 목사)에서 이곳에 대학교를 설립하였고,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신정호 선교사의 요청으로, 학교 담장 건설, 조경 사업, 학교 입구 도로 포장, 유기농 닭장 건립(자립목적)등의 사역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미얀마지역 또는 현지에서 밀거름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 봉사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의료선교 집회까지 하고 돌아올 계획을 수립하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출발하였다.

밀거름 선교회의 계속적인 건축선교 활동

인도(김정구 선교사)

2019년 1월 2일 - 1월 26일: 인도 벵갈로 지역(김정구 선교사 요청 사역)

사역 내용: 제5고아원(집시들의 자녀들)학교, 기숙사 60평, 슬라브 공사 2, 고아원교회 지붕 개량 공사, 식당, 직원 사택 지붕 개량, 직원들 공동 기숙사 지붕 개량. 제1고아원 지붕개량, 제10고아원(신축) 지붕공사, 고아원 화장실 지붕공사, 제10고아원 식당 공사, 바나바교회 지붕 수리, 학교(유치원~대학, 국제학교) 교문~교정까지 넓이10m, 길이150m, 보도블록 포장공사(총결산: 21,000,000원)

인도에서 토마스 선교센타를 운영하는 김정구선교사는 벵갈로 지역에 교회 143개, 가정교회 500개 처소, 고아원 10개, 병원 1개, 나환자 휴양소 1개(200명 수용), 시각장애인 휴양소(60명)를 세우면서 활발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밀거름 선교회의 사역으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네팔 카투만두

2015년 1월 14일 밀거름 선교회는 그 동안 교회당 건립 등으로 지원하던네팔 카투만두 룸비니에서 제4차 선교사역으로 담장공사 등 건축공사를 하였다. 불교의 나라 네팔에도 한국 각 교단 선교사들이 세운 약 50여 교회들 하나의 총회를 이루어 성장해가고 있다. 이들 교회들 중에는 2,000여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다. 선교사들은 또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한 선교활동도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는 학교를 스님들이 도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룸비니에는 석가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학교에 스님의 자녀들이 소위 절간 중직자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현지 선교사가 해발 1,500m 고지에 교회를 세우겠다하여 “여기에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고 했으나 밀거름 선교회가 이곳에 교회당을 세운지 3년 만에 15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후 교회당 2층을 밀거름 선교회의 봉사로 증축히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선교사가

영어학교를 세워 400여명의 불교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안전을 위하여 30여m의 담장 공사를 해 주었다.

인도 뭄바이

인도 뭄바이 푸네 지역 선교사역을 위해 2016년 11월 25일 부터 건축사역을 실행하였다. 이 지역에 5차로 실시된 사역이었다. 첫째로 카르자트 꿈나무 학교의 지역민을 위한 진료실과 방과후 학교 건립을 했다. 약37평의 건물을 건립하고, 기존 창고의 지붕 (가로280cm x 세로380cm)을 개량했으며, 6평 정도되는 학교 본관의 현관을 건립했다. 또한 책상과 결상 22개를 제작해 수업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푸네신학교 지붕을 수리 개량 (가로280cm x 세로500cm x 높이320cm)하였고 푸네 아시람에 있는 사무실 천정공사 (가로 310cm x 세로560cm)를 하였다.

안드라왈라 교회건축

밀거름선교회는 인도 마르파와다 교구에 속한 안드라왈라 교회의 건축을 지원하였다. 이 교회는 마니토전도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약 70명이다. 3년 전 자체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중단되고 있었는데, 벽돌, 문, 창문, 지붕 자재 등의 필요한 건축자재를 지원했다. 건물은 넓이가 가로, 세로 7 미터와 9.1 미터 정도된다

온데교회건축(원주민교회)

인도 북부에 위치한 깔리안 탄해 와다 밀더림가거 지역에 위치한 원주민 교회인 온데교회 교회당을 건립했다. 교회당은 면적이 약 30여평이다. 현지인 대와난더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다. 충북 제천 성광교회 어느 권사님의 암으로 인해 천국 가기 전 교회건축 하고픈 마음으로 헌금한 1,000만원 후원금으로 밀거름 선교회에서 건립하였다.

인도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

밀거름 선교회는 2014년 1월에 인도 벵갈로르에 김영식 선교사가 섬기는 어린이선교 센타, 인도 벵갈로르 김정구 선교사의 교회, 고아원, 신학교, 사립학교 사역인 도마센타, 인도 푸네에 등지에 인도복음선교회 김정식 선교사를 팀장으로 장창희 선교사, 이영철 선교사, 김진곤 선교사, 이경환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협력선교 사명을 감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영식 선교사가 요청한 어린이센타 15개 중 마이솔반니 센타에 공동화장실을 건립했고, 안누르어린이 센타에 화장실을 건립했으며, 다사랄리 어린이센타 건물도 건립하였다. 그리고 람뿌라센타에 전기, 파이프, 방수, 낡은 건물 40여평 1, 2층 페인트 공사, 앞 운동장에 돌들이 많아 아이들 뛰놀며 운동하는데 다치지 않도록 모래흙으로 깔아주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정구 선교사님이 요청한 지구촌교회 대문 수리, 고아원 전기시설,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추천한 인근 주택 6채를 지붕 및 전기시설을 하였다. 불랄리교회 히스기야 목사님이 추천한 교회부근 주택 6채 중 2채를 지붕 개량을 해주었고, 남부산장로회가 세운 제임스 사립학교 지하수 모타교체, 전기 수리, 파이프 수리를 하였고, 도마 선교센타 철문수리, 전기 수리, 그리고 거대한 건물유지를 위한 사다리 및 전기용접기 여러 도구들을 구입하여 구비해 주는 사역도 하였다.

그 후에는 김정식 선교사가 요청한 인도복음 선교회 센타 지붕을 철 판넬로 개량하고, 비바람이 치면 물이 흙 벽돌의 벽을 적셔 벽이 무너질 우려 때문에 앞에 치앙을 만들어 달고, 건물, 철대문 모두 70 년 전 영국통치 당시 것이라 철대문이 썩어 다시 만들어 달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건물옥상 철로 된 난간이 녹슬어 페인팅하고, 한인교회와 선교 센타 강의 때 사용하는 탁자들을 수리 페인팅해 주는 봉사도 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지인들이 한화 3,000만원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일을 1,000만원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당시를 회고한 배동석 대표회장의 다음 글을 보면 건축선교의 열매와 보람을 엿볼 수 있다:

“타고간 자동차가 마을에만 들어서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이 몰려와 반갑다고 다투어 악수를 요청하는 모습들이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집을 고쳐주고 전기시설 해주고 각종 서비스를 한다니까 마을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고,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어떤 이는 공동변소를 지어주는 것을 보고 ‘예수 아버지 선전 많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고마움에 도움 받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한다. 시멘트 바닥에 큰 쟁반 같은 그릇하나에 볶음밥과 닭고기로 소스를 만들어 한쪽 떠놓고 스푼도 없이 손으로 우물 주물 주물러서 먹는 음식이다. 때론 좀 잘사는 이웃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일하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다. 저녁엔 조금 피곤하지만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일터로 달려갑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를 도와 이런 밀거름선교 활동을 하는 팀을 처음 접한지라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일을 도와고요. 한인교회 학업으로 와있는 청년들이 와서 돕고요. 신학생들을 보내주어 도와주곤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맙다고 초청받아 식사 대접도 받고요. 저희들이 일해주는 팀과는 관계없는 선교사님들도 소식을 듣고 초청해서 대접을 받았습시다. 밀거름선교는 고달픈 일이 아니라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물론, 선교지의 사역이 항상 보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밀거름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다. 밀거름 선교회 대표회장의 회고를 다시 보자:

“때론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바가지를 씌우려고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업자에게 맡겨주어야 한다면 대금을 3곱을 요청하는 경우와, 꼭 자기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 인건비를 하루 일하고 다음날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수리를 요청한 한마을에 6가호 대부분 지붕이 옛날 흙기와로 되어 있어서 같은 기와를 구할 수 없어 제일 많이 허물어진 한 가정만 지붕을 스텐트 지붕으로 개량하고 거기서 나온 현 기와로 다른 집들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집을 새집으로 만들어 놓으니 모두 다 스텐트 지붕으로 개량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요청이라 판단하고 첫째 시간이 부족하고 둘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중에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한집만 스텐트지붕으로 개량해주고 다른 집들은 계획된 일들을 마치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못해 주고 온 그 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밀거름 선교사역을 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가난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살롬을 맛보여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금 밀거름 선교회 배동석 장로님의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자:

“영국통치 당시 천민들 집들은 최소 70년 전에 지어진 5평정도의 집에 네 세대 또는 다섯 세대가 함께 살고 있고, 염소와 소들도 전 재산이기에 한방에 블록으로 7~80cm 높이로 칸을 지르고 같이 자는데,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군데 군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집안은 물바다가 됩니다.

전기는 정부 전기를 몰래 전주에 걸어 사용하다 들키면 되려 큰소리 질러 쫓아 보냅니다. 땀감은 나무를 주워 방구석에서 불을 피워 온 집안이 끄으럼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고쳐주려면 한 집당 20만원이면 깨끗하게 새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원 20만원을 봉투에 넣어 맛있는 것 사먹으라고 주신 것 어떻게 그 귀한 돈을 맛있는 것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가는 중 비행기 옆 좌석에 중년부인이 조권사(배동석 장로 부인)와 어디에 무슨 일 하러 가느냐고 묻고 대화 중에 그 부인은 천주교 신자였고 자녀교육 문제로 방콕에 가는 중인데 10만원을 주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주었습니다. 저희 사업장 앞집 금방에서도 이분은 불교신자인데 불쌍한 아이들 맛있는 것 사주라고 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이 보람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 태풍 재난 복구 사역

(2013년 4월 24일~7월 24일)

2013년 11월에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건물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날아가고, 과수나무들이 뿌리 채 뽑혀 넘어지고 인명 피해도 상당하였다. 약 5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25일 피해지역들이 많이 복구 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건물들이 앙상한 콘크리트 벽만 서있고 철 파이프로 된 지붕재들은 종이 짝처럼 휘고 꾸부러져 있는 모습이였다.

교회와 사택과 선교 센타들은 미국 선교부, 한국 선교사들의 소속교단 선교부 지원으로 많이 복구가 된 편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력이 없어서 복구하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학교, 시장건물, 체육관 등 공공건물들 중에서 아직 복구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이 없어 손을 댈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김재용 선교사님의 호산나 센타를 중심으로 한 건축선교사역은, 호산나 신학교 교수동 및 사택 2동에 마루로 된 방과 바닥이 다 썩어가고 있어서 콘크리트 슬라브로 바꾸고, 문들을 고쳐 달고,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천정 공사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호산나신학교 기숙사 2동 화장실 샤워장 문과 수도 파이프라인, 2층에도 물이 갈수 있도록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 펌핑 모터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고, 지붕을 약 10평가량 다시 보수하는 사역을 하였다. 호산나 보토탄교회 천정공사도 추가로 하였다.

표석구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는 장로교신학교 기숙사가 사람이 기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어서 리모델링을 하였다. 표선교사님이 세운 사라지역 서머나교회 약40평 건물 천정공사를 하였고, 정창영 선교사님의 GMI 교회들과 센타들, 빙가원 새마을 훈련원 센타 천정공사, 문들을 고치고 새로 주문하여 달고, 전기가설, 수도 파이프라인, 폭우로 침하되고 무너진 교회기초 언덕 및 교회 바닥, 교회 화장실 및 식당 지붕공사, 화장실 문 공사, 전기공사를 하였다.

또한 분들란 새마을 훈련원 게스트하우스 지붕공사, 내부 천정공사, 칸막이벽 공사, 문수리를 하였다. 모토교회 유치원 건물 지붕공사, 센타 룸 천정공사, 모토교회 문들 수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 문이 없어서 제작하여 설치해 주고, 전기가설 공사도 하였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공구 기계들을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무게와 부피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다리, 콤푸레샤, 타카 대 소 2개, 타카 편들, 콤푸 호수, 캣트기 등을 구입 사용후 호산나 센타에 기술 전수와 함께 기기들을 기증 하였다.

이런 모든 선교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몇 분의 선교회 회원들과 전문인들이 두어 차례 오셔서 협력해 주시므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1차로 대표회장 부부와 김진옥(의령) 회원님과 할 일들을 확정하고 준비하고, 2차로 김종길(진도) 회원과 김영진(안산) 회원, 전문인 두 분이 오셔서 일부 큰 일들을 해주고 가고, 3차로

박영호 장로님이 김재용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고 고향 후배와 정창영 선교사님 전에 CE(청장년면례회) 활동을 같이 하던 분이라도 오겠다고 와서 합류 하였다. 이들은 정창영 목사님의 빙가원 공사와 김재용 선교사님의 신학교와 교회공사를 협력하고 돌아갔다.

김진옥 회원은 옥카리노를 호산나교회와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전수하고 악기를 30여점 기증하였다. 김영진 회원이 서머나교회 공사중 교회 멤버들이 열심히 도우는 모습에 감사하여 교인들 50여명을 바닷가 경치 좋은 호텔식당으로 초청 저녁식사를 대접 하였는데 너무 좋아하였다.

고신대학 이정기 교수님과 태권도 선교학과 태권도 시범선교로 30여명이 6월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호산나 센타에 왔다. 학교, 교회 곳곳에 매일 1~2회 태권도 시범공연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었다.

서머나교회 공사중 김영진 회원이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분들란 센타 공사중 사다리가 미끌어져 대표회장이 팔을 다쳤고, 또 호산나신학교 사택 천정 공사중 끈이 풀려 떨어져 어깨를 다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김영진 회원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을 못할까 걱정 되었다. 많이 치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축선교 사역들을 하면서 각 교회 멤버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는 목수라해도 타카 및 여러 장비들을 보지도 못한 장비들 이라 밀거름 건축선교팀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로 하니 빠르고 재미 있으니까 서로 장비를 들고 일해 보려고 한다. 그들에게 빨리 여러 건축기술을 전수하고, 기계 다루는 법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기술전수의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곳은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가득가득 하다. 교육열도 매우 높은 것 같다.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 앞날이 밝아 보인다. 한국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밀거름 선교회 팀들이 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저들이 어려울 때 살롬의 관점에서 나눔을 가질 때 저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자라고, 저들로 하여금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훗날 저들이 지구촌을 향해 살롬의 사역자들이 될 것이다.

김재용 선교사와 정창영 선교사는 이런 관점에서 밀거름 선교회는 현재 선교지에 꼭 필요한 너무나도 좋은 선교단체라고 호평을 하고 감사를 표시한다.

필리핀 빈민촌 사역

필리핀 선교사역: 2017년 7월 10일 - 9월 30일

필리핀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 배동석 장로, 조금숙 권사, 김종길 집사, 원영숙 집사, 김영진 권사, 허은진 장로, 유해남 집사, 이창구 청년, 조대근 장로, 김성수 전총장(지도목사), 이상민 장로(살롬치과원장), 윤현주 목사(지도목사), 정병석 목사(지도목사)

(1) 빈민가 재건축 5가정(김성수 고신대 전 총장님 요청사업)

쓰레기 더미와 썩은 하수가 질퍽이는 시궁창 위에 대나무나 각목으로 지은 집들, 썩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집들을 헐고 5가정을 위해 새로운 집들을 건축하였다. 처음엔 가옥 10채를 지을 계획으로 약속을 하였는데 가운데 집이 반대하여 그 집쪽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반대한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집 때문에 새집을 짓지 못한 다른 집 주인들은 모두 그 사람을 향해 원성을 터트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빈민가들을 위해서는 다음해 2월에 다시 와서 집을 지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약 15도 기울어 우리 밀거름 건축선교팀이 다시 올 때까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집들이다.

살롬교회 부근 빈민가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선교도 겸하였다. 김종길 전문인 회원 부인 원영숙 집사님이 어린이 전문가여서 금번 같이 동참하여 빈민가 아이들을 선교하는 일도 하였다. 전체 건축비는 총 10,744,750원이 소요되었다.

(2) 살롬교회 집회 (강사: 정병석목사, 별교중앙교회, 진도밀거름 선교회 지도목사)

교회주위 성도들의 가정 5가정을 살롬교회 이름으로 건축했고, 또 다음해 2월을 약속 했으며, 지금까지 김성수 전 총장님이 살롬교회를 지원하며 그 지역을

돌아보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이모 저모로 많이 지원해왔으므로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은혜넘치는 시간들이었다.

첫날 집회는 정목사님이 준비해온 치약과 칫솔 등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고, 둘째날에는 전체 교인들에게 저녁식사 한끼 대접하려 70만원을 준비해 온 돈을 사용하려 했는데, 김성수총장님이 밥은 한끼 먹고나면 끝나지만 쌀을 구입해서 나눠주면 1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여 SM마트에서 쌀을 사서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첫날은 박원제 선교사님이, 둘째날은 김성수 총장님이 통역의 수고를 해 주셨다.

(3) 룩수힌교회 건축(이철우 선교사, 따가이파이 알폰소 룩수힌)

룩수힌교회는 동래제일교회가 예산 100%를 후원하여 세운 교회다. 이철우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현지교회를 세워 직접목회를 하는 선교사다. 특별히 청년 어린이 위주로 특별교육을 하며, 일반 성도예배는 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규모가 80여평 되는 제법 규모가 있는 오픈교회로 지어졌는데 마을에 오픈하여 결혼식도 마을행사도 여기서 하고 있다. 교회 뒤쪽에 작은 산동네가 있는데 길도 없어 오솔길 비탈에 대나무로, 천막으로 지은 집들이 13가정 있는데, 이들은 집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불량자들을 수용하여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 준 곳이다. 이들을 직업 훈련도 시키고 두부공장을 만들어주어 두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

교회건축을 위해서 공휴일이면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학생 청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헌신한다. 신축교회가 도로에서 약200m 골목 안에 위치해 건축 자재들을 이동하는데 이고지고 들고 나르는데 큰 몫을 감당해 주었다. 교회건축, 센타건립, 교량정비 및 도로 정비, 화장실 건립 공사 등을 포함하여 함께 4500만원이 소요되었다.

(4) 동래제일선교센타 40여평 건립(따가이파이 알폰소 룩수힌)

동래제일교회에서 요청한사업으로, 룩수힌 교회 부지 윗부분에는 교회당을,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선교 센타를 건립 하는 사역이었다. 밑거름 선교회 전문인

회원 팀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교회와 센타 건축 사역을 동시에 착공하여 완공하였다.

(5) 룩수힌 교량정비 및 교회 입구쪽 도로 확장 포장(룩수힌교회)

교량이 한쪽으로 기울어(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건설을 그렇게 한 것임) 한쪽을 높여 교회입구 도로와 균형을 맞추는 작업과, 교회까지 연결된 도로가 비가 오면 미끄러워 조금 넓혀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6) 교회 화장실 건립 (룩수힌교회)

계획에 없던 일들이었지만, 연결된 사무실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교회는 큰데 화장실이 없고 해서 이선교사님이 교량과 도로 포장 공사 외에 화장실 공사해 달라고 요청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음을 보고 공사를 하였다. 교회와 센타 건립예산이 4,500만원 소요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이야기 했지만 이루어 내었다. 1천만원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남은 3,500만원으로 계획에도 없던 일들까지 할 수 있었다. 화장실규모 7.5평 남녀 화장실 4칸으로 타일까지 깔아 좋은 환경으로 건립 되었다.

(7) 룩수힌교회 뒷산마을 전기개설, 수도개설, 마을 들어가는 입구 길 포장

비만 오면 미끄러워 다니기 어려운 길들을 넓혀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갈 곳 없는 빈민들을 수용하여 두부공장을 만들어 주는 등 생활 지도와 함께, 13가정을 모두 교회 나오게 한 새 마을이다. 전기, 수도가 없어 밤이면 암흑이요 물도 없어 아랫마을에서 한 동이씩 길러다 사는 마을이다. 그런데 이제 밀거름 선교회의 봉사로 인해서 전기를 개설하고, 수도가 들어가게 되고, 마을까지 도로가 포장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과 함께 생활환경까지 개선되는 살롬의 사역이다.

(8) 마을회관 및 선교센타 건립(18.9평)

이 건물은 나중 늦게 확정 되어 귀국 무렵에 많이 바빴던 사역이다. 한 성도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바친 헌금인데 필리핀 법규정이 바뀌어서 지하수 개발이

어렵게 되어 목적헌금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어 돌려 드리려고 할 때 선교지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와서 전기, 수도, 길, 센타건립, 새 교회 단상 타일 공사, 강대상, 예산이 없어 중단된 훈련 센타등 1,500만원의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많은 뜻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며, 길을 넓히는 일을 같이 도왔다.

(9) 헌당 예배(강사 윤현주 목사 본회 지도목사)

동래제일교회의 후원으로 밀거름 선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당과 선교센타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기위해 목사님 외 10명의 성도들이 와서 록수헌 교회 성도들과 지방 유지들 400여명을 초청해 집회를 하였다.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줄리비 도시락과 줄리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어린아이들과 모든 모인사람들의 환성이 일었다.

신축교회 음향시설과 의자300개를 기증하고, 선풍기를 교회 곳곳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센타에는 침대, 의자, 선풍기, 냉장고 등 필요한 기물들을 구입 비치 하였다.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회에 윤현주 목사님과 박외림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강의하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10) 사랑하는 교회 건축(서명철 선교사)(따가아따이실랑 지역)

전문인회원 김종길 집사, 원영숙 집사, 김영진 권사 귀국일이 임박했기에 미리 세분을 파송하여 귀국 전날까지 중요한 교회 골격을 짓고, 남은 부분은 벽 쌓고 미장하고 바닥하는 일들은 서명철 선교사님께 위임하여 현지 일꾼들을 활용하여 건축했다. 건축비는 1200만원이 소요되었다.

필리핀 할랑 빈민가 주택 개량 사업

2018년 1월 11일 ~ 2월 9일

필리핀 안티폴로 할랑가는 절대적인 빈곤층의 집결지로서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곳이다. 생활폐수가 머무는 곳으로, 비가오면 1m가량 물이차고 썩은 오폐수 강이 되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워낙 가난해서 써다버린 각목들 주워 모아 집을지어 사는 곳인데, 1평이면 10여명의 가족이 사는 곳이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하는 중 1m를 파도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 또 파낸 웅덩이엔 썩은 오폐수가 가득하였다. 이런 곳에 밀거름 선교회는 특수 공법을 사용하여 가옥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이런 건축사역으로 인해서 15가족 70명의 주거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넓이490cmx길이800cm=약12평; 넓이430cmx길이1080cm=약14평; 넓이700cmx길이1002cm=약21평). 그리고 교인들 주택3동을 함께 잘 건축하여 복음의 밀거름을 깔았다. 한 가정은 1층 슬라브가 내려앉아 공사해 주었고, 건축 중인 옆 건물(성도가정)의 방 한칸 슬라브공사를 해주었다.

한편, 원영숙 집사님을 중심으로 조금숙 권사, 방명숙 권사, 권혜자 권사 4분이 어린이 전도를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어린이 100명을 모으는 것은 너무 쉬워서 복음의 황금 어장과 같다. 문제는 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서 김성수 총장님, 김철웅 목사님(마산회원), 김종철 목사님(고성제일)이 밀거름 선교회가 뿌려놓은 밀거름 위에 말씀 집회를 하고 영혼을 수확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김성수 목사님(고신대 총장), 고창엽 목사님(지구촌 한인교회), 레비 목사님(현지선교교회 관리)들의 주선으로 가옥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후 헌당예배는 김성수 목사님, 김종철 목사님(고성제일), 레비 목사님(현지목회자), 이광용 장로님(바나바선교회 회장, 부경ENG사장), 김00권사님, 박승호장로님 부인 이은숙 권사님 외 후원자 여러분들 참여한 가운데 드렸다. 김영진 권사님은 지난번 밀거름 선교회가 건축한 ‘사랑하는 교회’ (서명철선교사님)에 멀티미디어가 없어 대형모니터를 한국서 구입하여 설치 하였다.

필리핀 빈민가인 할랑 지역 건축선교 사역의 경비는 모두가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는데, 김성수 총장님을 통하여 마산회원교회, 고성제일교회, 구미남교회, 이광용 장로님(바나바선교회, 부경ENG사장)의 여러 후원자들이 2천3백만원을 후원하였고, 밀거름 선교회(부산)가 5백만원을 후원하였으며 배동석 장로가 1백만원을 후원하여 총 2천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밀거름 선교회의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필리핀 동대교회: 2018. 4. 9 -2018.5.15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 부근 네이오목사, 토토(Toto) 목사가 시무하는 라이트하우스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다. 건물은 67평 (1100cm x 2000cm) 마닐라 지구촌한인교회 고창업목사와 김성수 전 고신대 총장의 요청으로 밀결음선교회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이트하우스 교회는 성도 200여명이 출석하고 있지만, 현지인 건축자가 건축 중 기초공사와 외벽만 쌓고 공사가 중단되어 예배 처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인데 밀거름 선교회의 건축사역을 통해 교회당을 완공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필리핀 안티폴로시
(2018년 8월 20일-9월 18일)**

필리핀 안티폴로시 할랑지역 빈민성도 주택 건축 및 어린이 선교를 위한 살롬교회 옥상 선교원 건축 사역을 실시했다. 밀거름 선교회 지도목사인 고신대 전 김성수총장의 요청사업으로, 배동석 장로, 허은진 장로, 김종길 집사, 조금숙 권사, 김영술 청년 등 5명이 사역지로 파송되어 1개월 기간 동안 선교원 40평 (오픈건물), 빈민 성도 주택 2채(각 12평)을 건축한 사역이다.

이 지역은 특히 생활폐수 화장실물이 그대로 흘러나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을 생활 쓰레기가 어느 깊이까지인지 알 수 없는 하수구 같은 지역에 대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세우고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 마저도 썩어 넘어져 가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작은 집에 7~8명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그래도 항상 웃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살롬교회 주일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귀여운 4자매들의 집을 지어주고, 또 이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선교원을 무료로 운영하는 공간을 40여평 건축해 주는 선교사역이었다.

**필리핀 안티폴로
(2019년 9월 16일~10월 2일)**

김성수목사의 요청 사업으로, 필리핀 안티폴로 CCC간사 레비목사 교회 지붕공사와 성도들의 주택 2채를 건축하는 사역이었다.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 지붕공사는 예산 300만원의 재정을 고성제일교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진도제일교회의 220만원 후원으로 대나무집으로 지어 썩어 무너져 가는 주택 개량 및 신축을 하였고, 밀거름 선교회 250만원 재원을 마련해 개울 옆 언덕 집 증축 공사를 하였고, 미국 늘푸른교회 허대영, 제니 집사님 부부의 후원으로 40만원 예산의 개울 다리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필리핀 민도르

(2020년 1월 28일 - 2월 28일)

필리핀 민도르의 태풍 재난지역 복구 사역을 하였다. 필리핀 민도르 지역은 필리핀의 4,200개 섬들 중에서 10번째로 큰 섬인데, 한국 제주도의 2.5배 규모이며, 100만 명이 거주하는 섬이다. 이 섬에는 스페인 지배당시 원부족이었던 망안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망안족들을 위한 선교에 한평생을 바쳐 헌신한 타이거 박 이라고 불리는 박운서 장로가 쓴 책 “네가 가라!” 는 책을 보면, 박운서 장로는 “내 양을 먹이라” 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지중의 오지인 필리핀 민도르섬의 원주민 망안족 속으로 들어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헌신한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박운서 장로는 망안족들을 위해 “모리아 선교 자립재단”을 만들어 선교센타를 세우고, 특히 넓은 평야 18헥타르를 매입하여 개간하고 쌀농사를 지어 여기서 생산한 쌀을 망안족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교육하고 교회를 세워 선교활동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망안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박운서 장로님은 2019년6월에 74세로 천국으로 가셨다. 현재는 아들이 사역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난 12월 25일에 불어 닥친 태풍재난으로 19개 교회들 중 5개교회가 완파되고, 그 외 교회들은 반파되고, 교회 부속 사택들도 거의 파손되었다. 잠잘 곳이 없고 예배 처소가 없어서 나무 그늘진 곳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전도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한다.

망안족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 후원해 오던 부산 신흥교회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김성수 전 고신대 총장으로부터 밀거름 선교회를 소개받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역의 접수순서 보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2020년 1월 28일 인도 벵갈로르 한센 환자촌 교회와 또 다른 건축 중 예산이 없어

중단된 교회 완공, 그리고 고아원 2층 침대 20개를 만들어야 할 사역을 뒤로 미루고, 김정구 선교사님께 급한 사정을 말씀드려 쾌히 승락해 주셔서 밀거름 선교회가 망안죽을 위해 가게 되었다.

첫째 주간에는 태풍으로 완파된 5개 교회들 중 휘낭오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옮길 길이 없었다. 주일예배를 휘낭오에서 드리려고 가는 길은 택시와 오토바이를 타고 길인데, 도중에는 길이 없는 곳이 있어서 산으로, 또 하천을 건너고 외나무다리를 아슬아슬 하게 교회에 도착 했으나 예배에 지각을 할 정도였다.

이어서 둘째 주간부터는 모리아 커뮤니티 처치의 전기 공사, 따꾸탄 교회의 사택 건축, 산시드로 교회 건축 및 전기공급을 위한 태양광 공사, 카부카우 교회와 알리망우 교회를 건축 공사를 하였다. 이 두 교회 건축시에는 현지 교인들에게 벽돌쌓기 기술을 가르쳐서 함께 돕도록 배려하였다.

그 다음에는 카비테에 소재하고 있는 농아인 신학교 건물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사역을 하였다. 농아인 신학교에서는 역시 농아인인 강승호 선교사가 전 세계 농아인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신흥교회 황만선 목사가 농아인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은퇴금으로 도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신학교 건물에는 창문이 없어서 우기철에 비가 오기만 하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 달아주고, 강의실에 선풍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주었다. 농아인 신학교의 대문도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주차장에 그늘 막을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오브폴로잉 크리스찬 학교의 유치원 두 교실을 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캄보디아 사역

2019년 7월 2일~8월 2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PhumTakrey 지역에서 안산 주향한교회 윤건수 목사님이 요청한 사업인데, 교회(Christ Mission Church) 건물 30평, 선교원 30평, 화장실 및 휴게소 15평, 총 75평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 캄보디아 사역에 참여한 대원은 배동석, 조금숙, 김종길, 김영진, 박승옥 등 5명이다.

예산은 3천만원(주향한교회 2천5백만+밀거름 선교회 5백만원)의 선교프로젝트다. 달러 환율이 많이 비쌀 때 외화를 교환하였고, 우기철에 바로 복토한 땅이라 기초공사에 경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할 수 있었던 사역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개입되지 않은 선교지라 통역 및 자재구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열악했다. 사역 전문인들 중 한명이 땀기열에 걸려 씨엠립으로 잠깐 후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후원자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Frontier Ecclesia Mission (FEM 선교회)

선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울은 파스 로마나(Pax Romana)¹⁸⁰ 시대에 건설한 도로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위해 통일한 언어를 전도에 잘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파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이다. 현재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영어는 로마 시대의 라틴어처럼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대신 항공을 통하여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 하고 있고, 영어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¹⁸¹는 전세계 상류층¹⁸²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이다. 실리콘 밸리의 지리적 위치는 샌

¹⁸⁰ 파스 로마나(Pax Romana,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란, 로마 제국의 전성기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BC 27~AD 14)부터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161~180)까지 대략 200년간 로마 제국의 지배를 통해 지중해 세계가 평화를 누렸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¹⁸¹ ‘Silicon Valley’라는 명칭은 팔로 알토 지역의 반도체 관련 주간 타블로이드 신문 Microelectric News 의 Mr. Don Hoefler가 1971년 기사에서 최초 사용 하였고, 지역에 실리콘 칩 제조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 붙여졌다. 현재는 온갖 종류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있다. 실리콘 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1인당 특허수, 엔지니어의 비율, 모험자본 투자등의 면에서 미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하이테크 경제의 성공에 힘입어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남쪽 83km(50mile)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산타 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중심에 위치한 산 호세(San Jose)를 중심으로 인근 산 마테오(San Mateo), 알라메다(Alameda), 그리고 산타 크루즈(Santa Cruz)의 부분 지역을 포함하며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다.

인종별 인구분포의 경우 2013 년 미국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 벨리 전체 대비 백인 39%, 아시안 29%, 히스패닉 25%, 흑인 3%, 혼혈 4%로써 미국 전체에서 소수인종 비율이 가장 많고 아시안 계의 경우 중국인(8.6%), 베트남인(7.1%), 인도인(6.6%), 필리핀인(1.6%), 한국인(1.6%), 일본인(1.4%) 및 기타(1.9%)로 구분되고 있으며 170 개의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¹⁸³

실리콘 벨리는 전 세계의 우수인력들이 모여들고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여러 인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기술 교류와 함께 문화교류가 어우러져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조 해내고 있고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살기 좋은 이민 사회가 실리콘 벨리의 사회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연령

¹⁸² 1)상류층은 글자 그대로 ‘사회 지도층’ 이라야 한다. 과거의 상류층은 권력과 부를 가지면 상류층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류층에 대한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 달라졌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상류층은 돈과 명예,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이를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사람 이다. 상류층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수치화가 가능한 부(富)를 기준으로 상위 몇%를 가릴 수는 있다.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이 발간한 ‘세계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는 5만여 명이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약 0.5%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정도라고 보면 그들의 재산 규모는 40억원이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자, 즉 상류층은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리치(Rich)’라는 잡지는 상류층의 범위를 이보다 훨씬 좁게 잡았다. 최소한 현금 10억원, 부동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류층의 요건에는 직업, 가문, 명예, 문화적 소양, 책임의식, 재산 등 외적인 다양한 자질들이 포함된다.

2)현대사회에서 상류층(上流層)은 주로 부(富), 권력(權力), 위신(威信) 등 가치서열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사회적 특권집단이다. 대자본가, 경영자, 장성, 고급관리,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개 이층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명문 출신이기가 쉽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며, 생활환경이 좋고 교양, 예의와 문화를 중시한다. 이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은 보수적이며 전통을 중시한다. 그러나 단시일에 상류계층으로 상승한 사람들은 상류층 특유의 행동양식, 전통을 가지지 못한 대신에 소비형태에서 과시적 소비를 하여 의도적으로 상류층의 성원임을 돋보이게 하고 타인의 선망을 받으려 한다. 특히 이들 상류층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물질적 재화(財貨)보다 정신적, 미적, 지적 대상을 더욱 고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므로써 그들의 높은 위치를 과시하려 할 때 그것은 유한계급이 된다.

Accessed February 1, 2020. <https://ko.wikipedia.org/wiki/>

¹⁸³ Kotra, “실리콘 벨리 출장 자료” 2014년-1. Accessed February 1, 2020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1919>

대로는 25 세에서 44 세 사이의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구가 골프등 여러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고 있다.

필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한 경험이 많다. 그러나 현지에서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고 또한 만나더라도 언어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전도 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가주 실리콘 벨리(Northern California Silicon Valley)에는 각나라 상류층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 다니지 않아도 건축 일로 만난 사람들을 일을 가르치며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양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검사, 의사, 장관, 서기관, 교환 교수, 상류층 자녀들, 회사 간부 등 상류층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이곳의 일반적인 건축 가격을 준수하지만 작업이 끝나면 Lifetime Warranty 를 손님에게 주고 친구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건축은 특성상 크고 작은 일이 집안에 항상 일어나게 되어있으므로 관계로 평생 유지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것을 내 언행과 행동, 모습을 보고 스스로 알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며 말을 건네온다. 나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많은 물질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관계는 평생 가기에 시간과 물질은 구애받지 않는다.

창립 목적

FEM 선교회는 창립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EM은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FEM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롬15:20) 세계 복음화 전략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순회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 선교

선교지 성전 건축 및 보수: 교회가 선교의 열정과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선교의 전문성이 없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FEM은 현지에 성전 건축이 필요한 곳에 설계, 시공, 감독 등의 인력과 기술 지원한다. 특별히 선교사와

현지 교역자의 사택을 수리해 주고, 교회당과 기타 건축선교사 필요한 교회에 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교회 개척과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건축을 통한 선교와 연계하여 FEM은 현지인 교역자와 신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적정기술 훈련을 통해 복음전파 사역을 이루어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건축선교는 제3세계 혹은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에게 접촉하기가 용이하다. 건축사역을 통해 미접촉 종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선교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국내 선교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산호세에 본부를 두고 있는 FEM은 미국 내에서도 미자립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원주민 및 기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와 선교관을 연계하여 교회당 및 선교관 건물 보수 및 전도 훈련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 건축선교에 관심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교회에 건축사역을 통한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전도훈련등을 통해 협력사역을 진행한다. 가정을 선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인들의 가정과 연계하여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부속건물 등을 선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로 선교관 건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가정집 건축과 수리 등을 통한 원주민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체계적인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FEM은 원주민교회와 가정집 수리를 통한 선교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서, 상담 및 의료선교 그리고 골프와 태권도 등의 스포츠 선교를 병행하여 원주민 선교를 확대해 나가려 한다. FEM의 사업의 목적과 계획은 정관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정관은 부록에 첨부되어있다.

FEM 사역 계획

필자는 1999년부터 교회를 통한 건축선교(멕시코, 나바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베트남,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니제르)에 참여하였다. 교회가 건축선교의 한계를 느끼며 중단하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건축선교에 관심있는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멕시코, 나바호,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건축선교를 해오고 있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2020년 5월에 주정부(California Non Profit Organization)에 “Frontier Ecclesia Mission” 선교회를 설립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 동안 사역을 경험으로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래 사역 계획은 현재 COVID 19 로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진행하고 계획 중이다.

사역내용, 계획

페루 아마존 나우타 지역

페루 아마존 나우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원강 선교사와 협력하여 건축과 수리가 필요한 건물 보수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코비드-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마존 지역을 위해 양장규 목사가 헌금한 \$2,000 로 시작되었다.

멕시코 까말루 믿음교회 신학교 지붕공사

까말루 지역 믿음의 교회 호세(Jose)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당 신학교 건물의 지붕 공사를 2020 년 11 월 9 일 부터 13 일 까지 하였다 . 정광록 집사가 헌금한 \$3,800 불로 이 사역을 할수 있게 되었다. 호세 목사는 까말루에서 태어나 민우석선교사가 운영하는 티화나의 신학교(3 년)를 졸업한(46 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곳에서 신학교 분교를 운영하면서 4 년째 공사중이다. 까말루는 티화나에서 남쪽으로 차로 5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다. 목수인 호세 목사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로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지붕 공사는 미국 공법으로 하기에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FEM 선교회가 협력하여 호세 목사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기술자가 되고 일거리도 많아질 것이 확실하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붕 공사를 할 건물은 넓이가 20 피트,길이가 40 피트이고, 높이는 12 피트 정도의 2 층으로 되어있다. 사역은 지붕(Roofing) 공사 기술 전수 및 같이 일하는 인부들의 복음 전파 이다. 일을 하는 4 일 동안 나에게 붙여진 현지인에게 미국 건축

기술 과 성경을 통한 복음전도를 하였다. 지붕공사를 완공을 하여 비가 와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FEM 의 전문인들의 참여로 이루어 졌고, 이동경비 및 식비는 선교팀 개인이 전액 부담 한다. 산호세(San Jose)에서 까말루까지 거리는 왕복 1,600 마일 정도 이다.

부록에 김승년 장로가 설계한 까말루 믿음의 교회 지붕공사 도면과 공사 사진이 있다.

멕시코 티후아나 교아원 화장실 공사

민우석 선교사가 1999 년부터 21 년째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교아원 건물과 화장실 공사를 2020 년 11 월 6 일부터 9 일 까지 하였다.

넓이는 가로 20 피트, 세로 15 피트 높이 10 피트의 3 층 건물이다. 화장실의 타일, 세면대, 샤워시설을 공사 하였다. 이 사역을 위해 양장규 박사가 \$2,000 을 헌금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로 이루어진 사역 이고 김용배 집사님의 코로나 예방약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사역이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이 생긴다.

콜롬비아 아마존 니아 테미티 마을 성전 건축

아마존 에서 사역 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 과 협력으로 콜롬비아 니아 테미티 인디오 원주민 마을에 성전 건축을 위해 현지 인디오 원주민과 시청 관계자와 논의 중이며(2019 년 10 월 부터 추진중), 현지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부로부터 교회허가를 받도록 수속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처음 이고 20M X 40M 정도의 교회를 2021 년 3 월경에 세울 것이며, 주중에는 학교와 주민 센타를 운영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될것이다. 부록에 예배당 도면이 있다.

국내선교

현재 코로나19 로 전 세계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선교는 멈춰서는 안된다. 2020년 8월24일 부터 8월26 일까지 Evangelia University(LA미주고신 대학교) 예배당 과 강의실 창문 공사 를 하였고, 바로 근처에 있는 21세기 선교관 공사를 8월26일부터 31일까지 21Century World Mission Center (21세기 선교관) 에서 옥조 공사,지붕공사, 외벽공사를 하였고,미국 원주민 이 사는 나바호국가 안에 Broken arrow church(Rev. Emery Jackson) 에헌금 \$500 을 하였다. 복음대 와 선교관 지원공사 요청 사진은 부록에 있다.

이 사역을 위해 FEM 회원으로 실제 건축사역에 참여하고 후원하시는 분 외에도 건축을 위한 금전적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할것이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안영호 장로,안경자 권사\$2,500/ 전남진 장로\$2,000/ 이웅찬 회장\$500 / 한일카펫 대표 \$300/김용배 집사 매월\$200, 년\$5,000 작정/양장규 목사 \$10,000 / 김승년 장로 매월\$500 ,년 \$10,000 작정/ 정광록 집사\$3,800 / 윤대진 목사 \$1,000 / 전세국 집사\$200 / Dr,Ann Kang \$500/계무영 집사 \$500 / 우연경 자매 \$460/박성호 목사 \$200/조용호 목사\$100/최정욱 집사\$300/조재규 집사 \$100/ 협력 교회로 산호세 한인장로 교회(박석현 목사 시무)에서 매월 \$300, 년3,600 / 임마누엘 장로교회(박성호 목사 시무)매월\$300,년\$3,600(2021년 1월부터) 할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헌금을 할것이며 이 헌금이 앞으로 교회가 없는곳에 성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씨앗재원 (Seed Money) 이 될것이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고찰해 본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의 중요성과 전략에 관한 논의를 요약해 보자.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선교의 중요성과 본질, 개혁주의 세계관과 선교의 관점, 특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살롬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문인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선교방법으로서 그 분명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선교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 선교의 상황으로 볼 때에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선교 전략이다.

건축선교의 외연(Extension)으로서 전문인 선교는 기독교 역사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선교전략이며, 로잔대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신학과 헨드릭 크래머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신학에서도 그 신학적 정당성이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인 선교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신학적 근거를 지닌 선교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인 선교, 특히 건축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들의 인식이 선교 지향적 마인드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세계는 지금 전문인 선교의 시대이다. 목회자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어 가는 이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선교 전략은 전문인 선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교전략이 보다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자만 참여하는 선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선교로서의 전환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인식변화와 거기에 합당한 선교 지향적 구조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선교현황을 조망해 볼 때,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시급히 요청되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평신도이건 목회자이건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선교이다.

-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단순히 현대 세계상황과 선교현황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대두되는 전략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관점,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당위적이며 보편적인 선교전략이다.

- 그리스도의 승천이후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선교전략이 되어야 한다.

- 역사 속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사들 역시 바울의 경우와 같이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복음사역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 자체가 선교사역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경우와는 달리 직업과 직업적 삶 자체가 선교였다. 건축선교 역시 사역 자체가 선교사역이다.

-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단순히 직업적 전문성이 선교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는 사역을 통해 일하는 자체가 선교이다.

-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적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로잔선언의 선교신학은 전문인 선교전략의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전문인 선교로서 건축선교 전략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 선교전략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선교전략이다.

- 로잔대회의 신학에 의하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따라서 건축선교의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선교이다.

- 교회의 파송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이런 면에서 건축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평신도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선교사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는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두 선교사이며, 따라서 그들이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선교사로의 차별성을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사실이 되지 못하며, 양자의 신분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건축선교사는 목사 선교사와 동일한 차원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 교회는 선교지향적 존재이며, 그 중심 주체는 모든 성도이다. 따라서 평신도는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체이다. 이 점에서 건축선교는 현대 선교의 충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전략이다.

참고 문헌 (REFERENCE CITED)

- 김성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개혁논총 제1집*, 2013.
-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김성재.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서울: 풀빛, 1990.
- 그랜드종합주식. *창세기*. 제자원: 성서아카데미, 1999.
- 노태식. “효율적 선교를 위한 선교기업의 정체성 및 비즈니스 선교 적용 전략.”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 데이빗 J,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랄프 윈터, 스티브 호돈, 한철호. *퍼스펙티브*. 경기도: 예수전도단, 2010.
- 맨 슈랙. *세계교회사*. 심창섭, 최은수역.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9.
- 문병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요체” *개혁논총* 27권10호, 2013.
- 박수암.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3.
-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4.
- 박인기. “평신도와 전문인 선교” Accessed June 09, 2020.
<http://cafe.daum.net/MyLoveChina/3Avt/69>
- 방동섭. *선교없이 교회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신경규. *미전도종족을 위한 현대 전문인 선교*. 부산: 현대출판사, 2015.
- _____. *현대전문인 선교*. 부산: 현대출판사, 2015.
- 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4.
- 안승오. *세계선교 역사 100장면*. 서울: 평단, 2010.
- 윤응진.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은준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이규환. “신식민주의 극복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김성재 편, 서울: 풀빛, 1990.

이현모. “만인선교사직론과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신학적 조명.” *복음과 실천* 18 Accessed June 09, 2020. <https://www.kbtus.ac.kr/profile/prof18.html>

이현정. *평신도 전문인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2010.

아서 더글라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정웅섭. “교회의 평화교육.”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김성재 편. 서울: 풀빛, 1990.

최바울. “텐트메이커선교사의 선교사역적 의미.” *텐트메이커 선교*, 펴내기편. 서울: 도서출판 펴내기, 1994.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평화교육과 민중교육* 김성재 편. 서울: 풀빛, 1990.

홍철희. “로잔 언약에 기초한 21세기 직장 선교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Baker, Dwight P. “William Carey and the Business Model for Mission,” *Overseas Ministries Studies Center Report*. June 2002, 8.5

Blauw, Johannes. “Roots for Cross-cultural Calling of the Laity,”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Y: McGraw-Hill, 1963.

Borreca, Richard. “Sugar Yields Sweet Deal for 'Big-Five' Firms,” *Honolulu Star-Bulletin*, July 12, 1999.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2015.

Brox, Norbert. *Zur Christlichen Mission in der Spätantike*. Basel, Switzerland: Editiones Herder, 1982.

Brynjolfson, Robert and Jonathan Lewis. *Integral Ministry Training*. 전인적 선교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변진석. 엄주현역. 서울: 한국 해외선교회, 2013.

Carey, William.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Leicester, England: Ann Ireland, 1792.

Car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Charles E, Van Engen. *Mission on the Way*. 미래의 선교신학. 박영환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12.

_____. *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Clyde L. Manschreck.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World*. 세계교회사. 심창섭. 최은수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9.

Danker, William J. *Profit for the Lord: Economic Activities in Moravian Missions and the Basel Mission Trading Company*, Grand Rapids, MI: Eerdmans, 1971.

Durant, Will. *Caesar and Chris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Dwight P, Baker. "William Carey and the Business Model for Mission," Overseas Ministries Studies Center report .(June 2002, 8.5)

Finnie, Kellsye. *William Carey*, 윌리엄 캐리, 김명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5.

Foltz, Richard C. *Religions of the Silk Road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Heinz Surer and Marco Gmür. *Business Power for God's Purpose*. Greng, Switzerland: Verlag für kulturbezogenen Gemeindebau, 1997.

Hamilton, Don. *Tentmakers Speak: Practical Advice from Over 400 Missionary Tentmakers*. Ventura, CA: Regal Books, 1987.

Kim , Chong Pae. “A Study on the Asian Cross-cultural Training Institute in Singapore,” D. Min.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Kane, J. Herbert.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s, 1976.

_____.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82.

Kraemer, Hendrik. *A Theology of the Laity*. 평신도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3*, 윤두혁 역. 기독교사(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M. R. Spindler. “The Missionary Movement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in *Missiology: An Ecumenical Introduction*, ed. F.J. Verstraelen, A. Camps, L. A. Hoedemaker, M. R. Spindler, (Grand Rapids: Eerdmans), 1995. “Mission Statement of C. Kersten and Co., N.V.” (Accessed July 1, 2020 <http://www.kersten.sr>.)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s: London), 1964.

_____.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공역,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9.

Owens, Howard. “Nestorian Merchant Missionaries and Today's Unreached People Groups,” eds., by Tom Steffen & Mike Barnett, *Business as Mission: From Impoverished to Empowered*, (Grand Rapids, MI: Wm.R. Eerdmans, 2015)

Pierson, Paul E. *The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선교학적 관점에서본 기독교 선교 운동사.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9.

Piper, John. *God is the Gospel. 하나님이 복음이다.* 전의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6.

_____.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5.

_____. *What Jesus Demands from the World.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의우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Spindler, Hoedemaker, M. R. (Grand Rapids: Eerdmans), 1995. "Mission Statement of C. Kersten and Co., N.V." Accessed July 1, 2020.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Lakes_Corporation

_____. "The Missionary Movement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in *Missiology: An Ecumenical Introduction*, ed. F.J. Verstraelen, A. Camps, L. A. Grand Rapids: Baker Books, 1976.

Sinclair B. Ferguson. David F. Wright. *아가페 신학사전.* 서울: 아가페, 1998.

Stevens, R. Paul. *Liberating the Laity.* 김승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Terry, John Mark. *The History of Missions in the Early Church in Missiology: An Introduction to the Foundations, History, and Strategies of World Mission*, ed. by Ebbie Smith and Justice Anders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Pb. 1998.

Tucker, Ruth A.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ographical of Christian Mission)*,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Verkuyle,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 by Dale Cooper. Grand Rapids, MI: Wm R. Eerdmans, 1978.

Wilson, J. Christy. *Today's Tentmakers*, Wheaton, IL: Tyndale, 1985.

- Winter, Ralph D. *Foundational Premises of Christian Movemrnts*. 기독교 문명 운동사. 임윤택역. 경기도: 예수 전도단, 2013.
-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William B. Eder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1983.
- Yamamori, Tetsunao. "Tent-Making Mission,"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A. Scott Moreau, ed. United Kingdom: Paternoster Pres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939-40.
- _____. *Penetrating Missions' Final Frontier: A New Strategy for Unreached Peopl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 Yamamori, Tetsunao and Kenneth A. Eldred, eds., *On Kingdom Business: Transforming Missions Through Entrepreneurial Strategies*.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3.

첨부분서 I. 밀거름 선교회 창립총회 순서

1부 예배인도: 이경칠 장로

묵상기도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다같이

기도-----김현웅 목사 (민락교회시무)

말씀----- “아름다운 밀거름” -----윤현주 목사(동래제일교회시무)

요한복음 12:24~25

축도-----윤현주 목사

2부 “밀거름 선교회” 창립총회

사회: 배동석 장로 (준비위원장)

창립취지 설명-----준비위원장

선교현지 선교사의 지역에 각종 전문인으로 구성된 협력선교사로 자비량 원칙으로 밀거름을 뿌리는 일을 하고 선교 협력목사 팀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영적인도와 선교방향에 대한 지도와 선교현지에 뿌려놓은 밀거름 위에 말씀의 씨앗을(집회) 뿌리는 일에 협력을 받아 선교협력 구성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파송하는 선교사(전회원)와 파송되는 선교사로 구분하여 전회원이 파송하는 선교사로 협력하고, 또 기도하는 회원으로, 또 뜻있는 회원을 회집하는 일과,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단기간 전문인 선교에 참여할 후발팀 파송을 도우는 일을 한다.

파송되는 팀은 현지의 숙식문제, 현지에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 필요한 자재와 도구 및 예산을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파악 진행을 하는 일로 구분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임원 및 지도위원 구성-----

사업계획-----

기타 안건-----

폐회 기도-----이원웅 장로

폐회

첨부분서 II. 밀거름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 명칭을 “밀거름 선교회” 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 본부는 대한민국 국내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다하고자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를 팀으로 구성하여 파송된 선교사의 지역 내 밀거름 선교단의 “달란트를 최대 활용하여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한 자비량 하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선교사의 선교관리 교회로 돌아 올수 있도록 밀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을 하여 현지 선교사가 가꾸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선교회원으로 가입하고 파송한 팀을 위하여 기도하는 회원, 파송 선교사를 위한 물질지원 회원, 현지의 밀거름을 위한 목적헌금을 하는 회원,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임기) 연령 제한 없음

제 3 장 조직

제6조(임원 및 임무) 본 선교회는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괄회장: 본 선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사업을 지휘 감독한다.

총무: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서기: 본 선교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문서를 보관한다.

회계(장부 1명, 현금 1명): 본 선교회의 금전출납 관한 사무와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훈련 및 지도원장: 훈련 및 지도원장은 목사로 하고 모든 회원을 지도및 훈련하고 또 비회원들을 교육하여 회원으로 영입하며 파송팀원 파송 전 재교육 하여 파송한다.

파송팀원 팀장: 현장에서의 사업, 예산, 진행을 팀원들과 현지 선교사와 논의결정 관리 감독 진행 한다.

파송팀 서기: 현지에서의 결의 및 진행을 기록 한다.

파송팀 회계: 현지에서의 금전 입 출납을 기록과 함께 전담한다.

단파송팀 임원은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전회원 회의에 보고 함으로 만료하고 다음 파송은 재조직후 임원을 정한다.

제7조(분과)

파송분과: 조직 하여 기도로 헌금으로 지원하며 본국에 남아 파송하는 일을 한다.

현지팀원분과: 파송되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 한다.

제 4 장 임원 선출과 임기

임원선출: 회원의 추천으로 거수로 다수로 정한다.

임원임기: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8조(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한다.

정기총회: 매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하되 파송팀원이 참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파송팀원이 파트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다음 파송계획 이전으로 정한다.

제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 한다.

제10조(월례회) 매월 1회 회집하여 현지 사항과 회계보고를 하고 기도회를 가진다. 파송 팀원은 현지에서 각종 보고와 계획을 하고 본회에 보고하고 또 기도회로 모인다.

제 6 장 재정

제11조(재정)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목적헌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파송경비) 파송에 대한 교통비 현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자비량한다

제13조(현지 선교비용) 회원의 자비량 원칙에서 각자의 헌금과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 7 장 사업계획

제14조 본 사업계획은 사전 기획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5조 본선교회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팀을 구성하여 파송 하는 일과,
2. 본국에서의 뜻있는 회원을 영입하여 기도하는 회원과, 파송헌금하는 회원과, 현지 목적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회원을 영입 활성화 한다.
3. 현지에서의 선교사와 논의하여 현지 상황을 확인 계획하되
 - 1) 선교 교회 세우는일(목적 헌금자의 대리건축 포함)
 - 2) 선교 센타 건립(뜻 있는 자의 협력) 건립 하는 일
 - 3) 집없는 가정의 집지어주기
 - 4) 영세가정 들의 집 고쳐주기(수리, 도배, 수도 모든 분야)
 - 5) 수도 시설 해주기
 - 6) 물이없는 취약한 곳에 우물 파 주기
 - 7) 목사 회원영입 현지선교사 선교지역교회에 부흥집회와 수종드는 일
 - 8) 일반회원 들의 현지선교사 지역교회에 간증집회
 - 9) 찬양인도 또는 특별찬양

10) 주일 낮예배 후 중식사 헌신하는 일

11) 현지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

팀원의 달란트를 따라 각종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일들을 한다.

제8장 선교사의 상벌

(본회원은 보내는 선교사 파송되는 선교사 통칭 선교사라 한다.)

제16조 본회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의 위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본회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본회의 원칙을 깨뜨린다거나 현지 선교사의 평가 하는 일을 금한다.

위의 어떤 행위나 언어로 선교사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자는 본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18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9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회를 고신 총회 선교부(KPM) 허임을 받아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

첨부분서 III. FRONTIRER ECCLESIA MISSION (FEM 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Frontier Ecclesia Mission”(이하 FEM)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FEM 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헌신된 성도들, 복음적 지역교회,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양육 훈련하며 그 교회가 자립하여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남겨진 과업완수에 동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성격)

① FEM 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개척모임이다.

② FEM 은 교회당(건물)이 필요한 선교지에 교회당(건물)을 세우고 그를 통해 교회(성도들의모임)가 세워져 가도록 돕는 모임이다.

③ FEM 은 교회(성도들의 모임)가 이미 세워졌지만 교회당(건물)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현지 성도나 현지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교회당(건물)을 세우는 모임이다.

제 4 조 (신조)

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오하며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② 하나님은 한 분 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영원히 존재함을 믿는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또한 그의 동정녀 탄생, 무죄하심, 기적을 행하심,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며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④ 인간은 타락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음을 믿는다.

⑤ 죄인된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함을 믿는다.

⑥ 성령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다.

⑦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며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음을 믿는다.

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⑨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 베푸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함을 믿는다.

⑩ 선교는 모든 신자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며 모든 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임을 믿는다.

제 5 조 (조직) FEM 은 총회 산하에 조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6 조 (소재지) FEM 은 미국에 두며 총회의 승인으로 각 지역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구분) FEM 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8 조 (자격)

① 정회원: FEM의 목적과 성격, 신조에 적극 찬동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친 개인, 단체나 교회로 한다.

② 준회원: FEM 가입 후 1년간은 준회원으로 활동하며, 1년 후 총회의 인준에 의해서 정회원이 된다. 단, 특별한 경우 정회원의 발의와 총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후원회원: FEM의 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후원하는 지역교회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FEM을 위해 기도와 헌금 및 기타 방법으로 후원한다.

제 10 조 (허입) 신입회원은 FEM의 목적과 성격, 신조에 동의하는 교회나 단체 및 개인 가운데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을 인준한다.

제 11 조 (탈퇴) 회원은 자의에 의해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는 탈퇴 사유의사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 12 조 (징계)

① 총회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회원의 발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 제명 등이 있다.

제 3 장 총회

제 13 조 (총회) 총회는 FEM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4 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결권은 개인, 단체 혹은 교회당 한 표로 행사한다.

제 15 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는 선교회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6 조 (의결) 총회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17 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선교회장 혹은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의장은 개회 15일 전까지 임시총회 소집을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회와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18 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항의 권한을 갖는다.

① FEM의 선교회장을 임명한다.

② 단기 선교팀 구성과 파송을 승인한다.

③ 타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승인한다.

④ FEM의 예결산과 사업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⑤ FEM의 신입회원 가입을 인준한다.

⑥ FEM의 상임위원장을 인준한다.

⑦ FEM의 재정감사를 임명한다.

⑧ FEM의 재정담당을 임명한다.

⑨ FEM의 해산, 합병을 결의한다.

제 19 조 (고문 및 지도위원) FEM은 필요에 따라 선교회장이나 정회원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재정감사) 총회가 임명한 2인의 감사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준으로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 (회의록)

① 총회 회의록은 총회가 임명한 서기에 의해 작성되고 의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보존된다.

② 1항의 회의록에 기록된 회의의 과정과 결과만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재정 및 재산

제 22 조 (재정의 확보)

① FEM의 재정담당은 재정의 투명성과 회원들의 재정적 이해를 위해 매 2년 선교회장 이외의 한 정회원이 선교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재정담당의 중임은 총회참석 정회원 전원의 승인을 받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② FEM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교회 헌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운용)

① FEM의 재정은 조직위원회의 지도 감독 하에 운용되며 FEM의 대회 재정결산은 별도로 총회에 보고한다.

② FEM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회가 임명한 재정감사의 감사를 받고 그 감사 소견을 준수한다.

제 24 조 (재산의 소유, 처분)

① FEM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총회가 지닌다.

② FEM의 해산, 분열, 내분 기타 분쟁이 생겨 재산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권은 총회가 지닌다.

③ 전항은 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의한다.

제5장 정관

제 25 조 (정관개정)

① 본 정관에 대한 개정안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한다.

② 전항의 개정안이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개정안대로 개정된다.

③ 제 1 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총회 중개의안을 발의하려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해석)

① 본 정관의 최종적 해석권은 총회가 지닌다.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정관 발의일 2020년 05월 18일

FEM 시행세칙

정관 운영과 관련되어 세부시행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을 경우 세부 시행세칙을 만들어 총회 출석인원 2/3 의 결의로 결정되거나 폐기 수정될 수 있다.

(FEM 정관은 김용배 집사가 만듦)

정회원 으로는 아래와 같다

- 1) Kwang Rock Chung(정광록 집사) (General Building Contractor#581321)
- 2) Yobel Kim(김승년 장로)(General Building Contractor#886263,
C10 Elec.40959)
- 3) Yong B, kim (김용배 집사)
- 4) Jang K, Yang (양장규 목자)
- 5) K,J Song(송경주 전도사)(General Building Contractor#1034576)
- 6) Sony Nam(남명호 선교사)(General Building Contractor #693813,926005)

FEM선교회 창립총회 순서

창립및 파송예배(2020년8월22일)

찬양 인도: 송경주 전도사(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예배인도: 김승년 장로(새소망 교회)

묵상기도

찬양: 부흥

기도: 윤대진 목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시무)

성경 봉독: 로마서11:29~36

말씀선포 :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여” 박성호 목사(임마누엘 장로교회시무)

축도 : 박성호 목사

파송식: 정광록, 남명호 회원(미주고신 신학교 와 21세기 선교관 공사)

(파송의 노래 후 모두 기도)

FRONTIER ECCLESIA MISSION선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의 원리인

“나는 늘 더 먼 곳으로 가서,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현대어 성경, 롬15:20).” 의 정신을 본받아 세계 복음화 전략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 개척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가 없는곳에 교회를개척 하며, 순회선교 를 목적으로 한다.(전세계 선교사의 85% 이상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사역 하고 있음)

FRONTIER ECCLESIA MISSION선교회는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전도 방법을 넘어서, 미접촉 종족이 있는 FRONTIER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총체적인 선교의 전략을 연구 하고 적용 할것이다.

첨부분서 IV. FEM 선교회 영문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of Frontier Ecclesia Mission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establish the Frontier Ecclesia Mission, and shall be effective from May 14, 2020.

Article 1: General rule

Section 1: Name

The name of this non-profit organization is Frontier Ecclesia Mission (FEM).

Section 2: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corporation, FEM, is:

1. to build churches and train local leaders in areas where there is no church together with evangelical churches, denominations, and mission agencies dedicated to the great commission given by Jesus Christ;
2. to help the churches become self-sustaining and capable of building another church; and
3. eventually to participate in finishing the remaining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Section 3: Beliefs

1. We believe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that it is truth without any mixture of error, and it is the Word of the only God with divine authority.
2. We believe in one God who exists eternally in three distinct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ese three are co-equal and are one God.
3. We believe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is co-equal with the Father. He is true God and true man. He was born of a virgin, lived a sinless human life, and offered Himself as the perfect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by dying on a cross. He rose from the dead, demonstrating His power over sin and death. He ascended into Heaven and will return to earth to reign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4. We believe mankind is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o reflect His character. He is the supreme object of God's creation. Yet all of mankind is by

nature marred with an attitude of disobedience toward God. The Bible calls this sin. This attitude separates mankind from God.

5. We believe salvation is a gift from God to mankind. One can never make up for their sin by self-improvement or good works. Only by trusting in Jesus Christ alone as God's offer of forgiveness, can one be saved from sin's penalty. Eternal life begins the moment one receives Jesus Christ into his life by faith
6. We believe the Holy Spirit is God, equal with the Father and the Son. He is present in the world to make people aware of their need for Jesus Christ. He lives in every Christian from the moment of salvation. He provides the Christian with power for living, understanding of spiritual truth, and guidance in doing what is right. The Christian seeks to live under His control daily.
7. We believe mankind was created to exist forever. One will either exist eternally separated from God by sin, or united with God through forgiveness and salvation. Heaven and Hell are places of eternal existence. To be separated from God is eternity in hell. To be permanently united with Him is eternal life, being with Him forever in Heaven
8. We believe the true church is composed of all persons who, through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have been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and are united together in the body of Christ, of which He is the Head.
9. We believe all believers must testify Jesus Chris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elieve that they must devote themselves to world evangelization.
10. We believe that the missional life should be essential for every believer or church, and that all mission movement should be related to the work for establishing the church of God.

Section 4: Organization

FEM may have an organizing committee, an executive committee, and a secretariat under the General Assembly if necessary.

Section 5: Office Location

The FEM is headquar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approval from the General Assembly, can have branches in each region or abroad.

Article 2: Members

Section 1: Types of members

FEM members are divided into regular members, associate members and sponsor members.

Section 2: Qualification of members

1. Regular members: Individuals, groups, or churches who fully agree with FEM's purpose and faith can be regular members after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2. Associate Members: After joining the FEM, an individual is considered an associate member. After the individual serves as associate member for one year and become full members by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ne year later. However, in special cases, an individual may become a regular member prior to the initial one-year term upon the initiative of a regular member and approval of all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3. Sponsor members: Individuals, groups, or churches who fully agree with FEM's purpose and faith can be regular members after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3: Right and Duty of members

1. Regular members have the right to vote and are qualified to become a candidate to serve FEM as the president of FEM, who shall b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Regular members have the duty to pay monthly membership fee.
2. Associate members have the right to speak at the General Assembly. Associate members have the duty to pay membership fee that is voluntarily agreed.
3. Sponsored members support FEM for prayer, offering, and other means voluntarily.

Section 4: Member Approval Process

FEM can have a new member who agrees with FEM's purposes and beliefs by a FEM member's initiative and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5: Secession of members

Members can withdraw at will, and upon secession, the reason for secession is submitted to the general meeting.

Section 6: Discipline of members

1. If a member does not faithfully fulfill his or her obligations as a member, or significantly impairs the dignity of FEM, the member may be disciplined by another member's initiative and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General Assembly.
2. Discipline may be in the form of reprimand, suspension, or dismissal.

Article 3: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1: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is FEM's top decision meeting.

Section 2: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regular members. A member (a person, a group, or a church) exercise a voting right.

Section 3: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 The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held in September or October of each year
2. The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convened by the president of the FEM.
3. The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only start when quorum is met.
4. Quorum for the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attendance of half of the total regular members of FEM.

Section 4: Resolution at the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Decisions at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re made by a two-thirds vote of the regular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Section 5: Non-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 A non-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 be called by the president of FEM or by more than ½ of the total regular members of FEM. The president of FEM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non-regular meeting 15 days prior to the meeting. A non-regular meeting is exempt from meeting quorum.
2. All resolutions of the non-regular meeting must be made by a two-thirds vote of the regular members present at the non-regular meeting.

Section 6: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has authority to do following things:

1. Elect the FEM president;
2. Approve of formation or sending of FEM's short-term mission teams;
3. Approve of FEM's corporation with other mission organizations;
4. Approve of FEM's budget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
5. Approve of FEM's new member;
6. Approve of FEM's financial auditor;
7. Approve of FEM's financial officer; and
8. Approve of FEM's dismissal or merging with other organization.

Section 7: Advisor

The FEM may appoint an advisor with the recommendation of FEM's president or regular member and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if necessary.

Section 8: Financial auditor

Two financial auditors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duct annual financial audits based on financial transparency and efficient operation and report the audit results to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9: Meeting minutes

The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signed and preserved by the FEM's president or secretary.

Article 4: Finance and Property

Section 1: Finance

1. The FEM's financial officer is appointed out of the regular memb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FEM's president and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financial officer's term shall be two years. The financial officer may not serve two consecutive terms unless it is approved by all regular members.
2. The FEM is funded by membership fee, church contributions, and other donations.
3. Membership fees ar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2: Operation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fiscal management, FEM is au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appointed financial auditors and complies with the audit findings.

Section 3: Possession of property and disposal

1. The ownership of all property of FEM is held by the General Assembly.
2. In the event of a dispute over the attribution of property due to the dissolution, division, infighting, or other disputes of the FEM, the final decision is hel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final decisions must be made at a meeting with at least two-third of regular members present, and by a two-thirds vote of the members at the meeting.

Article 5: Miscellaneous

Section 1: Amendments to this Articles of Incorporation

1. Proposed amendments to thi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consent of one third of the members.
2. If the proposed amendment is approved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o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it will be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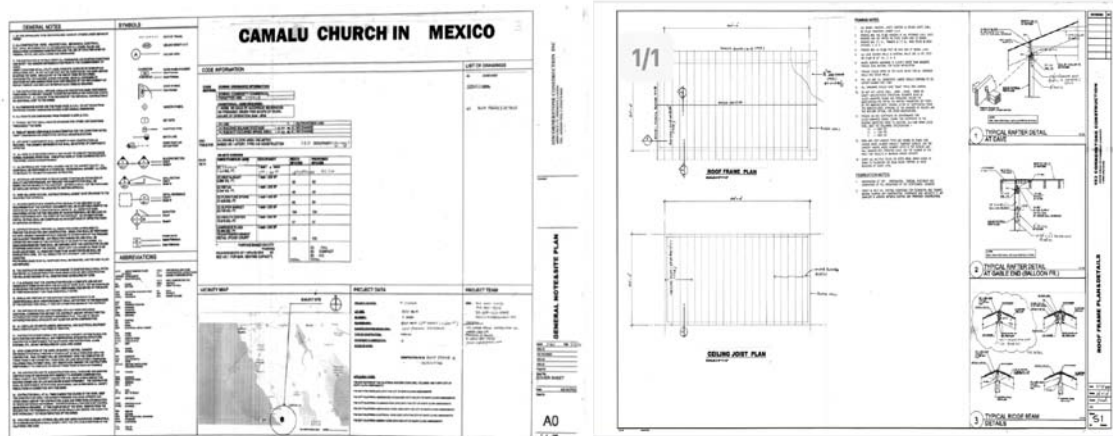
Section 2: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1. The General Assembly reserves the right to fin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Anything that is not specified or unclear in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jority vote of the General Assembly.

Revision history:

July 25, 2020 – general update to language.

첨부분서 V. 김승년 제작, 멕시코 까말루 믿음교회 지붕 공사 설계 도면





첨부분서 VI. 21세기 선교관 수리요청 사진

2층 욕조에서 아래층으로물이샘



(공사전 사진)



(공사후 사진)

첨부분서 VII. 복음대학교 공사 사진

환기가 안되는 통유리를 창문을 열수있게 공사함



첨부분서 VIII. 아마존 (콜롬비아 니아 테미티 마을) 성전 설계 도(양성식 선교사)

